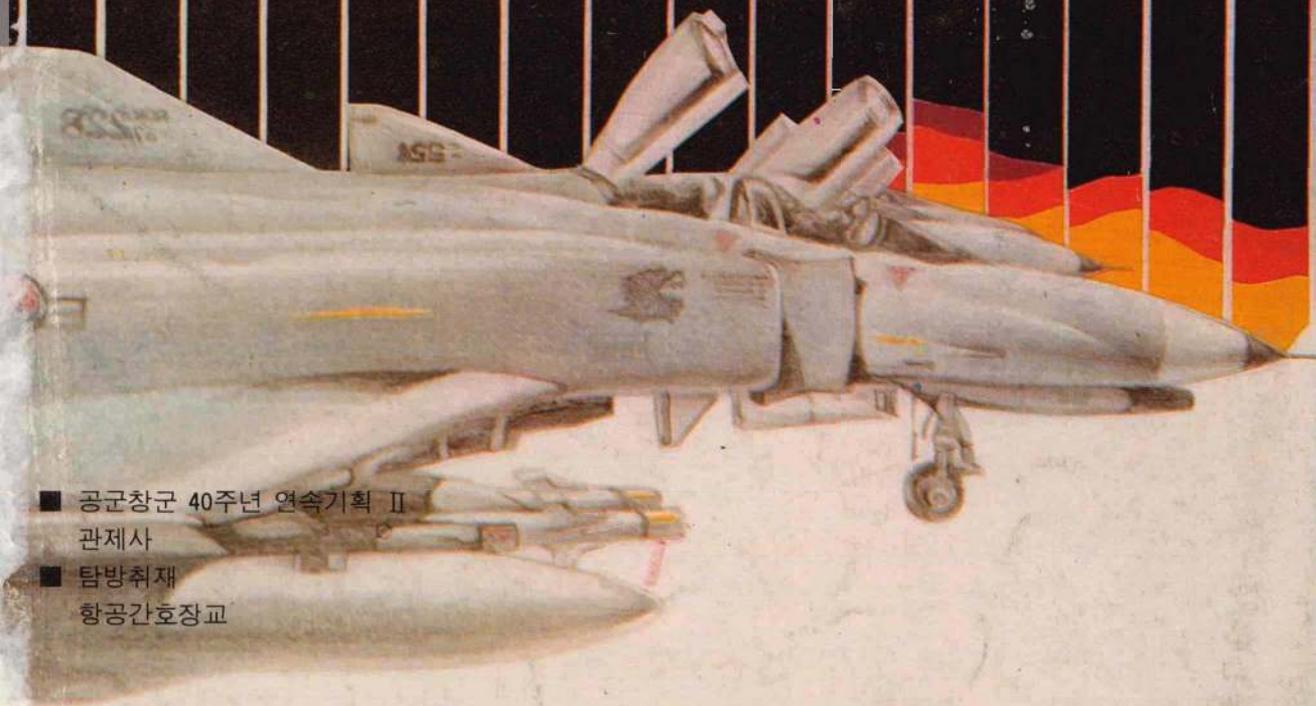


# 에어 포스

AIR FORCE QUARTERLY

1989년 제 1 호 (통권 제208호)



- 공군창군 40주년 연속기획 II  
관제사
- 탐방취재  
항공간호장교

공군본부



새벽을 열고

커다란 꿈을 가슴에 담고

고독한 창공을 난다.

조국의 하늘을 향하여

# '89년은

## 자주적 작전운용태세 확립의 해



『自主国防의 核心戰力인 우리 軍이 급변하는 주변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北傀의 군사적 威脅을 源泉的으로 拂拭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전투역량을 갖추어야 할 시기가 到來했다고 판단되어 1989년도를 「자주적 작전운용태세 확립의 해」로 정하고 이를 具顯하기 위해 우리 軍은 무엇보다도 北傀의 常存하는 南侵威脅을 사전에 抑制하고 유사시 即刻 擊滅시킬 수 있는 고도의 전투태세를 持續 堅持하고 現行 작전계획을 보완 발전시켜 이에 따른 실전적 훈련을 통해 자주적 작전능력을 早期에 確保토록 해야 하겠다.』

서동열 참모총장 신년사 중에서



## 권두언 / 정훈감

### 연속기획II / 공군의 얼굴들

■ 서 언	
쉽없이 돌아온 Sweep / 편집실	6
■ 관제사 수기	
Scope속의 이야기들 / 정민남	9
坐見千里者也 / 최기식	14
병사의 絶望 / 조용무	17
산사나이의 변 / 채제길	21
qualify의 노래 / 김창희	24
■ 지휘 성공사례	
見敵萬里 / 홍갑선	26
■ 발전 연구사례	
최우수관제사의 편지 / 류호열	31
■ 타특기가 본다	
- 조 중	
"Roger Leaving You Goodday" / 강훈	36
침묵속에 만난 그 소리 / 송택환	39
- 통 신	
그들에게 주는 박수 / 최재만	42

## 논 단

한국 VS중국 / 신은영	45
'이념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 김성룡	51
남북한 주민생활 비교 / 최병호	73
부품신뢰도 향상방안 / 백계근	83
정밀측정과 군전력 / 김기택	92

## 군사지식

공군교리 / 유길형	102
空의 안전 / 이만중	112
生 還 / 이재규	120
한국의 핵무장에 따른 이점과 불이점/남상열	127

## 탐방취재

순백색의 CAP(수도병원) / 편집실	132
항공간호장교 / 신영애	142



관제사 수기(공군의 얼굴들)



중국 방직공장의 복장 양품실(한국 VS중국)

## 교 양

### 문 학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 남진희 144

### 음 악

국악을 아십니까? / 이훈선 151

### 법

정의와 형평을 위하여 / 윤근수 155

### 체 육

“修劍得術為國仙” / 신승호 158

### 의 학

고려수지침의 신비 / 강욱 162

### 제 언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 대회 의의와  
발전방향 / 서홍교 170

## 문 예

### 독 후 감

廣場을 읽고 / 김해룡 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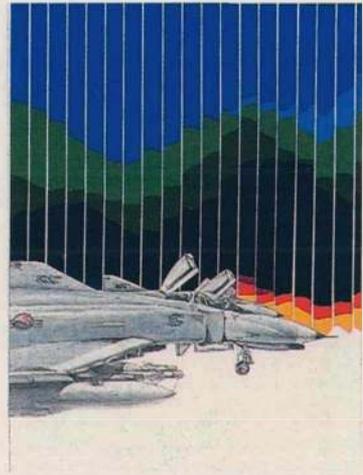
### 수 필

더욱더 光을 / 김일순 183

가을 느낌 / 구충서 186

명장 강감찬 / 김병인 192

## 표 지 화



표지화: 정 원 만

Oricom Designer

표지설명: 공군의 주력전투기와

전천후 비행을 도안화한

illust.



국악을 아십니까? (교양)



항공간호장교 (탐방취재)



◀ 서동열 참모총장은 미공군참모총장 (General Larry D. Welch)의 예방을 받고 의장행사를 가졌다.



◀ 미공군 OSI사령관 (Brigadier General Francis R. Dillon)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누는 서동열 참모총장

▶ 주한스위스대사 (His Excellency Hans-Peter Erismann) 를 접견하는 서동열 참모총장.



◀ 신임 해군참모차장(백석기) 과 환담을 나누는 서동열 참모총장

▶ '89년도 전반기 정훈참모회의가 열렸다.  
전환기 군정 신교육을 재정립하고 이념교육의 방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토의했다.



### 승공작전시상식

제3659부대 연병장에서 '88년도 승공작전 시상식이 있었다.

시상식에서 대통령부대 표창은 제3659부대 161대대가, 대통령 개인표창은 3975부대 김민규소령이, 국방부장관 개인표창은 심준택소령, 이용국소령, 이세걸대위, 김영조소령이 각각 받았다.



공군 교육부대 교관원들의 '88중앙교수 연구발표회 시상식이 공군대학에서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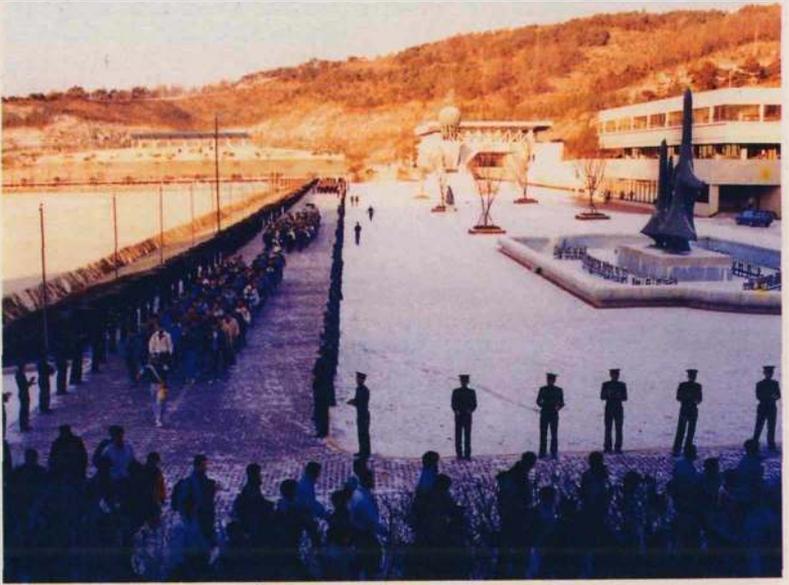


◀ 창설 156비행대대 항공기  
인수식 및 환영행사가 제  
3579부대에서 있었다.



▶ 3975부대에서는 정  
비대대 창설식 및  
화학지원대 신축건  
물 입주식을 가졌  
다.

■ 제41기 사관생도 가입교 행사가 선배 생도들의 뜨거운 환영속에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렸다.



■ 제18기 공군기술고등학교 졸업 및 임관식이 공군교육사에서 있었다.



---

---

# 영문

AIR FORCE QUARTERLY

1989년 제1호 (통권 제208호)

---

---



參謀總長統率方針  
必勝의精兵強軍되자  
最上の 即応態勢 確立  
科学的 指揮管理 提高  
巨視的 空軍文化 暢達

공군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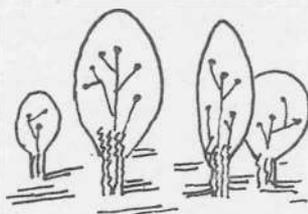
정훈감 대령 강 국 희

## “轉換時代의 우리의 役割”

은 民族이 함께 마음 설레이며 기다렸던 1988년, 이제 우리는 그곳에 자랑스럽게 세워둔 또 하나의 里程碑를 뒤로한 채 다시금 歷史發展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나가야 만 한다.

유난히도 따뜻한 겨울, 그래서인지 한반도에는 '89년 새해 劈頭부터 民族和合의 溫氣가 넘쳐 흐르고, 제주도의 꽃소식이 단숨에 白頭山까지 전해질 것 같은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歌曲 '그리운 金剛山'이 곳곳에서 귀에 들려오고, 그럴 때마다 一萬二千峯의 絶景이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히는 것은 分端 40년의 쓰라린 歷史를 안고 사는 우리네 민족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렇듯 平和統一을 渴望하는 우리들의 부푼 가슴은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런지? 크게 불은 풍선일수록 무던 針에도 쉽사리 터지고 그 폭발음 또한 크다는 平凡한 眞理를 우리는 항상 銘心하여야 만 하겠다. 이 시간에도 북한 공산집단이 갈고 있는 날카로운 毒針의 끝이 여전히 우리의 심장부를 향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들은 對話協商의 條件으로 팀스피리트 훈련중지를 요구하면서도 蘇聯과의 合同軍事訓練을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대한



민국에서의 자유로운 北韓關係書籍 出版을 주장하면서도 북에서는 한국關係書籍 出版을 완벽히 통제하는 등 여전히 民族宿願인 平和統一은 外面한 채 赤化野慾의 헛된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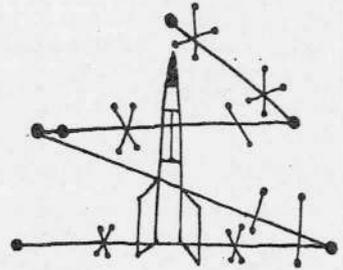
이러한 時点에 있어서 우리 군의 役割이야 말로 참으로 막중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轉換時代에 있어서 급격한 사회변동이 必然的인 것이라면, 國家安保를 擔當하고 있는 우리 군의 변함없는 對備態勢 또한 必需不可缺한 것이다.

오늘도 4천만이 모두 잠든 시간 領空守護의 임무를 충실히 遂行하기 위해 힘차게 조국의 밤하늘로 비상하는 戰鬥機들, 이것과 함께 있는 보라매들의 忠誠된 努力과 必勝의 意志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다.

1983.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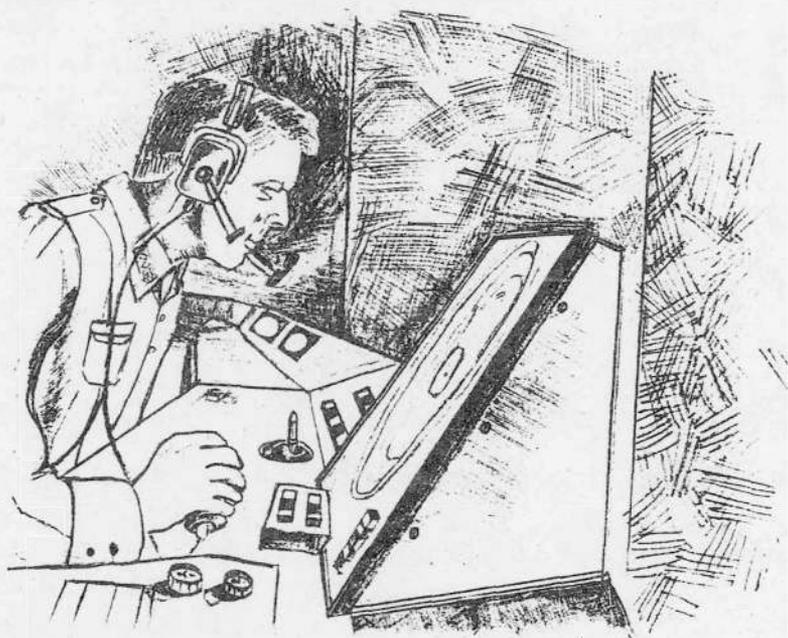
政 訓 監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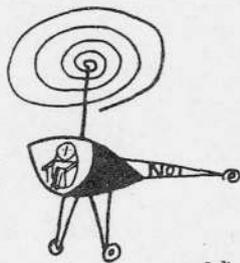
— 서 언		
○ 쉽 없이 돌아온 Sweep		편 집 실
— 관제사 수기		
○ Scope 속의 이야기들.		대령 정 민 남
○ 坐見千里者也		대위 최 기 식
○ 병사의 絶望		대위 조 용 무
○ 산 사나이의 변		중위 채 제 길
○ Qualify 의 노래		소위 김 창 희
— 지휘성공사례		
○ 見敵萬里		중령 홍 갑 선
— 발전연구사례		
○ 최우수 관제사의 편지		준위 류 호 열
— 타 특기가 본다.		
○ “Roger Leaving you, Good Day”(조종)		중위 강 훈
○ 침묵 속에 만난 그 소리(조종)		대위 송 택 환
○ 그들에게 주는 박수(통신)		중위 최 재 만

# 관 제 사



우리는 완벽한 공중감시와  
장비의 무중단 운영을 보장한다.

- 우리들의 결의 -



서 언

## 쉽없이 돌아온 Sweep

— 편집 실 —

**비**행이라는 소재를 통해 인생을 이야기 해준 작가인 쌤뻘취베리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특히 그의 소설 “야간비행”에선 초창기 조종사들의 위험과 고독 그리고 끝없는 도전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당시만 해도 야간비행은 목숨을 건 모험이었고 전혀 안전기재들이 준비되지 않은 불안하고 위태로운 미지의 세계였다.

쌤뻘취베리가 비행하던 시절의 조종사들은 혼자만의 공간 속에서 혼자만의 비행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난다는 것에 대한 기본적 욕구는 해소되었지만 안전한 비행은 보장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각종 공학분야의 발달에 힘입어 비행관계자들은 지상에서 비행을 밀받침해주는 여러 기재들을 고안해 내게 되었다. 이중 통신망의

발달은 하늘의 조종사와 지상의 요원들과의 사이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해주었고 토폴러효과를 응용한 레이더의 발명은 한곳에서 공중의 여러 항공기를 포착 그 위치를 쉽게 파악하여 보다 안전한 비행을 보장할 수 있게 해주었다.

특히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항공기가 막대한 전투력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항공기의 적절한 운용과 적항공기에 대한 사전탐지기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열쇠가 되었다.

이제 창군 40주년을 맞이하는 장년공군의 역사를 더듬어 보며 특히 절해고도와 고산벽지의 환경적 악조건을 극복하고 항시 영공방위의 최일선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관제사들의 모습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관제분야의 역사는 휴전 후인 1955년 9월 비행관제 정보대대가 창설된 것이 근간을 이룬다.

1959년 7월 중앙방공관제소를 미군으로부터 인수함에 따라 우리나라 영공의 대공관제경보권을 장악하게 된다.

관제분야 역시 초창기 발전의 기틀을 다지게 된 데는 미군의 도움이 많았다. 장병들의 도미교육과 국내에서의 미공군에 의한 실무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요원 및 운용요원 확보와 장비확보에 노력한 결과 대대규모가 전대로 확장되었으며 미공군으로 부터 레이더 사이트를 인수 한국 내 전 관제경보기구를 우리의 손으로 운영하게 된 것이다.

특히 1968년 작전통신망 현대화 사업의 완성으로 대량항적의 포착과 격추 기능은 물론 수백대의 요격기를 동시에 관제할 수 있게 되었고 종전의 단일 방공지역을 몇개의 방공소구역으로 분할함으로써 2중방공망을 구성하였으며 신장비의 탐색능력 신장으로 멀리 만주 전역과 중국대륙 일대까지 탐색범위를 확대케 되었다.

또한 관제 스킵의 증가로 지상관제능력이 배가되었으며 다수의 레이더

기지 준공과 더불어 신전술 방공작전 교리를 개발 협동작전체제를 강화함으로써 동남아 전역에 펼쳐있는 자유우방의 방공기구와도 유기적인 공동작전을 펼수 있는 방공기구를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항적추적률의 개선으로 저고도 침투시 속수무책이던 레이더 GAP이 감소되었고 고고도 포착능력이 가일층 향상되었기 때문에 이 공간 내에서 적의 어떠한 전자방해작전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우수한 식별기능을 갖게 되었다. 또한 레이더 장비가 이중체제가 됨으로써 무중단 운영이 가능한 전천후 작전능력을 모색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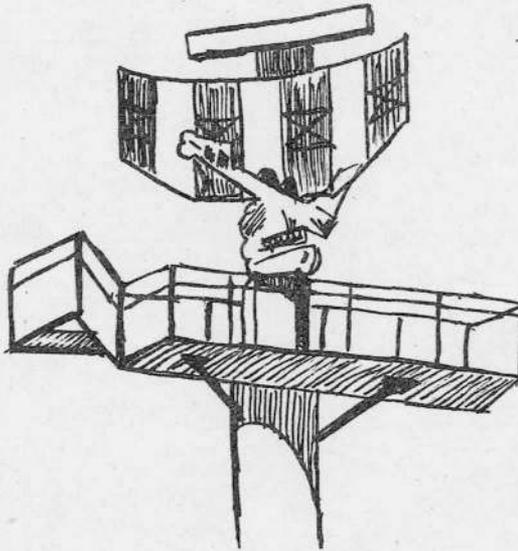
80년대에 들어와 관제분야는 각종 신장비의 도입과 과학적이고 철저한 교육 System 속에서 우수한 관제사들을 양성하여 중앙집권적 방공관제업무 체제화시켰다. 이어 1985년 대망의 자동화체제에 돌입함에 따라 조기경보시간 단축 다수항적처리 및 다수편대의 동시 관제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작전운영의 통합과 지속작전능력의 확보 등으로 방공작전의 일대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다.

---

공군 창군 40주년기념 연속기획 II  
“공군의 얼굴들”

우리 공군 관제분야의 이러한 발달은 '82년 중국 MIG - 19기 귀순을 비롯하여 각종 비상사태시 적시에 함적을 포착 조치함으로써 완벽한 기재 성능과 운용능력을 과시하게 되었다.

현대전은 공중전으로 그 승패가 판가름나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향후 항공우주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방공무기통제사(관제사)의 역할은 조국의 운명과 기본 생존권을 수호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각될 것이다.





관제사 수기

# Scope 속의 이야기들

## 현대전의

특성이 속전속결로 승패가 결정되고,

우리나라와 같이 휴전선에서 수도 서울까지 전투중심이 짧은 여건하에서, 공군작전은 바로 적시에 조기경보의 제공이 전쟁 승리의 최우선 요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과학장비가 조기경보에 활용된 여러 가지 예가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공중감시 레이다가 공군작전에 본격 투입되어 국가방위에 최대의 효과를 얻은 것이, 바로 2차대전 중 독일군의 공습으로부터 런던 폭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던 영국공군의 예가 아닌가 생각된다.

처칠경은 그의 2차대전 회고록에서 레이다를 이용한 조기경보체제를 기반으로 한 오늘날의 전술항공통제체제의 모태가 된 영국공군의 지휘통제체제의 효율성에 대해서 “그렇게 적은 숫자의 영국공군 조종사가 그렇게 많은 독일공군의 공습을 효과적으로 사전에



대령 정민남  
(5315부대)

1964년 공사 12기로 임관했고 73년 서울대 문리대 영문학과를 졸업했다.

국방부장관상을 비롯 다수의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부단장으로 재직중이다.

저지하여 영국공군은 물론 영국국민의 사기를, 높혔던 것은 전쟁사에서 거의 유례가 없었다”는 것으로 평가한 사실을 그의 회고록에서 본 기억이 있다.

## 공군 창군 40주년기념 연속기획 II “공군의 얼굴들”

공군작전에서 적을 최초로 발견하여 대응조치를 하여야 하는 최일선의 파수꾼의 역할이 관제사 임무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본인이 관제사 생활을 시작할 1960년대의 중반 시절은 지금 사이트 생활여건과 비교한다면 여러 가지 불미한 조건이었다. 겨울철에는 영하 30℃ 이하의 추위와 신설 사이트에서는 물이 부족하여 눈을 녹여 식수와 취사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교통편에서도 도로의 포장률이 저조하고 교통수단이 불편하여 서울까지 기차 또는 버스로 12시간 이상이 걸려야 도달하던 시절을 생각하면, 현재의 사이트는 잘 포장된 도로와 빈번한 교통편 등 우리나라의 급속한 발전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여러가지 생활상의 불편과 잦은 벽고지 전속생활 중에서도 얻을 수 있었던 몇 가지를 피력하고자 한다.

### “책임감”

관제사는 공군작전에서 나아가서 국가방위의 임무에서 최초 초기단계에서부터 제일 먼저 개입하지 않을 수 없

는 근무를 하고 있다.

관제사가 감시하고 있는 적기는 속도와 파괴력이 큰 위협요소를 상대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록 그것이 전시가 아닌 평시에 적국으로부터 자유방세계로 망명목적하에 귀순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응조치의 결과는 국가의 평시 방공태세 및 국제적인 커다란 관심거리의 세계적 토픽 뉴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분야라는 것이다.

그 예로 소련의 벨렝코 중위가 MIG-25를 몰고 일본으로 귀순시 일본방공체제의 조기탐지실패로 인한 일본 BADGE 방공체제의 전면 재검토 및 1969년 10월 쿠바의 조종사가 MIG-17로 저고도 해면비행으로 플로리다로 귀순비행시 방공관제의 미포착으로 인한 세계최대 능력의 방공체제를 가진 미국의 체면상실 및 국회에서 조사행위 등의 논란사태, 1986년 서독의 루스터군이 세스나기로 소련의 붉은 광장에 착륙함으로써 관련자의 문책과 소련 방공체제의 능력 재검토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반면에 우리는 1983년 5월 5일 중공민항기가 공중피납되어 한반도로

비행시 우리는 조기포착으로부터 식별·관제·유도착륙시까지 완벽하게 수행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중공과 국교관계가 없는 여건하에서 중공관련자들이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민항기 처리를 논의함으로써 양국간에 외교적 전기를 마련해 준 바 있고 중공국민들이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중공내에서 대한국 인식이 획기적으로 호전되었다.

따라서 관제사가 일상 임하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책임은 전시에만 한정되기 보다는 평시에도 전쟁시와 똑같은 비중과 중압감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임무의 성격때문에 휴무일, 계절의 변화, 주야의 변경에 상관없이 일년 365일, 하루 24시간의 근무의 지속이 요구되고 그렇게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생활은 관제사에게 외형적으로는 하기 힘든, 책임이 큰 군대생활로서 관제사 지망에 대한 불리한 요건이 될 수 있지만 책임감에 대한 철저한 인식, 또 그러한 생활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임무 성취에 대한 책임완수의 생활은 최소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좋은 훈련

의 도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한·미 합동근무”

근대 한·미간의 관계에서 반미현상이 일부 계층에서 노정되고 이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되고 있다. 또한 군사면에서도 작전권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관제사는 전술항공통제의 일부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공군의 다른 분야보다는 한·미 합동근무 경험을 가질 기회가 많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근무를 통해서 미군들의 한국에서의 역할과 그들의 일상생활, 그들의 국가이익 관계에 대한 관심, 그들의 한국방어에 대한 제반 의지, 또는 한계성, 군사력에 대한 실감을 통해서 미국의 일면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 생각한다.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당시의 동해상의 북괴 공군의 활동과 납치 이후 미군정찰기인 SR-71을 최초로 우리 레이다 스코프상에 포착하여 그 활동을 보았던 경험, 일주일 후에 미국의 시사주간지인 타임지 표지에 게재된 원산항에 억류된 푸에블로호의 생생한 사진모습을 통해 보았던 미국의 정보

능력에 대한 놀라움, 실제 복귀에 대한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기 위해 신속하게 이루어진 군사동원체제, 주야를 가리지 않고 군수물자의 유입상황을 스크린을 통하여 볼 수 있었던 것은 관제사가 아니었다면 볼 수 없었던 세계적인 사건에 대한 현장목격이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업무상 한·미 군사관계에 대한 많은 업무규정, 교범·작전계획·작전명령에 대한 빈번한 접촉과 숙지는 제한된 군생활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제반 근무여건은 군에 들어와서 편하게·안이한 기간을 메우고 나갈려고 하는 젊은이라면 모르지만, 새로운 경험과 지휘 및 관리경험, 조직체 속에서 생활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을려고 도전적이고, 의욕적인 동기를 찾고자 하는 젊은이에게는 관제사 생활은 역시 좋은 분야로 권하고 싶다.

한·미 근무경험은 관심과 의욕과 노력만 한다면 영어를 사용하는 기회가 많아 직접 미국에 가서 경험하지 않더라도 미국인에 대한 속성과악·의사소통능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부수적으로 말할 수 있다.

### “위기 관리 능력”

레이다 사이트는 항시 전장이라는 각오하에 신의주, 요동 및 산동반도, 일본지역 주변까지 광활한 지역의 상공에 떠있는 비행물체에 대해 감시하고 있으며 이중 적기의 기수가 남쪽으로 향하거나 한반도로 침투해 오는 경우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하여 여하한 영공침투를 저지하는 과정은 초를 다투는 긴박한 상황속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

따라서 언제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 대응을 통해 각자의 위기처리능력을 제고시켜 주므로서 목표완수를 위한 의지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는 사회생활속에서 야기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관제사 생활을 통해 얻을 수 있다.

### “위탁교육 기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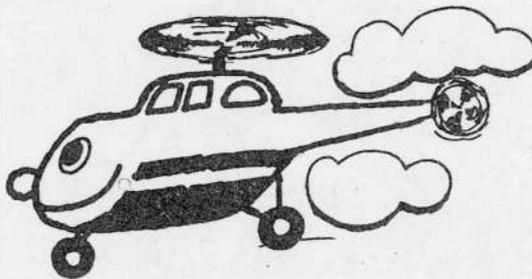
공군은 기술군으로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국영공수호의 막중한 임무수행을 위해 국내외 위탁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첨단과학기술에 따른 고도 정밀무기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지휘관리능력 함양을 위해 전문분야는 물론 전산 및 경영분야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전공을 최대한 활용하여 군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기발전을 기할 수 있다.

또한 교대근무를 함으로써 비교적 많은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다른 분야보다는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24년간의 관제사 생활을 회고해 볼 때 관제사는 조국 영공

수호의 최일선 보루로서 막중한 임무 완수가 요구되며, 조종사가 아닌 분야로서 공군작전의 전반적인 흐름과 공군의 특성을 체득할 수 있었고, 현재 우리의 능력과 근무여건은 초창기에 비해 공중감시면이나 생활여건상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통상 공군 장병으로 입대하여 갖는 선입관에 대해 체험을 통해 불식시킬 수 있었다고 자부하면서 다시 한번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관제사 수기

# 坐見千里者也

산에서의 여름은 짧다. 여름이 오는 듯 하다가 금세 가을이 성큼 다가선다. 비탈진 산길을 출·퇴근시 오르내리다 보면, 단풍이 점점 산자락쪽으로 퍼지며 내려가고 있음을 하루가 다르게 느낄 수 있다. 아담한 중대장실에 중대원들이 껴다 놓은 들꽃들 — 들국화, 갈대 그리고 이름모를 야생초들 — 은 한결 가을의 정취를 북돋우어 주고, 그것을 바라보는 내 가슴에는 중대원들의 따스한 정이 깊이 스미어든다. 불현듯 임관 후 고된 훈련관제사 생활에서부터 한 관제대대의 항공작전을 담당하는 중대장에 이르기까지의 숱한 감회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미지의 세계로 나서는 설레임과 불안감 속에서, 터덜대는 비포장도로를 따라 첫 부임지로 향하는 우리 초임 장교들의 눈 앞에 중세 유럽의 웅장한 성으로 버티어 선 부대를 멀리서



대위 최 기 식  
( 8351 부대 )

1958년 대구에서 출생했다.

공사 29기로 임관한 관제사다. 대대 선임통제사 및 작전계장을 거쳐 현재 관제 중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처음 보았을 때의 두근거림.

장교 숙소 출입문 위에 “축 입성 ○○산”이라는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부임을 축하하던 선배장교들.

처음 접하는 밤낮이 바뀌는 근무 스케줄과 낯설은 근무명칭에 대한 당

관	제	사
---	---	---

황도 잠깐, 초기에 조종사와의 라디오 교신내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치른 곤욕, 요격임무시 항공기 불포착으로 당황할 때의 선배관제사의 호된 질책, 겨울 한밤에 밖에 나가 북괴 저속항공기를 육안감시하라는 선배의 장난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서 시린 귀를 감싸며 한없이 북쪽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일 등, 정신없이 바빠 흘러가던 훈련관제사 시절은 나에게서는 쉽게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이다.

이러한 긴장이 연속되는 몇 개월 동안의 교육훈련으로 기성관제사 자격을 획득했을 때의 자랑스러움과 해냈다는 안도감으로 관제사 흉장을 들고 몹시도 기뻐했던 시간도 있었다.

기성관제사로서 긴박한 공중작전상황을 접하면서, 위협성 적성항적에 대한 긴급출동 항공기 관제, 구서작전, 불시방공훈련, 기상돌변으로 인한 악기상하에서 임무기의 모기지 유도 등 중요한 임무를 성공리에 수행했을 때, 이마에 맺혀 있는 땀방울을 훔치면서도 요격관제사로서의 강한 자부심을 느끼곤 했었다.

1983년 2월 25일 - 이웅평 중령이 귀순하던 그날 - 은 나에게서 쉽게

지워지지 않는 날이다. 그날 야간근무 후, 피곤한 심신으로 취침하던 중 긴급상황의 발생을 알리는 비상벨 소리에 작전실로 황급히 뛰어오르다가, 한겨울의 빙판에 뒹굴어 무릎을 다친 상처는 아직까지도 희미한 흔적을 남기고 있다.

그동안 중공민항기 납치 귀순사건을 비롯한 몇 차례의 공산권 항공기 귀순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공중감시수들의 완벽한 공중감시에 혼자 박수치며 무척이나 기뻐하기도 했었다.

사이트는 고산고지에 위치하기에 비행단 생활과는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그러나 부대 울타리를 조금만 나서면 계절에 따라 쉽게 접할 수 있는 보리수, 더덕, 취, 만삼, 천궁, 다래, 치나물 등의 무궁무진한 자연혜택 및 무공해 식품은 사이트에서 누릴 수 있는 특혜이기도 하다. 짬나는대로 이를 캐다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장병들의 순박한 얼굴, 그 재료로 담가 둔 술을 며칠도 못 넘기고 동료들과 마시면서 피운 생활의 이야기와 너털웃음은 사이트 생활의 활력소가 되기도 한다.

사이트는 벽오지에 위치하여 외롭다. 그러나 외로움으로 인해 외롭지 않다.

왜냐 하면 각자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서로서로 형제처럼 다정한 정을 나누면서 생활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고지의 추위는 서로가 나누는 정으로도 녹일 수 없을 만큼 몹시도 매섭다. 한겨울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고지, 1미터 이상 쌓인 눈 속으로 터널을 만들어 다니던 겨울의 사이트, 사방에서 불어오는 매서운 바람은 여미고 여민 스키파카도 뚫고 들어와 온몸의 피부를 비수처럼 헤집어 놓곤 한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얼어붙은 손과 귀를 호호 불며 야밤에 소리죽여 일어나 묵묵히 근무장으로 향하는 장병들이 존재한다. 바로, 이처럼 성실한 장병들의 노고로 인해 방공작전에 한치의 오점도 없었던 것이리라.

사이트에서의 생활여건이 비록 불충분할지라도 우리는 밝아오는 아침 해와 지는 석양의 아름다움을 누구보다도 먼저 볼 수 있다는 특권과 항상

뜻뜻한 자연과 생활한다는 자긍심으로 위안을 삼는다.

조국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애국과 충성을 그저 앵무새처럼 말로만 되뇌이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우리의 임무와 책임이 공군의 그 어느 분야 보다도 중요하다는 일념하에 공중감시수로서, 요격관제사로서,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최전방의 초병으로서 자존을 유지하면서 살아간다.

오늘도 두 눈을 스킵에 고정시키고 뚫어져라 주시하는 우리 장병들의 뒷모습을 보노라면, 무한한 든든함을 느낀다.

…… 坐見千里者也，祖國信汝（앉아서 천리를 감시하는 자여，조국은 그대를 믿는다）……

어느덧 가을 해는 산 중턱을 돌고 있고, 석양의 빛을 흠뻑 안은 온 산엔 홍엽의 너울거림이 가득찬다.



관제사수기

## 병사의 絶望

본의 아니게 근무와 관련된 수기를 한 번 써달라는 말을 듣고 아무리 생각해보고 기억을 더듬어도 워낙 짧은 경력인데다 그간 특별히 어떤 감상을 느낄만한 작전경험도 없고 하여 평소 선임통제사라는 직책으로 근무하며 스스로 혹은 근무조원의 생활 관찰과 면담 등을 통해 발견하는 공통적인 의식을 짚어나마 나름대로의 소견을 가지고 피력해보기로 하였다.

대학시절에 접했던 책들 가운데 아직도 나의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다면 소설가 이 문열씨의 초기작품인 『塞下曲』도 결코 빼놓을 수 없다.

벌써 여러 해가 지난 지금 군복을 입고 군무에 임하고 있는 지금 내게 그 작품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생생한 공감을 일으키며 되살아나고 있다.

어느 해 추운 겨울의 전방이라는 계절적, 지리적 배경속에 실전에 가까운 대규모 기동훈련을 실시하는 육군



대위 조용무  
(8145부대)

1962년 서울에서 출생했다.

85년 항공대학 운항학과를 졸업하고 R.O.T.C 12기로 임관한 관제사다. 현재 대대 선임통제사로 근무하고 있다.

의 한 단위부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와 여러가지 형태의 개인적 또는 구조적 갈등, 이로 인한 극단적인 결과 등의 사건을 나열하며 추중위라는 ROTC 출신의 소대장이 객관적, 관찰자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서술의 형태로 줄거리를 이끌어 가는데 작가는 작품 말미에서 주인공의 입을 빌어 깊이 새겨 볼 가치가 있는 끝

맺음을 한다.

.....

『그것은 바로 兵士의 絶望입니다.』

결국 여기서 나타나는 <절망>이라는 동기(Motive)를 통해 작품중에 일어난 음울하고 극단적인 사건들이 발생했다는 표현인데 작가는 후기에 오래 전에 있었던 군대의 모습이 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아직도 <절망>이라는 내면적 동기는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여겨진다.

일정한 사회집단을 구성하는 개체들은 제각기의 욕구와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과 자신의 목적을 부합시킬 수 있는 상호보완이나 만족의 상황-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언정-하에 있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집단 내부에 피치못할 구조적인 모순과 자신의 욕구가 전체에 의해 억제되는 충돌이 있게 되더라도 폭넓은 자율의 의지와 질서의식에 의해 큰 갈등없이 그러한 모순과 충돌은 쉽게 극복될 수 있다.

그러나 뚜렷하고 당위적인 목적을 지닌 군대사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의 욕구와 자유의지의 폭을 좁게 제약할 수 밖에 없고, 이를 위해 엄격하고 강제적인 기율과 계급

구조를 유지해야만 한다. 그러므로서 개인을 내세우거나 군대사회의 목적에 위배되고 역행하는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 개체의 존재를 거부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군대의 특수성과 그런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 특수성을 이해하면서도 개인의 내면적 부담과 압박 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너무 강해 그것을 극복할 수 없어 갈등하는 소수의 집단이 양립하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에 있다. 이러한 상호적, 구조적인 모순이 존재하지만 분명한 것은 개인의 욕구나 의지보다는 군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옳던 그르던 나름대로의 모순과 불만을 느끼고 있는 개체들은 그 숫자의 다소나 의지의 유무에 관계없이 군대의 기율과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며 철저한 임무수행과 복종을 강요(?)받게 된다. 이러한 모순과 갈등에 의해 개인은 결국 포기과 타성에 의한 소극적 생활과 절망만을 갖는다.

또 그런 심리적인 체념은 극단적일 경우 前記한 작품내용과 유사한 여하한 형태의 사고와 작전의 실패 등으

로 나타나게 마련이며 그것은 결국 군의 목적달성에 방해 및 역행되는 인적, 물적 손실과 전체적인 사기저하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개인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없는 무기력한 근무태도와 생활은 오히려 옳아하니만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군 자체에서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꽤 오랜 기간 전체적인 또는 단위부대별 지원을 통해 수사의 정훈활동 및 면담, 복지환경 개선 등 직, 간접의 개인접촉과 분위기 조성의 노력을 하며 장병들이 군 생활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왔지만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여건상 아직도 그러한 노력들이 본질적이고 미묘한 개인적, 부분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부족하기도 하고, 개인들의 노력도 수동적이라는 면에서는 더욱 힘든 일이 아닐까 싶다.

공군의 기본임무인 <영공방위>의 첨예라고 할 만한 방공관제임무를 맡아 본지도 4년여가 지났다. 극히 미려한 부분에서지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을 이 산, 저 산 옮겨다니며 근무해 오면서 어느 방공관제부대이고 모든 장·사병이 좋던, 나쁘던 주어진 환경속에서 주어진 본연의 임무를 성실한 자세로 수행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물론 한시라도 방심할 수 없고 개인의 소홀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는 극히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며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지만 그렇게 근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벽고지라던가 도서지역이라던가 기타 열악한 지역적 환경을 가진 근무지에서 혹심한 추위나 끊임 없는 교대근무, 보충 및 대기근무 또 이러한 근무에서 비롯되는 신체적 고통이라던가 생활의 불편함을 극복하고 근무하는 관제사들에게 주어지는 지원과 혜택이 상대적으로 보거나 절대적으로 보거나 부족한 상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물론 그러한 생각을 내 스스로의 직책이나 다른 여러가지 면에서 표현하지 않는다 하여도 근무조의 휘하장·사병과의 면담이나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 생활을 통해 관찰해보는 그들의 내면에는 겉으로 공공연히 드러내지는 않지만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불만족과 피해의식이 존재하고 있음을 감히 확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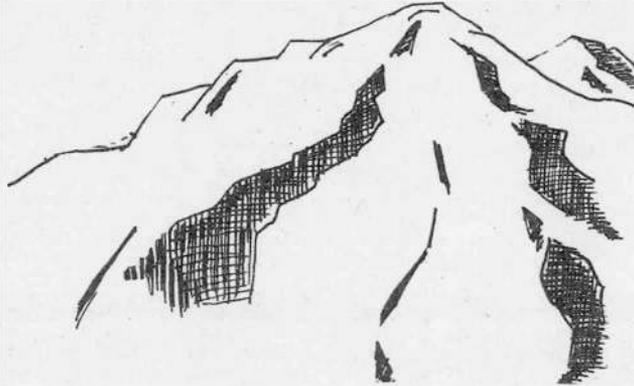
그리고 중요한 일은 그런 내면적인 의식이 공식적이거나 개인적인 면담과 교육 또는 강요에 의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는다는 일이다.

물론 군복을 입고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월급을 받고 생활하는 군인으로서 주어진 환경이나 근무 등이 자신에게 좋던, 나쁘던 개인의 욕구를 자제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행해야 옳고, 그렇지 않다면 정신교육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야겠지만 여지껏 말한 내용들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 아무리 사소하고 표면상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불만족이나 소극적 의지 등의 악요소가 막중한 영공방위의 한 초석으로써 완벽한 방공관제임무를 수행하는 관제사의 임무에 자칫 큰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어렵겠지만 이러한 가능성을 막고 관제사의 사기 극대화과 더욱 완벽하고 성공적인 임무수행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사소한 역행적 의식이라도 줄일만한 높은 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이상의 내용으로 수기를 대신하여 써 보았는데 두서없이 장광설을 늘어놓아버린 모습이 된 것 같다. 다른 모든 부서의 장·사병들도 열심히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을 줄 믿지만 아물든 곳곳에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밤낮없는 방공관제업무에 힘을 쓰고 있을 관제사들에게 힘찬 “Fighting”을 외친다.





관 제 사

관제사 수기

## 山 사나이의 辯

**화전벌** 꽃샘추위의 세찬 북서풍을 맞으며, 얼어붙은 땅바닥에 엎드

려 체력단련을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던 순간, 헉헉거리며 뿔어대는 하얀 입김속에 여린 모습으로 피어오른 새싹의 움튼을 마주 했던 것은 어떠한 생활의 어려움이 닥쳐와도 즐거운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시작하여 공군의 가족이 된지도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하니 “세월이 유수같다”는 옛말이 새삼 실감나는 것 같다.

물이 없어 콜라로 양치질하고, 몇 날 며칠들을 세수 한 번 못하여 기름때 낀 시커먼 모습으로 살고있노라는 선배들의 일상생활을 재미있게만 들어오다 막상 내 자신이 어느새 서게 된 이 높은 산봉우리에선 그 옛날의 어려운 환경은 전설인양 사라진지 오랜 세월임을 느끼면서도, CREW 근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해매던 많은 시간과 세상의 그리운 이들과 떨어져



중위 채 제 길  
( 8386 부대 )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항공대학 운항과를 졸업했고 R.O.T.C  
13기로 임관한 관제사다.  
현재 선임통제사로 근무하고 있다.

가슴가득 품게 된 그리움이 던져주는 의로움을 달래는 일이 가장 큰 고통이었다고 기억된다.

3년 남짓한 군생활 속에서 이곳저곳 이름난 명산들을 두루두루 거쳐왔다는 것은 가정이란 조그만 태두리조차도 벗어나지 못했던 내게, 여행이 주는 일시적 단편적인 자연의 모습에서 얻게 되는 작은 의미뿐만 아니라,

사계를 통해 전해주는 산의 숨결을 느낄 수 있게 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며, 또한 산사람이 겪게 되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한 자연의 커다란 축복이라 말하고 싶다.

처음 찾게 된 산에서의 첫 이미지, 질게 깔린 해무로 인해 자연 속에 오밀조밀 자리한 인공적인 구조물들이 마치 베일 속에 가리운 듯한 동화속 궁궐처럼 신비스럽게만 느껴졌던 기억이 난다.

하루하루 피교육자의 길은 피곤하기만 했지만 그래도 휴일이면 선배들을 따라 낚시대 짊어지고 바닷가로 향하는 발걸음만은 가볍고 흥겨운 나들이였다. 망둥이 낚시질에 바닷게만 더덕더덕 붙어 올라오는 낚시대를 바라보며 큰 웃음짓던 일들, 가끔씩 펼쳐지는 회식을 통해 오랫동안 정들었던 이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이별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고, 새로운 얼굴을 맞으면서 갖게 되는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뜨거운 전우애로 엮어나가는 모임에 참석하면서 軍文化의 새로운 인식을 갖게된 것도 사실이었다.

한 겨울의 산정, 시속 40~50km로 휘몰아치는 눈보라로 인해 한 치 앞 발끝도 보이지 않는 상·하번 길에선

조그만 나의 몸집은 가랑잎처럼 방향 잃고 넘어지는 고통스러움이 함께 하지만, 바람이 잠든 고요한 아침이면 머물러서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빛은 내 얼굴에 화안한 미소를 머금게 하고, 밤새도록 가지마다 고통스럽게 피어올라 활짝 핀 눈꽃들에 의해 사방 팔방으로 반사되어 향락과 퇴폐의 산물인 도시의 휘황찬란한 네온사인 보다 더욱 더 현란한 분위기로 내 마음을 동요시켰다. 또한 우두커니 산 꼭대기에 서서 시선을 사로잡혔던 일은 어떤 연유에선지 몰라도 까마귀 떼가 높은 곳에서 한 겨울을 난다는 사실이었다. 기암절벽 사이에서 하이얀 설경을 배경삼아 멋지게 내려짓하는 모습은 예전에 느꼈던 그들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기에 충분했다고 본다.

그래도 가장 인상깊었던 근무시절은 4개월 동안 천막에서의 파견생활이었으리라, 별경계 달아오른 난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만 떨어지면 등 뒤에 있던 온도계가 영하를 기록하던 시간들, 그래도 지켜야 한다는 의무와 책임감에 줄음과 추위를 쫓기 위해 변변치 못한 커피잔에 차가운 두 손을 만지작거리며, 호록호록 소리내어 뜨거운 커피를 마시던 일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마철 집중 호우로 꼬불꼬불한 산길이 끊어지는 일로 인해 밤새도록 전 장병이 한몸이 되어 역세게 퍼붓는 폭우 속에서도 너 나 할 것 없이 우의 하나만 걸치고 도로유실을 막기 위해 힘쓰던 일이었다.

이제 군에서 세번째 겨울을 맞이하게 된 지금, 기온이 영하 20℃를 우습게 내려가고, 구름 한 점만 지나가도 눈발이 휘날리는 이곳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것도 그 동안 겪어 온 많은 어려움이 준 아픔의 결과라 생각된다.

어느덧 선임통제사의 위치에 서게 된 지금, 복귀의 야욕을 저지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공중감시에서 눈을 떼어서는 안 된다는 의무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항시 전장, 완벽한 공중감시”란 구호를 마음 속 깊이 되새겨 본다.

오늘도 여지없이 어둠 속 찬 바람을 헤치고 다가서는 초롱초롱한 작은 별빛 사이로 영공수호의 기수로서 홀로 외롭게 비행하는 필승 보라매의 능름한 몸짓과 그네들의 멋진 나래짓을 위해 이곳 저곳에서 불철주야 수고하는 수많은 공군가족들을 그려보며, 온 누리를 하얗게 뒤덮은 눈꽃들이 던져주는 보석같이 영롱한 축복의 빛을 받으면서 산길을 오른다.

이제 1988년의 다사다난했던 모든 일들도 머리 속 저만치로 과거란 묶음이 되어 가라앉는 지금, 하얗게 눈덮인 산줄기마다 잠시 동안 원색적으로 펼쳐졌던 환상적인 가을 단풍의 아름다움을 회상하며, 이 겨울이 지나 산자락마다 새록새록 물오를 “기사년”의 희망찬 새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해본다.





관제사 수기

## Qualify 의 노래

**독수리가** 비상하기 위한 준비과정은 많은 고통이 필요하다. 생도시절 어려움과 함께 큰 기쁨을 맛 볼 수 있었지만 졸업이라는 것이 내게로 다가왔을 때 내 주위에 오히려 미련과 회한이 눈처럼 쌓였다.

다시는 후회하지 않는 생을 살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특기교육과정에 입과했을 때 유능한 청년장교라고 인정받으며 생활에 적응하려고 애썼던 것 같다. 정들자 이별이라는 속담처럼 정착할 만 하니까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니며 교육을 받다보니 내 손에 딸려오는 것은 커다란 블루 백과 부임증 뿐이었다.

듣기만 해도 삭막하고 고적한 Site 부대에 막상 도착해서 실제 생활해 보니 지금은 이곳처럼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살 수 있는 곳도 없는 것 같다.

훈련관제사로서 이곳 생활을 출발했

소위 김창희  
(8931 부대)

1965년 군산에서 태어났다.

1988년 공사 36기로 임관한 관제사다.  
작년 8월 정식관제사가 되었으며 Vice로 근무하고 있다.

던 지난 수 개월 전 역시 피교육자로서의 생활이었으나 서로가 도와줄 수 있고 관심을 가져줄 수 있다는 것 하나 만으로도 좀더 열심히 하자고 하는 마음이 솟구칠 수 밖에 없었다.  
조그마한 Scope 앞에 앉아서

“PORT” “STARBOARD” Turn을 지시하다 보니 내자신도 역시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좌지우지하는 회의를 느낄 때도 있었던 것 같다. 소심해지는 나의 모습과 근무시간에 한 동안 무기력함을 문득문득 느낄 때가 있었기 때문이다. 온통 캄캄한 작전실 내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Radar Scope면을 보고 5분만 지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최면상태에 빠져들기 쉽기 때문이 아닐까? 밤에도 상하번 교대할 때는 웬지 허탈하고 피곤했지만 작전실을 나와서 크게 심호흡 한 번하고 밤안개 속에서 한껏 정취를 만끽하다 보면 어느 새 기분도 상쾌해지는 때가 많았다. 그렇듯 때로는 Crew 근무라는 생활때문에 피곤하고 지칠 때 무척이나 회의적인 때도 많았지만 나의 직업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에 대한 나름대로의 보람을 느끼며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출발하면서 앞으로의 삶을 엮어나가고 싶다.

북극기의 활동이 많을 때는 잔뜩 긴장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무척이나 고심하는 관제사들의 마음은 너도 나도 하나같

이 우리의 책임은 한국 방공망의 주역으로서 자신의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큰 보람을 느끼곤 한다.

반 년이란 긴 시간이 어느덧 흘러 훈련관제사가 아닌 기성관제사로서 평가를 받을 때는 왜 그리도 긴장이 되고 떨렸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전투복 왼쪽 가슴에 새길 수 있는 Qualify wing Mark가 어찌면 그렇게도 부럽게 느껴졌는지 모든 Test에서 잘 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앞섰다.

지금은 00산 Site부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성관제사가 되었고, 또한 현 근무조에서 자그마한 역할을 수행하는 집단 속의 “나”이지만 한국 방공망을 지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데 대한 자부심과 긍지는 어느 누구에게도 못지 않을 것이다.

아직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을 이곳 생활에서 “최선”이라는 말을 나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도록 생활하겠다고 다짐해 보며 오늘 하루의 밤 근무도 피곤한 줄 모르고 임하고 있는 것이다.

지휘성공사례

## 見 敵 萬 里

### 1. 序 論

조국의 영공방위를 위한 공중감시 및 조기경보는 당부대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로써 이같은 임무수행의 성패 여부는 곧바로 국가안보에 직결됨을 명심하고 항시 전장의 위기의식 속에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지리적으로 수도권을 비롯하여 전방 및 북한지역의 공중감시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막중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24시간 조기경보태세 유지는 물론 레이다 장비의 무중단 운영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당부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완벽한 공중감시와 장비의 무중단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창의적인 업무활



중령 홍갑선  
(8145부대)

1948년 수원에서 태어났다.

공사 20기로 임관한 관제사다.

작전과장을 거쳐 현재 대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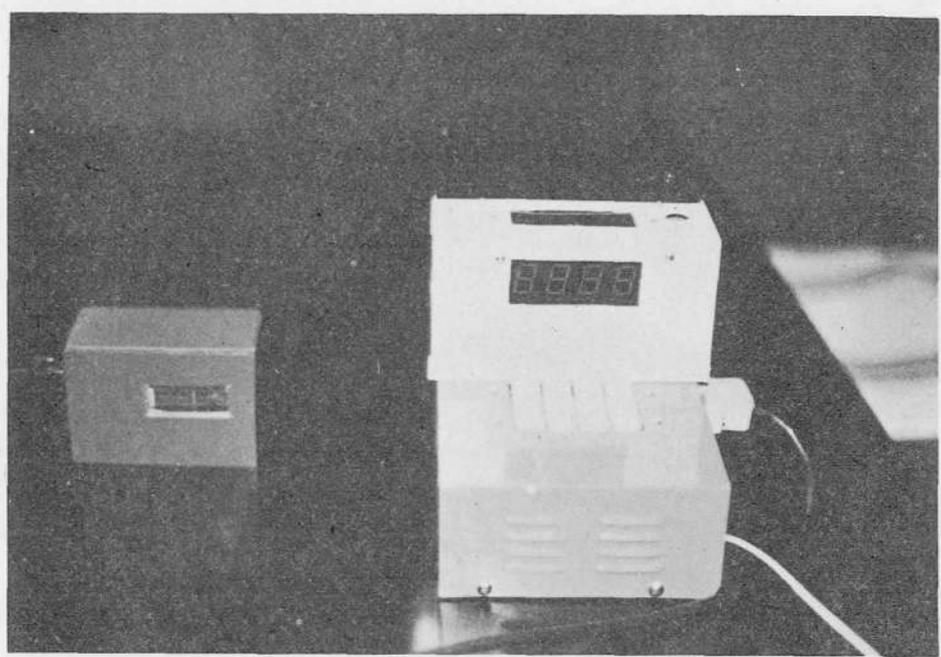
등을 몇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 2. 本 論

가. 요격관제 고도표시기 운용  
수동체제에 의한 요격관제임무 수행시 임무정보를 각 위치에서 육성으로 전파하고 있는 관제로 작전실 내가 소란

하며 고도정보 교환시 혼란으로 성공적인  
 요격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당부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  
 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전파

체제를 개선하여 고도측정수의 행위입  
 력으로 요격관제 콘솔에 고도자료가  
 시현될 수 있도록 “고도표시기”를  
 설치하여 운용하게 되었다.



(요격관제 고도표시기)

그리하여 “고도표시기” 운용 이후  
 최신 고도정보의 신속정확한 전달 및  
 즉각적인 활용으로 요격 성공률이 신  
 장되고 통제사에게 자신감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각 위치별  
 통화량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업무협조  
 로 실질적인 팀웍 능력이 향상되었으  
 며 통제장병들이 정숙한 분위기속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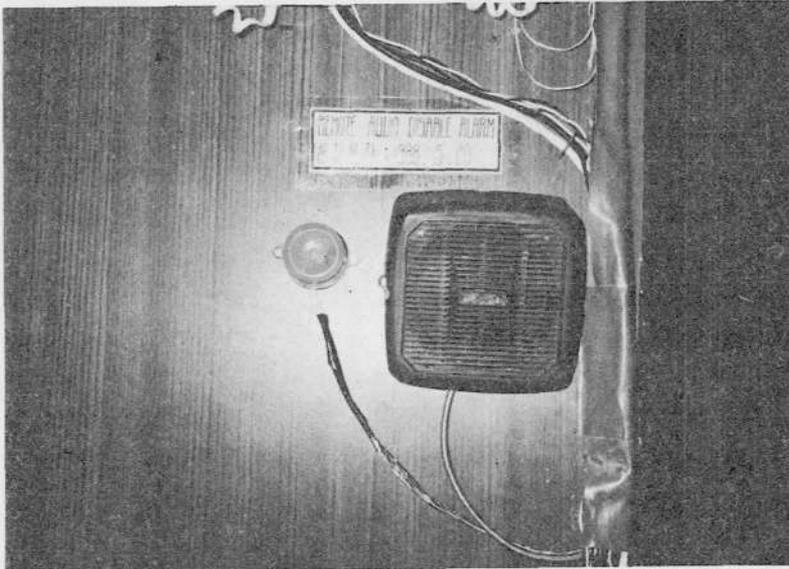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좀더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서 여러 사람이 임무를 수행할 경우 고도측정수 한 사람의 행위로 여러 콘솔에 필요한 고도정보를 각각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으며, 고려되고 있는 방안으로서 키-보드 패널에 스위치를 부착하는 것 등 여러가지가 검토되고 있다.

더불어 운용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측정수의 지속적인 숙달훈련을 실시하여야 될 것으로 여겨진다.

#### 나. 장비이상 경보기 설치

장비이상 경보기는 FPS-117 레이 다 장비의 모든 기능을 컴퓨터로 제어되는 장비로써 장비작동 감시실에 경보기능이 내장되어 성능 저하시나 항적 자료 전송 불능시에 버저와 램프로 경보하고 있으나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장비작동감시실 근무자만이 인지할 수 있어 대기 중인 숙련급 정비사는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비 작동감시실의 장비이상 경보기와 연결하여 정비사 대기실에 설치하였다.



(장비이상 경보기)

따라서 경보기를 설치한 이후에는 장비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장비작동 감시실 근무자와 정비사 대기실의 대기 중인 숙련급 정비사가 동시에 인지하여 즉각적인 정비를 실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장비의 무중단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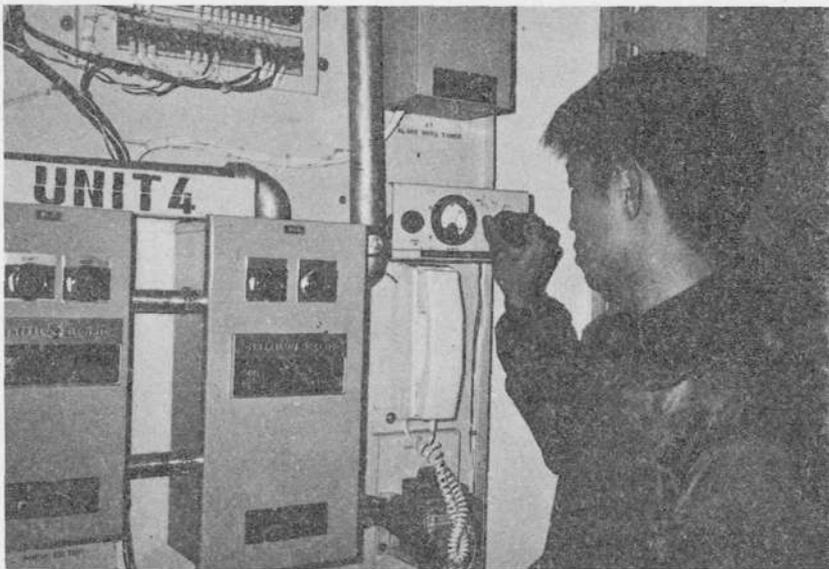
#### 다. 전원점검계기 설치

FPS-117 레이더의 전원은 3상 208볼트로 정격전원이 요구되고 있으며 대대의 전원 점검은 장비실과 원 거리에 위치한 발전실의 점검계기로

전압을 점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장비에 직접적으로 공급되는 장비작동감시실에는 전원점검시설이 없으므로 전원을 수시점검할 수 없으며 3상중 1상이 단락시에는 장비의 부품 손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장비작동감시실의 전원 인입단에 전압점검 계기를 설치하여 전원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전원이 불량할 경우에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 장비의 부품 손상을 사전에 방지하게 됨으로써 장비의 무중단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



(전원점검 계기)

### 3. 結 論

지금까지 영공의 수호를 위해 일익을 담당하는 부대로서 주어지는 막중한 임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당부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창의적인 업무활동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공군의 특성인 기동성을 감안할 때 적의 기습공격에 대비한 공중 조기경보체제 확보 및 초기 반격능력의 극

대화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완벽한 공중감시와 장비의 무중단 운영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효과적인 영공방위를 위해서는 완벽한 공중감시와 장비의 무중단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장병들의 교육훈련은 물론 제반 기술적인 측면의 연구·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확신한다.





발전연구 사례

## 최우수 관제사의 편지

**본부** 편집부로부터 최우수 통제사로 선정된데 대한 간단한 소감내용을 적어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적지 아니 걱정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나의 생활이 남과 비교될 만큼 두드러진 면도 없거니와 실사 있다해도 나에게 대한 자랑거리를 나타내 보이는 것 같아서 무척이나 망설여졌다. 이렇게 한 며칠 고민하는 과정에서 선배통제사와 동료들과 상의도 하고 본부로부터의 간곡한 연락이 계속되어서 부족하나마 몇자 적어보기로 하였다.

매년 10월쯤이면 공군의 관제 부대에서는 중요한 연례행사가 하나 치루어진다. 그것은 다름아닌 승공요격관제대회인 것이다.

이 대회는 조종사의 필승사격대회와 비교될 수 있는 것으로써, 수많은 통제사들의 숨은 기량과 노력의 결과들



준위 류호열  
(8196 부대)

1962년 출생했다.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공군에 지원하여 방공무기통제준사관 1기로 임관한 관제사다.

이 속출되는 장(場)이라고 할 수 있는데, 통제사라면 누구나 한번쯤 욕심이 생기는 것이기도 한 중요한 행사이다.

내가 방공준사관으로서 처음으로 이 대회와 인연을 갖게 된 것은 3년 전 이맘때라고 기억이 된다. 그 당시 작전가능 자격획득을 위해 초보관

공군 창군 40주년기념 연속기획 II  
“공군의 얼굴들”

제 훈련에 임하던 때였었는데, 처음 레이다 사이트에 올라와서 작전실에 근무분위기를 보고서 나의 마음은 위압되었다. 군데군데 라인소리며 조종사와의 교신소리, 전화벨, 타이프소리 등 바쁘게 움직이는 근무분위기가 한동안 나를 망연자실하게 만들었다.

‘과연 내가 통제사가 될 수 있는 것일까?’ 조용히 마음 속으로 자문해 보았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날 이후 나는 훈련에 경이감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콘솔에 앉을 때마다 전신이 떨리는 것을 억제할 수 없었고, 심지어 식은땀까지 흘러내릴 정도였다(당시, 앞으로 나의 근무장이 될 이곳 작전실에서의 첫인상이 나를 이런 지경으로 몰고 갔던 것이다). 심지어 교관통제사의 관제임무에 대한 강렬한 인상의 지도는 가일층 나의 마음을 흥분시켰다(지금도 콘솔에서의 교관통제사의 강렬한 목소리는 잊을 수가 없다).

그렇게 협심증에 가까울 정도의 흥분상태가 한 2주일 정도 지나니까 나의 심경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그것은 오로지 항공기 내의 계기와 자신의 정신만을 의지하고 공중임무를 수행하는 조종사에 대한 일종의 애착심같은 것이었다. 지상에서의 나와

공중에서의 조종사와의 관계를 아무리 비교해봐도 나는 그들에게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은 심정이 가일층 훈련의 열성과 그 심도를 더하게 하였다. 규정내용 한 조목 소홀히 할 수가 없고, 비행기 소리마저 지나칠 수 없었다. 이렇게 하는 것 만이 나의 그 당시 환경(근무분위기)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자각했다.

틈나는대로의 도상연구, 무선통화절차의 반복 숙지, 콘솔에서의 가상요격훈련 등 일정한 교육시간 외에는 나 자신의 노력의 시간을 배가시켰다.

그렇게 지속된 나의 조그마한 노력이 어느덧 훈련에 성과가 찾아오거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깃들기 시작하였다.

처녀 Mission이 있던 날(그날은 밤 8시경이었다) 떨리는 가슴반, 자신감 반으로 조종사와 직접 무선통화로 나의 관제임무를 교관통제사 Monitor하에 치루었다. 그 당시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에게는 무척이나 길었다. 임무 후 나의 임무지적사항에 대하여 무척이나 노한 표정으로 나무랬지만, 내가 작전 가능 획득 후 자대배속 받고 떠나던 날, ‘야, 너의 처음 임무는 사실인즉 무

척 놀라왔다. 나의 훈련통제사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였다.' 라고 떠나는 나를 붙잡고 서운해 하던 모습이 생생하다.

작전가능 자격 획득 후 내가 배속되었던 곳은 훈련통제사 시절 근무조 선임통제사로 계셨던 모 소령이 근무하시는 곳이었다. 그는 내가 이쪽으로 배속될 것을 벌써부터 알았는지 내가 오자마자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자기와 같이 근무할 수 있게끔 행정처리를 다해두었던 것이었다.

그 당시 팀 스피리트 훈련으로 바쁜 가운데에서도 나에게 업무지식과 훈련의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셨다. 말씀 뒤에는 항상 최고의 통제사가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을 꼭 하셨다.

그것이 인연이 되었는지 그해 가을 승공요격관제대회에 선배통제사들도 많은데 나를 중대사무실에 주선해 주셨던 것이다. 그때 나의 심정은 뿌듯한 자부심보다는 부담감으로 가득찼었다.

이러한 심정으로 며칠씩 규정공부와 관제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탓에 관제경험이 적은 나에게 우수통제사라는 수상의 영광을 안겨다 주었다. 월등한 성적은 아니었으나 부대체면은 유

지되었다는 주위의 평이 있었다(그 당시 나를 포함한 3명이 출전하였으나 나만이 입상했기 때문).

수상하러 가던 날 아침 근무상변하는 그에게 인사를 하였더니 웃으면서 '기왕이면 최우수통제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며 아쉬움 섞인 말을 하였다.

해가 바뀌고 나의 업무지식과 관제경험이 늘어남에 따라 중대사무실측에서는 나를 주간근무요원으로 활용하게 되었고, 그런 나에게 이따금 연구업무도 부여해 주는 비교적 신뢰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물론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관제대회가 있지만 내가 참가하리라고는 생각해 볼 수가 없었다. 왜냐 하면 한 번 출전해서 입상경험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때에도 물론 후보물망에는 올라 있었지만, 출전하게 되리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를 중대장 추천으로 또 한 번 참가하게 되는 영광을 안았다. 그러나 그때에는 동기생 2명도 후보에 있었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과 아울러 부담감도 있었지만, 이런 기회에 우리출신 기수에 대해 대외적으로 한 번 알려보고도

## 공군 창군 40주년기념 연속기획 II

### “공군의 얼굴들”

싶은 욕심까지도 생겼다.

출전을 한달 앞두고 훈련계획도 세우고 모의훈련장비를 활용하여 나름대로 가상요격훈련도 하였다. 또 틈나는 대로 학술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노력없이 맺어지는 일이 없다”라는 평소 나의 신념대로 작년 경험을 토대로 출전당일까지 나름대로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출전당일 대회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사이트에 올라와 작전가능훈련 당시 조종사와 통제사간의 관계를 비교해 보던 시절을 생각해 보았다. 그렇다 원활한 관제업무수행을 위해서는 내자신이 얼마만큼 그들(조종사)의 입장에서 공중상황을 파악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임을 재인식하였고,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 이러한 조종사에 대한 나의 애착을 한번 풀어 넣어보고 싶었다.

대회장에서 여장을 풀고 각 부대별 선발요원이 다 도착하자마자 당일 저녁에 학술시험을 치루게 되었는데 다 들어안이 병병해 하는 마음으로 그날 밤을 보내게 되었다. 다음날 개인별 요격일자 및 시간이 배정되고 일정에 맞게끔 요격평가가 진행되었다.

나는 2일째 배당되었다. 전날 미

리 임무계획도 세워두고 심적 준비를 해보았지만 웬지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모든 일을 부담감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일에 임해야 일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텐데 자꾸만 뒤숭숭해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렇게 밤을 지새우고 다음날 식사를 하는동안 하고 나의 임무에 임했다.

‘주간 전투기와 제공호’이것이 나에게 배당된 요격자원이었다. 처음부터 비교적 진행이 순조로왔으며 첫 편대가 요격성공할 때까지 무선통화질차도 양호하였다. 그러나 두번째 편대임무시 목표기 포착상실에 따른 약간 당황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것은 통화내용에서도 드러났으며, 자신 없는 요격기 기수방향변경 및 탐색시도시에도 나타났다. 그러나 목표기 예상진로방향으로 과감하게 선회시켰다. 다행히도 요격기 편대의 육안탐색으로 두번째 요격편대임무도 성공시켰다. 임무 후 강평에서 자신 없었던 두번째 편대공격과 목표기 지속추적능력 부분이 예상대로 언급되었다.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돌아와서 보니 대대장님께서도 나의 임무에 대해서 Monitor 하셨던지 비교적 좋았다는 평을 중대장님을 통하여 전해 들었다.

그러나 당시 현장상황을 보지 못하

셨기 때문에 현장상황 설명을 길게 드리지는 않고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만 드렸다. 그러나 뜻밖에도 뒤늦게 전해준 최우수통제사 선정의 소식은 얼마나 나에게 값진 자신과의 승부였는지 몰랐다. 선배, 동료통제사들에 고맙다는 인사를 주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원활하게 근무할 수 있는 것도 어쩌면 평소 신념의 뒷받침이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흔히, 어떤 대사(大事)를 치루는데 있어서 노력도 중요하지만 운(運)이 따라야 한다고들 한다. 그러나 그러한 운도 자신이 노력하여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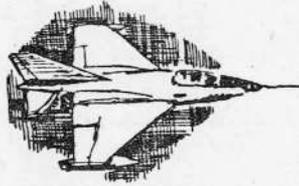
이러테면 자기에게 어떤 과제가 부여되었을 때, 그 과제가 자기능력에 부족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난관도 끊임없는 극복의 노력으로 점철될 때, 처음 포기할 때 보다 나은 결과가 초래되며, 그 나은 결과에 자기 신념을 더할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렇듯 작은 일에서부터 큰일까지 매사가 성실성으로 일관될 때 그 결과의 농도라는 것은 짙은 것이 분명하다.

나는 아직도 관제에 자신이 없는 실정이다. 어떨 때에는 두렵기까지 한 적도 있다. 끊임없는 연구의 자세와 성실로의 매진이 필요하며, 콘솔에 앉아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 하면 나는 공중근무자에게 내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행동과 직결되고, 안전비행에 영향이 끼쳐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최신예 전투기가 계속 속출될 것이고 그에 따라 항공요격전술이 개발됨에 따라 부단한 연구와 노력의 자세가 지속적으로 견지되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항상 관심있는 자세로 주어진 임무에 매진할 것을 다 시금 다짐해 본다.



타특기가 본다  
- 조종 -

## “Roger Leaving You, Good Day”

**구름**마저 흩어진 밤하늘은 어둡  
속에서도 푸름을 느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이륙해서 항공기를 안정시키기 전  
까지만 해도 “하필 오늘같은 날 야  
간비행을 떠야하다니”하는 푸념에 쌓  
였지만 Landing Gear가 올라가는  
“덜컹”하는 소리에 모든 잡념은 사  
라진다. “이제 또 시작해야지!”  
올림픽 개막식이라 해서 특별히 들뜰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내가 이렇게  
어둡속을 떠돌아다니며 지키고 있기에  
저들이 안심하고 행사를 치르는 것이  
라 자위해 본다.

‘심야초계’

밤 열시를 조금 넘고 있으니 course  
를 다 돌려면 새벽 두시 반은 되어  
야 잠자리에 들 수 있으리라. 별이  
쏟아지는 하늘을 보며, 그 쏟아진 별  
빛이 바다에 떨어진듯한 어선의 불빛



중위 강 훈  
(5672 부대)

1965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공군사관학교에서 항공공학을 전공했으며  
35기로 임관한 조종사다.

현재 C-54 조종장교로 근무하고 있다.

에 매료되고 간간이 이어지는 Radar  
Site 근무자들과 교신을 음악삼아  
오늘의 임무를 성황리에(?) 끝마쳐  
야 한다.

“개구리, 개구리 여기는 금자탑”

“.....”

“개구리가 겨울잠을 자나, 왜 안

관	제	사
---	---	---

나와?”  
 다시 한 번 불러본다.  
 “개구리, 개구리 여기는 금자탑”  
 “본국이 개구리, 금자탑 송신”  
 “본국 금자탑, 금일 본국은 귀국  
 과 ○○○○○ 훈련이 계획되어 있음.  
 본국 감명도 통보바람.”

“귀국 감명도 5/5. 본국 감명도  
 여하한지?”  
 “귀국 역시 5/5. 계속 수고하기  
 바람”

이제 한곳을 끝냈다. 다음 지점에  
 서는 유도까지 받아야 한다. 든든하  
 다. 이 까만 밤에 나홀로 떠도는  
 것이 아니라 나와 대화를 나눠 줄  
 여러 동료들이 순서대로 대기하고 있  
 다는 사실이 외롭지 않게 한다. 저  
 들 역시 잠도 못자고 피곤하다 여길  
 테지만 나와 나눈 대화 몇 마디로  
 자기의 임무에 대해 다시 한 번 인  
 식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근무에  
 임할 거라는 생각을 가져본다.

‘내가 이 어둠속에서 하늘에 떠  
 있음을 아무도 알리 없지만 발아래  
 밝히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내 스스로  
 날고 있음을 느낀다’ 뽕떡쥐베리가 이  
 렇게 느끼며 날았던 공간들은, 지금  
 우리가 날고 있는 공간과 다를 것이  
 없다. 더우기 항법장비가 부실했고

관제소가 적었던 관제로 많은 어려움  
 이 있었을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관제의 도움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좁은 공간에서 통신, Radar 장비들  
 과 씨름하며 항공기를 관제하는 그들  
 의 도움은 역할의 중요성이 당연히  
 되어지는 가운데 자칫 소홀히 여겨지  
 기 쉽다. 다시 관제를 받아 두번째  
 지점으로 접근 중이다. 교신을 실시  
 하고 유도를 받아 지시지점으로 비행  
 하면서 암흑속에서 지시지점을 찾느라  
 온 신경을 곤두세운다. 지상에서 유  
 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찾지 못  
 할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서로 다른 역할들이 모여져 하나의  
 임무를 좀더 완벽히 수행해야만 한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관  
 제사가 관제해 줄 때 조종사는 믿음을  
 가지고 이에 따라야 하며, 관제사  
 역시 조종사가 자신의 유도에 따라줄  
 것 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해 관제에 임하고 있는 것이다.

“수고 많았음. 계속 수고” 관제  
 사와의 접촉은 Radio 교신 밖에 없  
 기에 말 한 마디로써 큰 의미를 부  
 여하게 된다. 간혹 교신시 관제사의  
 음성이 불쾌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업무의 과다 및 피로도, 또는 기분  
 여하에 따라 짜증스럽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런 한마디는 전파를 통하여 듣는 이에게까지 불쾌감을 전해주게 된다. 듣기 싫은 목소리를 가진 가수의 노래처럼……. 그에 비하면 밝은 음성으로 성의껏 관제해주는 관제사에게는 내자신의 목소리마저 밝게 올라간다.

“Roger Leaving you. Good 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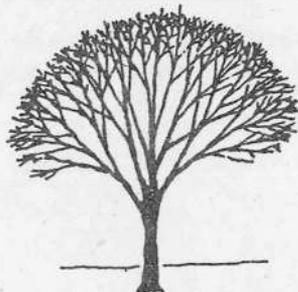
관제의 어려움에 대해 직접 겪기 전에는 피상적으로 밖에 느낄 수 없지만 입·출항 항공기가 계속적으로 교차하는 공항 부근에서 또는 새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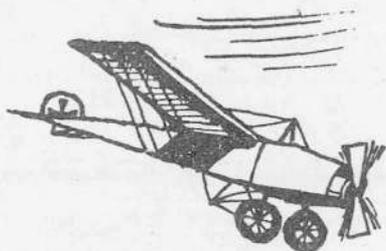
한 시를 넘고 있는 이 시간까지 Scope를 감시하고 있을 그들을 생각해보면 그 고충을 가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공중에서의 조종사와 지상에서의 관제사는 악보의 박자와 음률처럼 그렇게 어우러져 호흡이 맞아야만 우리의 영공이 조금도 얼룩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마지막 Site 하나 만이 남아있다. 잠을 쫓기 위해 커피중독(?)이 되어 있을지도 모를 미치의 ‘그’를 만나보고 싶다. 조금만 기다리쇼. 내 곧 가리다.

“첨성대. 첨성대 여기는 금자탑…”





타특기가 본다

- 조 종 -

## 침묵 속에 만난 그 소리

**멀리** 보이는 산마루에 색이 서서히 물들어 가는 시간.

어둠을 박차고 허공으로 날아본 조종사면 누구나가 느끼듯이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기분에 쌓일 것이다.

그때 침묵을 가르고 울리는 목소리가 반가운 것은 물론이다. 게다가 [Good Morning], [Good Day] 등의 부드러운 단어가 나오면 하루의 시작을 상쾌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쁨을 주는 주체가 바로 대한민국 영공의 수문장인 관제사들이었다.

관제사들은 높은 산 오지에서 근무하는 이들로부터 MCRC의 중앙집권된 Computer 단말기에서 근무하는 이까지 여러가지의 분야와 근무장소가 있으나 그들 모두가 간직하고 있는 마음가짐은 단하나 불철주야 조국의 하늘을 지키겠다는 애국정신이라 믿는



대위 송택환

(3726부대)

1961년 인천에서 태어났다.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군사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다. 33기로 임관했으며 현재 비행대대 분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다.

공군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조국 영공수호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관제특기가 느끼고 있는 자부심은 남다르리라 생각된다.

그들은 최초로 적의 공격을 탐지하여 이것을 식별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력을 적재적소에 투입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공방위의 수문장이라든가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조종사인 나 자신은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비행임무에 임하면서 뒤에서 “Closed Control” 하는 일선 관제사의 도움이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으며 그래서 항상 모든 관제분야에 있는 요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사실 나 자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조종사가 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때론 그렇게 친밀하여야 할 조종사와 관제사 사이에 경미한 마찰이 생기는 것은 서로가 임무성공에 대한 욕심에서 초래되는 군인정신의 발로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마찰이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될지 모르나 이것들 모두가 전통적인 조종사와 관제사의 친밀한 관계에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 동안에 나 자신이 관제사에게 도움을 받았던 에피소드 한 두 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내가 CRT 훈련을 마치고 검열을 받을 때 일이다.

요격 중에 어떤 관제사의 지시를 계속해서 받고 있었다. 그러다가 나는 Radar로 목표물을 Contact 하고 이것을 관제사에게 알리는 도중에 그 목표물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때 목표물의 방위와 거리를 가르쳐주며 선회까지 시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 접근하여 있던 타 항공기의 정보까지 지시하여 주어 나는 불합격될 뻔 하던 검열을 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중충돌의 위험까지 모면하는 두 가지의 빛을 쬐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다.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분대장 승급 훈련을 위하여 전방지역에서 근접항공 지원 임무 중 일어난 일이다. 그날 나는 목표물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었다. 그러니까 더욱 긴장되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다음 질차가 잘 생각나지 않고 당황하고 있는 사이에 항공기는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이때 나의 항공기를 Monitor 하고 있던 관제사가 즉시 선회하고 고도를 높일 것을 지시하는 순간 나는 나 자신이 방향 감각을 상실하였던 것을 직감하고 즉시 조치하여 정상적인 비행을 할 수 있었다.

만일 이때에 관제사가 나에게 시기 적절하게 조언하지 않았다면 생각만해

도 아찔한 느낌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위의 두 가지 경우는 어떤 조종사도 느낄 수 있는 보편적인 경우라고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항상 그렇게 원만한 임무수행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때론 엉뚱한 관제를 하여 잘 진행되는 임무에 찬물을 끼얹고 열심히 하는 조종사에게 김빠지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사전에 충분한 교육이 없는 학생관제사를 실전에 투입하고 주요임무에까지 훈련급 관제사를 배치하여 임무를 엉망으로 만들뿐 아니라 극소수이기는 하나 타성적인 태도로 구태의연하게 관제를 함으로 해서 신속정확을 요구하는 현대의 공군 작전에 지대한 손실을 주는 경우도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을 본 나는 천명에 가까운 관제특기 모두가 자신의 위치를 재인식하여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는 것 만이 유능하고 사명감에 가득찬 일등관제사 집단이 되는 첩경이라고 생각한다.

공군은 누구 하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의 각 요원들의 끊임없는 도전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히 이 중에서도 최일선의 관제사와 조종사 간에 보이지 않는 호흡이 야말로 성공적인 공군작전을 완수하여 영공수호에 커다란 일익을 담당하리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으며 이 밤도 한반도 전 영역의 영공수호를 위해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에 임하고 있는 관제사 동료들의 [Good Night]를 기원한다.





타특기가 본다

- 통신 -

## 그들에게 주는 박수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정세는 정치, 경제, 문화 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면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으며, 특히 항공분야의 발전은 모든 국가의 방위력을 측정케 할 정도로 큰 비중을 갖고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항공분야의 발전이 거듭될수록 이에 대처하는 각국의 조기경보능력은 항시 위협수위를 유지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능력은 우리처럼 수도권으로부터 불과 수십 KM 거리에 적의 공격력이 집중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요건인 것이다.

1904년 크리스찬 홀스 마이어가 3 KM 떨어진 배를 안개속에서 발견해 낼 수 있는 텔리모비로스코프를 개발한 이후로 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레이더는 고성능 항공기의 개발과 더



중위 최재만  
(8196부대)

1964년 전북김제에서 출생했다. 공군사관학교에서 영어를 전공했으며 35기로 임관했다. 현재 관제대대 통제반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불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지금 그것의 능력은 하늘에 떠있는 거의 모든 물체를 포착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

그러나 레이더에 포착된 자료가 스크린에 전시되고, 전시된 많은 항적 가운데서 아군기와 적군기를 식별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조치를 취

관	제	사
---	---	---

하는 것은 인간이기에 그만큼 많은 노력과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그들이 전술조치를 취하기까지는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며, 이러한 것은 확실한 정보만큼이나 중요성을 갖는 것이다.

첫째, 그들은 하루 24시간 동안 단 1초의 순간도 스코프에서 눈을 떼지 않고 우군기와 적군기를 가려내는 임무를 수행한다.

둘째, 스코프에 전시된 많은 항적 중에서 계획되어 있지 않은 항적이 포착되면, 그것이 어떤 임무를 띤 항공기 인가를 조회하여야 한다.

셋째, 조회한 항공기가 미확인 물체임이 밝혀지면, 즉시 상부에 보고하여 전술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네째, 초계비행 중, 또는 대기 중인 우군 항공기가 미확인 물체에 정확히 접근할 수 있도록 관제해야 하며,

다섯째, 우군기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작전 수행 후에도 RTB(Return to Base)할 때까지 관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다섯단계를 거쳐 한 번의 임무가 완수되는 것이며, 중간에 한치

라도 오차가 생기면 작전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것이다. 특히 항공기의 성능이 고도화되면서 조종사들의 육안에 의한 전투의 비중이 줄어들며, 치밀한 관제에 의한 전투의 비중이 크게 되어 최초부터 최후까지 관제사는 조종사의 눈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자신의 임무에 대한 책임감과 성취의욕이 항상 충만해 있으며,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는 그만큼의 자부심이 쌓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일이 계통에 의해 단계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선임통제사를 중심으로 상하간의 규율이 그 어느 분야보다 확고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작전실 내의 군기는 가히 모범적인 군의 질서를 보여주는 단면인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볼 수 있는 또 다른 일면은, 그들 서로가 서로의 근무에 대해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인간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이다.

모든 분야에서 근무하는 우리 군인들의 정신자세는 항상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이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항공기를 정비하는 정비사와, 차량을

다루는 기사나, 분야에 무관하게 자신의 비행기처럼 또한 자신의 차처럼 아끼고 있지만 불과 1년 남짓 가장 가까이에서 관제사를 지켜 본 나에게 몇백마디의 말보다도 - 단 1초의 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오직, 조국 영공감시에 임하는 - 관제사들의 모습 그 자체가 큰 교훈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들의 근무시간은 어제와 오늘이 틀리고, 또 오늘과 내일이 틀려 오늘 별을 보며 퇴근하고, 또 내일은 그 시간에 출근해야 하는 Crew 근무제라 신체적응에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따금씩 숙소에서 또는 내무반에서 늦은 시간에 출근하는 그들을 보면, 때로는 측은한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시 의욕에 넘치고 뿌듯한 자부심에 전투복과 군화손질을

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오히려 부끄럽고 나태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전술했듯이 항공기의 발전은 인간의 우주탐험에 발맞추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고, 급기야는 속도개념을 무력화시켜, 우리의 방어개념 또한 분, 초를 다투는 급박한 상황으로 변하게 되었지만 전후방 관계없이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근무하는 우리 국군이 있고 또한, 넓디 넓은 영공을 한 치의 빈틈도, 한 순간의 방심함도 없이 지키고 있는 관제사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편안한 잠자리에서 행복한 단잠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새벽 1시가 다 되어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영공수호를 위해 근무하고 있는 모든 관제사들에게 끊임없는 박수를 보낸다.



## 한국 VS 중국

### I. 문제 제기

최근에 들어, 정확히 지적하자면 작년 가을 대통령선거를 기점으로 하여 국내인들의 증공에 대한 관심이 바야흐로 고조되고 있다. 최근 중국의 경제사절단이 한국에 들어와 맥주플렌트 등의 상담을 벌이고 있는가 하면 한국과의 경제교류가 확대되기를 바라는 중국관리들의 말이 자꾸 외신을 타고 있고 그 외에도 신문, 방송에서는 중국대륙의 생활상 및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 및 중국대륙에 거주하는 韓人들의 실태를 보도하는데 열심이다.

마치 한편으로는 우리측의 서남해안개발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과거 10년간 꾸준히 경제개방을 꾀해왔던 中共이 이에 대응하여 동해안연안을 개방이라도 한 것처럼 얘기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올림픽개최 이후 양국이 국교정상화라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과잉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신 은 영  
(대만사범대학)

서울에서 태어났다. 이화여대 및 동대학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다. 현재 대만 사범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까지 과대하게 기대하기에는 중대한 제약요인이 있으니 이는 남-북한 관계이다. 즉,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관계모색이 점차 확대되어가다 보면 반드시 정치적인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실상 중국측의 입장이라는 것은 정식 외교관계 수립을 서두르기보다는

그 실질에 해당하는 직접수송방식의 간접교역과 나아가서 직접교역, 합작진출, 무역대표부 설치의 순으로 두 나라의 관계를 끌고가자는 것이다.

한-중관계는 현재 이중에서 겨우 직접수송방식에 의한 간접교역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상품수출까지는 '정-경분리의 원칙'에 입각하여 진행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합작투자단체가 심화되는 이후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가령 합작투자 이후에 무역분쟁이 발생하기라도 한다면 해결할 창구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측의 입장은 교차승인쪽으로 가까와지고 있는듯 한데, 이는 한편으로는 '한반도의 긴장완화'라는 점에 있어서 정부측의 노력의 결여(통일을 전제로 하였을 때) 또 한편으로는 교차승인, 유엔동시가입 등과 같은 「두 개의 한국」 공식을 북한측에서 절대로 받아들여 하지 않는다는 점과 이러한 점에 있어서 중국이 절대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그 동안 한-중관계의 발전과정과 앞으로 양국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대두될 수 밖에 없는 제약요인으로서 남-북한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한-중관계의 향방을

타진해 보겠다.

## II. 한-중관계의 발전과정

노 태우 대통령이 '서·남해안개발 계획'을 천명하고, '7. 7선언'에서 중국·소련 등과의 관계개선을 적극추진한다고 해서 한-중관계에 있어 실질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사실, 요즈음의 언론의 공산권과의 교류 또는 정치전망에 관한 대대적인 보도와 무관하게라도 1973년 6.23 선언 이후, 특히 1978년 중국이 제 5기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4개 현대화계획>의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발표한 이후, 한-중관계는 비정치적 영역, 특히 경제부문에서의 무역량이 지난 1979년에는 4천1백만달러였던 것이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87년에는 약 20억달러 규모에 이르렀다. 현재 기업들의 대공산권 교역을 위한 계획이나 연구 등은 80년대 초반 이후 점차 진행되고 있던 것의 연장으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한국과 중공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양 국가가 한국전쟁 후의 20여년간 지속된 적대관계에서 벗어나 서로 관심을 갖게 되는 배경과 현재까지의 직접·간접으로 전개되어 온 관계의 실태를 살펴 보

는 것이 필요하겠다.

우리나라는 정부출범 당시부터 반공을 국시로 하였던 데다가 6.25 동안 당시 중공군의 개입으로 중공과는 적대적 관계가 되었다. 우리정부가 반공일변도의 대공산권정책으로부터 탈피하는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초의 일이었다.

1973년 6월 23일 「평화통일 의 교정책에 관한 특별선언」으로 발표된 한국의 「6.23선언」은 그동안 산발적·제한적으로 추진되어왔던 공산권 국가들에 대한 문호개방을 전면적인 개방정책으로 귀결짓는 것이었고, 북한에 대하여는, '북한의 국제기구참여 불반대', '남북UN동시가입' 등의 '교차접촉' 또는 '교차승인'의 제안을 한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변화조짐의 배경에는 동·서 화해분위기 고조로 인한 냉전체제 또는 냉전논리의 쇠퇴라는 1970년대에 들어서 구체화되기 시작한 국제정치 역학구조의 변화가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중공간의 접근은 한국에게 한반도문제의 외교적인 수정을 요구함으로써 공산국가에 대한 외교관계에 필요로 하였던 것이다.

한편 중공은 한국이 「6.23선언」

을 발표한 이후 한국에 대한 강경노선을 다소 완화하여 한국과의 직접·간접적인 접촉을 확대시켜오다가 1978년 이후 「4개 현대화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대외개방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한국에 대한 경제적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중공은 「4개 현대화계획」추진을 위하여 중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에 접근하려는 의도로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가 및 일본 등과 협력을 도모하면서 한국의 경제발전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중공의 한국에 대한 이와 같은 경제적 관심과 한국의 중공자원과 중공시장에 대한 관심은 양국의 지리적 인접성 및 경제발전단계 등의 공동이익이 존재함에 따라 한국-중공발전의 중요한 배경요인이 되어왔고, 앞으로의 한국-중공관계에도 매우 중요한 공동 관심사가 될 것이다.

### III. 한-중관계의 발전요인

한국-중공관계는 상호협력을 통한 이익을 찾을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 기술측면에서 볼 때 서방의 선진기술 및 경영기술은 중공에 적용되기 어렵고 서방 및 일본의 자본집약적이고 자동화된 설비 등은 중

공의 발전단계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풍부한, 값싼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는 반자동화기술 및 설비 등을 중공은 필요로 하는데 이는 한국등지로부터의 도입이 용이한 것이다. 둘째, 기술이전측면에서도 중공은 서구와 일본의 정밀기술을 구매할 수 있으나 가격이 비싸고 특히 일본은 기술이전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이 부문에서도 한국은 서방세계나 일본이 제공하는 것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기술을 이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첫째, 한국의 총 수입액 중 에너지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87년 통계에 의하면 15% 가량으로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중공으로부터 에너지자원을 수입할 수만 있다면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하여 수송비용의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둘째, 중공 등 공산권과의 교역은 한국의 수출시장다변화 노력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수출입시장의 다변화는 특히 미국의 압력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이때에 미국과 일본에 편중되어 있는 한국의 경제관계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한국의 경제적 자주성을 높일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세째, 북방외교의 추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중공과의 관계발전은 소련 및 동구국가와 제3세계국가들과의 관계증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고도성장의 경험과 지식산업플랜트 제공능력, 풍부한 양질의 기술인력 자원탐사와 개발능력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자본의 투자능력도 갖고 있어 양국은 경제관계 증진을 통하여 상호공동이익을 나눌 수 있는 것이다.

#### IV. 한-중관계에 있어서의 제약요인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한국과 중공은 서로가 상호이익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중공 뿐 아니라 여타 공산권국가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북한과의 상당할 정도의 관계개선이 있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한국-중공관계가 제아무리 상호보완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요인을 극복하려는 우리측의 입장을 살펴 보자.

지난 7월 7일 발표된 노 태우 대통령의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은 중공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에 대해 우리의 개방적인 태도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주요내용이 각계인사 교류 및 해외동포 자유왕래, 이산가족 생사확인, 서신·상봉 주선, 남북교역개방과 내부거래간주, 우방의 비군사물자 교역 불반대, 대결외교 종식 및 남·북한대표 자유접촉 그리고 중국 소련 등과의 관계개선 적극추진 등 6개 항목이었음을 살펴볼 때 소위 7.7선언은 중국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에 대하여 남한의 개방적인 자세를 보여주었는지 모르지만, 남·북한 긴장완화를 위한 핵심적 주제인 군사적 대결체제 종식을 위한 노력이 빠진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15년 전의 6.23선언과 비교하여 본질적인 변화를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지난 10월 18일 노 태우 대통령은 유엔연설을 통하여 비무장지대에서의 「평화시」건설, 불가침선언이나 통일방안을 논의주체에 포함하는 남북정상회담 개최, 동북아 6개국 평화회의 개최 등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특히 동북아 6개국 평화회의(6자회담) 제안을 둘러싸고 남한정부가 종래의 「교차승인」을 그대로 제안한데 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물론 중국과 소련이 남한과의 접촉을 통하여 경제 기술협력을 확대하기 희망하는 한 궁극적으로 정치적인 대화와 협상이 따르게 마련이고 이같은 <교차접촉>의 심화는 결국 사실상의 <교차승인>과 같은 효력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북한과 군사동맹조약의 의무를 지고 정치·군사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 소련이 남·북한관계가 크게 개선되어 어떤 「합의」에 도달하지 않는 한 공식 외교관계의 수립형태가 될 「교차승인」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 도병위는 이러한 교차승인에 대하여 「중국은 강대국 간의 교차승인을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두 개의 조선을 만들어 조선의 분단을 고정화하고 영구화하여 조속한 통일을 실현하고자 하는 조선인민의 민족속원에 위배되기 때문이다」라고 밝혀 중국정부의 공식입장을 대변한 바

있다.

## V. 결 론

지금까지의 중국과의 관계가 주로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간접교역 혹은 간접교역을 가장한 직접교역으로 '정-경분리원칙' 하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조금만 더 발전해 나가려고 해도 정치문제가 걸리게 된다. 그러므로 <교차접촉>을 하다 자연스럽게, 평화적으로 <교차승인>을 하는 식으로 나가면 문제가 없어질 것 같아 보이지만,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정착하는 과정이 민족의 재통일을 가로막는 길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이런 식의 논리는 지양해야 한다.

대중국정책, 넓게 말해 대공산권정책과 우리의 통일문제는 떼어놓을 수 없는 문제이다. 최근 중국 뿐 아니라 소련도 과감한 체제개혁 및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중-소 관계도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다. 우리는 근래의 국제환경의 변화를 맞아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점을 제거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우리는 공산권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확대해 나감으로써 국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우리의 궁극적인 제약요인인 대북한관계에 있어, 여러가지 장애요인을 극복해 나가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자주적인 외교역량을 축적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 이념교육 ”

### 무엇이 문제인가?

이념교육은 그 교육의 특성상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또한 교육하기가 어렵다는 데에서 특히 다른 교육보다 교관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그런데 공군은 기술군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념교육을 담당해야 할 장교들은 대부분이 이공학을 전공하였다고 하는데 자질을 갖춘 능력있는 교관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다.

반면에 공군의 사병들은 타군보다 오히려 그 학력수준이 높다는데서 문제점이 추가되는 셈이 되며 사관후보생 장교들이 있으나 이들은 단기복무 장교인 관계로 군에 대한 애착이 적고 복무열의도 그만큼 적다.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한 지금까지의 이념교육이 주로 영내 사병을 대상으로 하였지 영외장교, 하사관에 대한 교육이 미흡했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제기하고 개선



중위 김성룡

196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 및 동대학원에서 국문학을 전공했다. 사후 81기로 임관했으며 현재 기술고등학교 교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 1. 서 언

'87,8년도에 이르러 사회적으로 이념교육의 필요성에 맞추어 본 교육사령부에서는 이념교육을 실시하였다. 매주 목요일 일과 후 일반 사병을 대

상으로 한 내무반 순회식 이념교육과 매주 토요일 정신교육시간을 통해 고정적으로 이념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이념교육이 운영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반기가 경과한 후에 사병 한 사람이 어느 만큼 이념교육의 내용을 알고 있는가를 테스트해보니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였다.

본고는 왜 반기의 이념교육의 결과가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하였는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다. 여기서는 대체로 교육의 장의 구분에 따라,

- ① 피교육자의 측면
- ② 교육자(교관)의 측면
- ③ 교재의 측면

으로 나누어 고찰해본다. 그러나 교육은 사회적 운동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념교육을 실행하게 된 사회적인 배경을 검토하면서 논의를 전개코자 한다.

## 2. 이념교육의 필요성

### 가. '70년대의 고도산업화

우리나라에 민중혁명이론이 유입된 것은 1960년대 말엽으로까지 소급된다. 삼성전자에서 미국 제니스 전자회사와 합작으로 텔레비전이 양산되면서 외국의 자본과 국내 토착자본이

영합하면서 거대기업으로 성장하는 형태의 경제정책이 이루어진 것이다. 말하자면 배관경제에 의한 경제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외국의 다국적기업의 자본이 국내로 유입된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경제발전은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자본이 증속되기 쉽다. 또한 차관경제는 수출주도형으로 국내의 산업을 재편성시킬 수 밖에 없기도 하다. 왜냐하면 국내의 토착자본 대비 차관자본이 상당부분을 점유하면 차관자본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가중되고 또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자원이 절대빈곤한 국가에서는 차관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전적으로 상업이익에 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경제가 상업거래—물론 대외적 상거래행위로서 무역—중심으로 전환하면서 많은 변화가 사회 문화면에서 드러난다. 전통 농업국이 서구화로 요약되는 근대화의 과정을 겪게 되면서 전통적 이데올로기와 산업화된 현실경제는 서로 맞아 떨어지지 않게 된다. 이것은 생산관계와 상부구조 제형태 사이의 불균등발전에 의한다.

주지하듯이 생산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두가지 범주를 낳는다. 생산력은 생산용구와 인간의 노동력이라는 두 개의 하위범주를 갖는데 이는 생산을 실현시키려는 힘으로 기능한다.

이 생산력에 상응하여 인간 사이의 제관계가 형성되는데 이 제관계가 생산관계로 규정된다. 생산관계의 제형태에 조응하여 각 특정시기는 특정한 형태의 종교·철학·문학·예술·이념 등을 산출시킨다. 그러나 종종 생산력은 각 시대마다 비약적으로 발전하지만 그에 따른 상부구조의 제형태는 지체되는 것이 일반적 상황인 것이다.

이와같은 상황은 우리나라의 70년대 고도발전시기에도 거의 일치한다. 전통농업국가로서 농업국가의 대체적 이데올로기 특성은 70년대의 고도발전시기에 이르러 그 기반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와 함께 가족구조의 재편성이 일어났으며 이른바 세대갈등으로까지 표현될 정도로 선명한 세가지 層位의 세대가 형성된다. 이 層位란 교육받은 시기별로 나뉘어 형성되는데 일제시대 제국주의적 교육과 6.25 이후 미국의 산업자본주의적 교육형태, 그리고 萌芽적인 형태이지만 한국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적 교육형태가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적 보수성의 변이종으로서 제국주의의 관료주의와 미국식 합리주의 모두가 자본주의체제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체제는 다분히 강압적 방식으로 채택되어진 감이 없지 않다. 이렇듯

체제 수용의 수동성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의 양상을 띠면서 체제논쟁이 벌어진다.

이 세가지 변화가 복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70년대의 상황이다. 따라서 이념논쟁의 뿌리는 단순히 미제국주의의 반대 사회주의로의 전진 등이 주장된다고 해서 '80년대 중반에 설정할 수 없다. 본고는 우선 이 각각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군이념교육은 어떤 방향에 포진해야 할 것인지 살펴 본다.

#### 나. 가족구조의 개편

농업은 다른 어느 산업형태보다도 계절성, 천기, 토양의 비옥도 등 자연적 조건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다. 이러한 자연적 조건은 인간의 인위적 행동에 의해서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인간의 수동성은 대타화되어 천리, 하느님 등으로 관념화된다. 이 점은 아시아적 생산양식이 갖는 보수성이 이데올로기의 측면으로 투영되어 나온 것이다.

보수적 이데올로기는 봉건적인 정치체제의 수직적 신분제로 그치지 않고 인간생활의 다양한 분야에까지 반작용을 가한다. 효·열·충 등 다분히

관념화된 봉건적 윤리관으로 추상화된다. 공동체적 생산양식을 갖춘 아시아적 농업형태는 협업에 의해서 그 효율성이 증대되므로 협동 농업을 통솔할 인물을 중심으로 결사형태가 조직된다. 이 결사형태는 대체로 농업이 갖는 자연의존성때문에 혈연과 지연에 의한 부족집단이 되므로 문층을 중심으로 연령에 의하여 수직적으로 조직된다. 호나 열 등은 이 가문중심의 봉건적 생산단위가 자기방어를 위한 내적 결속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현재까지도 충·효·열 등의 이념이 일부 논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 것은 전통시대의 생산양식이 파괴된 지금—1985 년대의 우리 나라의 산업구조는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총인구의 25%이다. 이는 '60 년대의 60%와 대비할 필요가 있다. — 까지도 전통적 이데올로기가 살아있음을 드러낸다. 여기서 전통적 이데올로기의 현대 산업사회에 어느 정도 적합성을 띠는 것인가는 추후의 문제인 것이겠지만 이와 같은 사정은 이데올로기의 보수성·후발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물론 전통적 이데올로기의 붕괴는 충효와 함께 전통 이데올로기의 한 가닥인 열관념의 붕괴만 보면 분명해

진다. 혼인은 보통 이성지함이라고 하는데 이는 가문과 가문이 결혼에 의해 묶여짐을 상징적으로 묘사한다 하겠다.

그러므로 여자에게는 가문의 조직원으로서 그 가문내에서 충성을 다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대는 자본주의 체제에 의한 산업사회인 것이고 이러한 시기에 생산의 최소단위는 개인이다. 생산의 최소단위가 개인으로 재편성되면서 적어도 명목상의 평등이 확보된다. 인간이 법앞에 평등하다든가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든가 하는 말은 이러한 사정을 잘 설명해 준다. 한 남자는 더 이상 한 가문의 대변자이거나 조직원이 아니며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양자는 서로를 결합하는 끈이 다분히 생리적 충동에 의한 것으로 이전의 전통 보수 이데올로기 보다 훨씬 허약하다. 이러한 사정은 서구 선진자본주의국가의 이혼율을 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현대의 여성지의 주제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직업여성과 가사노동의 전문성 등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다시 말해서 주부의 가사노동은 남자의 직장과 마찬가지로 전문성을 띤다. 이것은 명목상으로 남자와 여성

의 동등권을 인정한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남자의 노동과 가사노동이 분업화되면서 생산단위가 가족이나 가문이라는 집단성에서 개인성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이런 여건에서 전통 이데올로기의 한가닥인 열관념은 설 땅이 없어 진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열은 효나 충과 동일한 근거를 갖는다. 건도성남 곤도성녀라는 귀절 속에서 건-곤의 대립, 양자의 상하 등의 관념은 남녀 불평 등의 논리로 까지 비약되었다. 건과 곤은 만물생성의 근원으로 고도로 추상화되면서 농업생산의 원리정치조직의 원리 등 형이상으로 관념화된다. 이 관념에서 충과 효의 윤리 역시 연역된다. 그런데 이 논거 자체가 흔들려 버릴 경우 열 뿐만 아니라 효와 충의 이념 역시 흔들려 버릴 것은 자명하다.

봉건시대에는 통치자가 부로서 투영된다. 가족내에서 부권처럼 신민을 자식으로 삼는 통치자는 신민에 대하여 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군사부일체는 설득력을 가졌던 것이며 충과 효가 동일한 반열에 설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더 이상 통치자는 부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특히 한

국적 상황속에서는 대한제국의 종언 이후 일본 제국주의 통치기와 미 군정기는 국부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로 이승만, 박정희정권의 파행적 정치는 전통적인 통치개념이 현대에 와서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음을 잘 보여준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충효를 강조하는 것은 열을 강조하는 것 만큼이나 허약하고 설득력없는 주장이 되기 쉽게 되어버린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도 전통적 가족제도의 유형이 있음을 볼 때, 효라는 관념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효가 어린이의 의무(Kindespflicht) 라고 표기되는 독일어보다 구체성을 갖지 못하게 될 날도 머지않을 것이다.

#### 다. 체제부정이론의 등장

체제에 대한 부정은 세대갈등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봉건제하에서의 체제갈등이란 역사적 유물인 것으로 우리에게 어떤 역동성이나 역할인식을 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우리 시대가 자본주의체제하에 있으므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부정 여부는 곧 우리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체제가 도입된 것이 자생적

발전의 형태라기 보다는 독점 자본주의의 침략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그것의 역사 또한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체제에 대하여 엄정한 비판을 가해 본 적이 없었다는 특수성이 부가된다. 여기에 대하여 남북대립은 한쪽은 자본주의체제로, 다른 한쪽은 공산주의체제로 각기 재편성된 체제대립으로 고착되어 있다는 상황이 더해진다. 남북대립이 체제대립으로 고착된다는 것은 곧 남한측이나 북한측이나 어느 한쪽에 소속된 개인은 자기 체제에 대한 비판을 가할 여지가 없게 됨을 말한다. 왜냐하면 양 체제를 각기 지지하는 의미있는 집단은 체제 비판을 안보논리로 관련지어 해석하기 때문이다. 체제논리가 안보논리로 연결되면서 많은 반체제인사들이 이적행위 내지 부역자로 규정되었던것은 양측을 통틀어 마찬가지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반체제구호가 공공연하게 등장한 1986년 5.3 인천사태로 볼 수 있다. 1980년 광주사태 이후 반미 움직임은 대학가에서 공공연히 반제국주의로, 반제국주의는 제국주의가 자본주의의 변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반자본주의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반체제는 일부 지하세력에

만 해당되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것이 5.3 인천사태때 구호화되자 그 충격은 자못 컸던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70년대 재경 학생운동으로까지 그 연원이 깊다. 1970년대 유신 독재체제로 정치체제가 전환되면서 행정부, 특히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이 확대, 강화되면서 관주도의 경제체제로 경제계획방침도 수정되었다. 이른바 수정자본주의 경제의 일환으로서 국가주도의 계획경제가 실시된 것인데 그 주안점은 공업제품의 수출이라는 슬로건이 말해주듯이 국가비호하에 있는 대기업의 육성인 것이다. 기업을 중심으로 경제가 집중되자 국민총생산량의 절대비율을 대기업체에서 담당하게 된다. 1980년대 자료에 의하면 경제성장율의 90%를 10대 기업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국부를 소수의 대기업이 담당하면서 분배의 불균등이 문제가 된다. 이른바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한국경제의 만성적 질환으로 진단되기 시작한다. 절대적 빈곤은 상당부분이 치유되었지만 상대적 빈곤은 더욱 심화된다. 게다가 관주도의 경제체제는 그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경우 관련력으로 해소코자 한다. 1987년 6.29 노태우 선언 이전까지

노사분규사건 건수가 '87년, '88년 양이태 동안의 노사분규 건수보다 못미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노동조합운동을 그동안 관련력으로 철저히 봉쇄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0 년대의 학생운동은 주로 Neo - Marxism 계열의 신희머니즘운동의 양상을 띤다. 고도산업화에서 오는 소외감과 상대적 빈곤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 관주도의 경제정책으로 인한 임금협상의 철저한 봉쇄를 통한 저임금, 공업우선정책으로 인한 농촌의 황폐화 등등은 연평균 9.8%의 경제성장율이라는 측면과 명암이 대조되는 현상인 것이다. 그러므로 70 년대의 학생운동이 다분히 감상주의적인 색채를 띠고 농촌봉사활동, 야학운동, 노동조합 결성운동 등으로 실천되었던 것이다.

그에 따라 정치투쟁은 반정부투쟁으로 규정될 수 있다. 특히 유신체제는 이들 학생운동에 구심점을 던져준 것으로 유신체제를 독재체제로 규정하면서 학생운동 또한 대타화되어 학생운동의 방향은 반정부투쟁으로 형성되었다.

이와 같은 반정부투쟁내에서 방향을 체제전복으로 잡게 될 것을 예고하는 일련의 사태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민청학련사건이라든가 통혁당사건, 남민전사건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본격화된 것은 Marx-Lenin 주의, 즉 체제전복 이데올로기의 채택으로 이전의 신좌경사상-Neo-Marxism, New Left, Euro-Communism, 해방신학, 종속이론 등-에서 보인 무조직성, 감상주의를 일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 최초의 조직형태가 삼민투인 것으로 그 계보는 민민투·자민투 등 애학련 등등으로 이어진다. 이들의 주장에서 민중·민족·민주라는 개념들이 적출되는데 여기서 민족해방과 민중해방, 민주화 등등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나름대로의 결론에서 도출된다. 이들은 남한을 예속국가 독점자본주의 사회로 또는 식민지 사회로 규정짓는데 이러한 규정은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경제에 한 국경제가 종속되었으며 한국내에서도 경제의 중심부와 주변부로 나뉜다는 결론에 근거한다. 이러한 학생운동은 대체로 1984 년을 기점으로 하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M-L 당사건, 제헌의회사건 등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1987 년 민주화 선언으로 운동권의 비류로 변화한다. 체제부정을 저변에 두고 민주화를 목전의 타겟으로 삼았던 것이 6.29 선언으로 어느 정도 백지

화되자 이제는 목전의 목표로서 통일 논쟁으로 점화된 것이다. 통일논의가 1960년 4.19 직후 이루어졌으나 낭만적인 통일논의가 부정된 이후는 적절한 논의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조통특위, 서대협 등에서 이루어지는 통일논쟁은 한 세대를 격한 이후에 이루어진 통일논의라는 점에서 세대교체를 반영한 것이다. 현존 이들 운동권내에서는 민주화가 우선이나 통일이 우선이나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으므로 이들의 논의 대상인 통일이 다분히 전술적 차원에서 부각된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이에 대한 대학생의 반응은 좀더 충격적이다. 갤럽조사에 의하면(조선일보 '88.6.25) 전체 대학생중 20%에 해당되는 대학생이 체제와 관계없이 통일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단순한 체제부정이 문제가 아니다. 이 통일논의는 쌍방이 어느 체제로 되든 관계없다고 하는 데서 오는 현 체제에 대한 부정의식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감에 직면해서 정부측에서도 이념교육 강화를 서둘렀다. 특히 대한민국의 성인 남자라면 누구나 한번은 거치게 되어 있는 군이 집단교육의 필요성에서 선택되었다. 그러

므로 일반 고등학교나 대학에서는 기존의 교수계획을 변경할 수 없는 관례로 국민윤리교육의 이념교육 그중에서도 현 체제의 우월성에 관한 교육에만 그쳤던 데에 반해서 군에서도 새로 이념교육 교과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더해 소위 추수교육의 일환으로 기간장 사병 및 군무원에게까지 이념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어떤 정치적 행위나 문화적·교육적 행위는 어떤 제약조건이 조성됨으로써 아래로부터 이루어져야만 그 파행성을 면할 수 있다. 이념교육의 필요성처럼 일부의 국민과 이념교육 제창자 사이에 어그러짐이 발생하면 그 정책은 파행성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 3. 공군교육사령부 이념교육의 문제점

#### 가. 피교육자의 측면

현재 공군교육사령부에서는 다음 다섯 종류의 인적 자원을 배출하고 있다.

- (1) 사관후보생 교육과정
- (2) 준사관후보생 교육과정
- (3) 공군기술고등학교 교육과정

- (4) 하사관후보생 교육과정
- (5) 신병 교육과정

이중에서 이념 교육시간이 따로이 편성되지 않고 정규 학과시간인 국민윤리시간에 대신하는 기술고등학교-이는 이미 언급하였듯이 이 교육기구가 문교부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밖에 없으므로 별도의 교과과정을 신설할 수 없다는 사정에서 그렇다-를 제외한다. 이념교육시간을 독립된 하나의 시간으로 편성한 교육과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1) 사관후보생 교육과정 (표 - 1)
- (2) 준사관후보생 교육과정 (표 - 2)
- (3) 하사관후보생 교육과정 (표 - 3)
- (4) 신병 교육과정 (표 - 4)

< 표 - 1 > 사관후보생 교육과정

순번	교육내용	교육시간
1	공산주의의 발생과 전개	4
2	공산주의 경제이론 비판	4

순번	교육내용	교육시간
3	공산주의 철학이론 비판	4
4	공산주의 정치이론 비판	4
5	북한의 현실	2
6	소련 및 기타 동구권 현실	2
7	신좌경사상 비판	8
* 총 776 시간 중 정신교육 100 시간		

< 표 - 2 > 준사관후보생 교육과정

순번	교육내용	교육시간
1	Neo Marxism	2
2	신제국주의론	2
3	종속이론	2
4	해방신학	2
5	Euro-Communism	2
6	민중론	2
이상 신좌경사상 비판 - 12 시간		
* 총 216 시간 중 군사일반 76 시간		

〈표 - 3〉 하사관후보생 교육과정

순번	교육내용	교육시간
1	공산주의 이론비판	12
2	신좌경사상 비판	4
* 총 786 시간 중 정신교육 86 시간		

〈표 - 4〉 신병 교육과정

순번	교육내용	교육시간
1	공산주의 실상 비판	10
2	급진좌경 용공세력과 그 실체	18
3	북한의 현실과 대남 적화 정책	13
4	국가 민족의 수호와 통일	3
* 총 260 시간 중 이념교육 44 시간		

이렇게 보면 신좌경사상이든 또는 급진좌경용공사상이든 각칭에 관계없이 신좌경사상에 대한 비판 소개가 양적으로 좀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는 과정은 오히려 신병과정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하사관 과정은 신좌경사상에 대한 개요나마 소개할 수도 없을 정도로 짧은 4시간으로 책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과정은 물론 훈련기간 중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이수하는 것인 만큼 신좌경사상 전반에 대한 상세하고 치밀한 세부사항을 일러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군사훈련과목의 신좌경사상 강의는 피교육자로 하여금 신좌경사상이 무엇이며 그 중심개념은 무엇이고 또한 그 오류는 무엇인가에 대해 흥미를 갖게 하는 것이 기대된 교육효과인 것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책정된 교육시간만으로는 그나마 피교육자로 하여금 흥미유발 조차도 일으키지 못할 정도로 짧은 시간이다. 그래서 '87.'88 년도에 본 교육사령부에서는 기간 장사병을 대상으로 더 상세하고도 본격적인 이념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추가교육의 일환으로 매주 실행하여 왔다. 그 방법은 매주 목요일 일과 후에 18:00 부터 영내사병을 대상으로 이념교육 교관이 각 내무반을 순회하면서 내무반원들이 순번제로 월초에 주별로 주어진 제목을 가지고 주제발표를 실시하고 그것을 함께 종합하면서 이념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내용은 Neo - Marxism, 후속이론, 매관자본론, 해방신학, Euro-Communism, New Left 운동, 신제국주의론, 민중론의 8개 분야이다.

그러나 영내 장사병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었다는 점에 본 교육의 문제가 있다. 정작 군의 핵심인 장교나 하사관들은 영외 거주자인 관계로 18:00 경이면 모두 퇴근해 버림으로써 실제로 이 순회교육에 참가하기 어렵게 되어 있고 또 이 순회교육이 강제적 성격을 갖지 않으므로 더욱 영외 거주 장교·하사관들은 참여하지 않게 된다. 만약 이념교육 대상을 사병으로 국한시켰고 또 그 이유가 단순히 사병은 장교나 하사관보다 세태에 휩쓸리기 쉽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라면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주지하듯 현재 공군내 사병의 80% 정도는 대학에 몸담았거나 졸업한 자들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이들 사병은 어떤 면에서 단기 하사관보다 학력수준이 더 낮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또한 이들 사병들을 이념교육의 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동기가 장차 이들이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돌아갔을 때 바람직한 시민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현 체제의 우수성을 알리고 요즈음 급속히 확산되는 신좌경

용공사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때문에서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실행하였던 이념교육은 전면적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곧 그 개인에게 주어진 전반적 환경이 그 정도의 수준에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군교육이 자기가 듣고 보았던 일반적인 교육보다 열등하거나 부실하다는 인상을 받았을 때 그 개인이 군 교육내용에 어떤 방식으로든 거부하려 든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게다가 일과 후의 자유시간을 동료들의 부실한 주제발표와 교관들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빼앗긴다고 했을 때 사정은 더욱 악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념교육시간이 되면 강의시간 내내 잠을 자거나 아니면 딴청부리거나, 더욱 나쁜 것은 강의시간에 대한 거부감이 강의내용에 까지 확대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념교육은 피교육자의 참여없이 교관은 주어진 원고만 읽고 내려가고 피교육자는 강의내용이 아닌 다른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어 기대에 못미치는 교육효과가 생기고 더 나쁜 것은 오히려 반감마저 조장하게 된다.

#### 나. 이념교육 교관의 능력의 한계

현재 공군내에서 충원되는 교관을 출신별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 공군사관학교 출신
- R.O.T.C 출신
- 사관후보생 출신

그런데 공군의 군 특성이 기술군으로 암묵리에 규정되면서 공군은 인문·사회·과학 분야보다는 자연과학 내지 기술공학쪽에 치중되어왔던 것이 작금의 사정이다. 그러므로 공군사관학교 교육이 주로 이공학부에 치우쳐져 편성되어 있고 - 물론, 공군사관학교 내에도 경제학이나, 경영학, 어문학을 전공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 과 배정은 3학년에 와서야 가능하고 그나마 1년 정도를 배운 뒤로는 비행훈련을 해야 하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전문성은 결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R.O.T.C 장교 역시 항공대와 금오공대 두 군데에서만 충원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공군에서도 인문·사회분야를 전공한 요원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후방지원분야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바로 이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사관후보생 출신의 장교이다.

사관후보생 출신의 장교들은 인문·사회·자연·예체능에 이르기까지 전공분야가 다양하다. 이 중에서 정치학이나 경제학을 전공한 장교라면 바로 이념교육을 담당할 교관으로서의 적격이다. 앞서 언급했던 공군사관학교 출신이나 R.O.T.C 출신의 장교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때의 전문성이란 이념교육을 교수하는데 필요한 전문성, 즉 교육능력과 교육내용에 대한 숙지를 의미한다. 그러나 모든 사관후보생 장교들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다. 각 개인별로 사관후보생 출신 장교가 전공한 분야는 오히려 이념교육에 필요한 정치적·철학적·경제학적 지식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없지 않다. 본 교육사령부를 예를 들자면 이념교육 교관단 편성에서 얼마나 무리가 뒤따랐던가를 쉽게 알 수 있다.

주지하듯이 이념교육이 문제시되고 이것이 정책적 차원에서 실행하게 된 것은 1986년부터이다. 이에 따라 본 사령부에서도 이념교육을 전담할 교관단을 편성 운영하였다. 이때의 이념교육은 훈련받고 있는 사병, 하사관, 장교과정에서는 이미 실시되고 있었다. 정신교육의 일환으로 재편성되어 실시되었고 교육사령부내의 기간 장사병에

게는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운영하였다. 그러나 변칙운영이긴 하지만 정규 학과목에 편성된 이념교육은 그 과정을 맡은 해당 교관이 어떻게든 소화할 수 있었으나 기간 장사병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 이념교육은 특별한 전담교관이 없었다. 그래서 정훈처 주관으로 각 독립부대에서 하나씩 소위 대대이념교육 교관을 차출하여 이 특별이념교육 시행에 총당하였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념교육 교관을 당해 분야와 유관한 분야를 전공한 인물로 선정하려 하였으나 그것을 떠맡으려는 지원자는 전무하였고 또 각 부대는 부대업무를 내세워 비교적 업무가 적은 장교들을 추천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발된 당사자들은 자신의 전공이나 취미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교관으로 선발되었고 또 이념교육 업무란 기본업무에 부가되는 부가적인 업무라는 점에서 이 이념교육에 대하여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주관적 차질요인 외에 본 사령부의 특수성이 가해져서 '87 계획이 최우선 과제로 등장한 '88년 상반기부터는 이념교육이 상대적으로 부차적이고 2차적인 업무로 되어버렸다. 게다가

'86 년도에 선발하여 '87 년까지 업무에 임했던 장교들은 단기장교가 많았으므로 '88 년 상반기에는 거의가 전역준비를 이유로 기본업무 이외의 업무에는 등한시하게 되었던 것도 또한 하나의 차질요인이었다. 구체적으로 사관후보 79기가 '87년 7월말 전역인데 '87년 상반기 이념교육 교관으로 선발되면서 이념교육 업무에 등한시하게 된 사례가 다수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전역을 앞두었다고는 하지만 부과된 업무를 등한시한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성실성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당해 개인의 심정적 차원으로 그칠만한 성질의 것은 아니다. 개별적인 불성실함에서 그 원인을 찾기 보다는 오히려 이 불성실의 원인이 어디에 놓여있는가를 규명해야 한다. 게다가 이념교육 교관 요원을 사관후보생에서 찾는 것이 적격이라고 한다면 - 이미 언급했듯이 공군사관학교에서 경영이나 경제학을 전공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1년 남짓임을 상기하라 - 이 사관후보생이 갖는 특수성은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몇년간 사관후보생 출신 장교 중에서 장기복무를 신청한 장교는 전체의 1%를 밑돈다. 이러한 사실에

서 사관후보생 장교들은 일단은 단기복무 장교라고 규정짓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듯하다. 그런데 이 단기장교들은 군복무에 대하여 장기복무 장교들과는 본질상 전혀 다른 시각을 갖는다. 한마디로 장기복무 장교들에 있어서는 자기 인생의 전부인 군이 이들 단기복무 장교에게 있어서는 단지 인생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도 원하여서 선택하는 일정기간의 수련이 아니라 의무로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에 군에 입대하는 것이다. 다른 여러 과정보다 특히 장교과정을 선택하였다는 것은 좀 나쁘게 말하자면 일반사병으로 근무하는 것 보다는 자기 시간이 많고 남의 명령을 비교적 덜 받고 영외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단기장교들이야말로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아니다- 가 팽배한 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개인주의화되어가는 최근의 사회상태를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시각차이는 총화단결을 외치는 군의 지휘부의 입장에서 보면 견드리고 싶어하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다. 장기복무 장교나 단기복무 장교의 파쟁·붕당을 금지하며 또 겉으로는 이러한 파쟁과 분파가 전혀 없는 것처럼 말

한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실제로 이들 사이에 놓여있는 間隙이다. 장기복무 장교들은 군 역시 하나의 전문직으로 간주하며 자기 자신 역시 전문직업인으로서 상정한다. 그러므로 군을 군부와 동일시하며 제 3공화국과 제 5공화국에서 보았던 것처럼 군의 정치개입 현상을 혐오하는 단기복무 장교들의 사고방식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군 지휘부의 어려움이 놓여 있는 것이다. 단기복무 장교들이 분명 장기복무 장교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전문능력을 갖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 단기복무 장교들은 군을 전문직으로 간주하지도 않고 또 자기의 직업이라면 당연히 열성을 덜 기울였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들의 전문능력을 인정하지만 그들을 대상으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다. 이들에게도 군은 군역일 뿐 그 이상은 아니다. 이러한 지적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실제로 단기복무 장교들의 생각은 어떻게 하든 국방의무를 마치고 사회로 나가면 자기가 원했던 다른 것을 한번 해보겠다는 것, 그러다보니 군복무란 귀찮고 군생활은 다분히 인생을 소비하는 것

에 지나지 않는 듯하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맡은 기본업무만 충실히 하고 사회에서의 나의 미래를 위해 그저 무사안일하게 시간만 보내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부정적인 면을 나열한 것은 문제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가를 밝히기 위한 추상화 작업이다. 기본업무에만 충실하려고 하는 단기복무 장교들에게 이념교육이 부과되면 이것 또한 부가적인 업무이고 귀찮은 것이 된다. 일과 후에 진행되는 이념교육은 - 실제로 본 교육사령부에서 이념교육 장교는 '87년의 경우 주1회 일과 후 최소 2시간 이상, '88년에는 월 2회 일과 후 역시 같은 시간만큼 이념교육을 실시했었다. 일개인의 자유시간을 빼앗는 또 다른 일이 된다. 이 귀찮다는 의식에 앞서 언급했듯이 해당분야에 대한 자신의 무지, 단기자리는 무사안일함 등이 상승작용을 일으킴으로써 이념교육의 효과는 반감된다. 이념교육 시간은 적당히 주어진 교재, 그것도 상당히 추상적으로 서술되어 어렵기 그지 없는 이념교육 교재를 읽는 것으로 대신한다. 갈수록 이념교육 시간은 부담스러운 시간이 되어 버린다. 그리하여 결국 이념교육을 반기에 걸쳐 실시하고도

어떤 분야의 내용에 대하여는 피교육자가 잘 모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 다. 이념교육 교재의 부실함

현재 공군교육사령부 정훈처에 보급되어 있는 정훈교재 중에서 이념교육과 관련이 있는 것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은 목록을 얻을 수 있다.

- (1) 공산주의를 바로 알고 이기자(한국 반공연맹, 1982. 12)
  - (2) 민주교본(한국 비교정치 연구회, 1986. 7)
  - (3) 신좌경사상의 이해와 비판(공군본부 정훈감실, 1987. 6)
  - (4) 사상전에서 이겨야 산다(국방부 정훈국, 1987. 11)
  - (5) 민중민주주의 혁명론의 정체(국토통일원 통일연수원, 1988. 1)
- 이외에도 팜플렛 형식으로 발행된 강의노트, 그때그때마다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문제에 대해 정훈국에서 대응 전략으로 발간한 유인물류, 그리고 군내에 비치해두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판단에 의해 수집하였음이 분명한 몇 가지 저서들 - 예를 들면 신상초의 「계급투쟁과 인텔리겐차(북한연구소, '87. 3), 강인덕의 공산주의와 통일전선(극동문제연구소, 1980) - 이 있다.

그런데 이들 저서는 현재의 공산주의 이념발달 정도나 그 보급정도에 비추어 볼 때 시대적 의의를 상실했음은 물론이고 그 양이 너무도 미미하다.

물론 이들 좌경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서적의 양이 몹시 적다는 것은 본 교육사령부 만의 문제는 아니다. 현 시대를 풍미하고 있는 학문적 조류는 개인과 사회, 존재의 인식문제를 거시적 안목에서 통일성 - 또는 루카치 등에 의해서 언급되는 총체성 - 을 찾으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출판되는 舉皆의 책이 직접, 간접으로 Marxism 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게다가 최근의 자본주의는 국가간 경쟁시대를 넘어서 다국적 기업이 등장하면서 조직속에 소외된 개인의 문제를 야기시킴으로써 후기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의 모순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이러한 현실은 그대로 반영되어 자본주의체제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그것의 부정성, 모순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월등히 많다.

그런 만큼 본 교육사령부에서 소장하고 있는 교재의 양이 적은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

작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교재의 질적 수준이다. 그러면 이 교재의 질적 수준이 과연 어떤 것이기에 문제가 생기는가?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에 앞서 우선 이 교재는 이념교육 교관이 참고하여 피교육자에게 강의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을 밝혀둔다.

이데올로기는 개인에게 생산양식처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1차적 원인인 것은 아니다. 이데올로기가 행동을 유발시키려면 개인의 사상이나 감정에 먼저 영향을 주어야 한다. 그 후에야 비로소 어떤 행동양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데올로기의 교육은 상당한 기간 동안을 지속적으로 행해져야만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자본주의체제로서 현재의 이데올로기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 편의상 이는 직접적인 교육과 간접적인 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직접적 교육이란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자본주의체제의 우월성을 강론하는 것이다. 경쟁에 의한 개인적 생산력의 제고, 자유방임주의, 개별성 존중 등등, 이러한 직접교육은 자칫

강의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지리하고 또 피교육자로 하여금 무의식적으로 강의내용의 위선적 측면을 건드리게 하는 등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으나 개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소정의 교육내용을 전달한다는 면에서 효과적이다. 이에 반해서 직접적인 이데올로기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간접적인 헤게모니에 의한 교육이다. 이는 마치 칭찬이 직접적 강제인 것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의 장점을 T.V 나 라디오, 신문 기타 활자매체 및 영상매체를 통해서 주입시킨다. 열심히 일하는 남녀, 자기의 능력을 일에 바치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다 등등 보통의 부르즈와 개인을 일상생활로부터 분리시켜(추상하여) 가설된 상황하에 둔다. 이것을 보는 관중은 이들 남녀의 영화속의 삶이 추상된 삶, 임의로 설정된 교묘한 상황속에 들어가 있음을 잠시 잊는다. 그리고 영화속의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부르즈와 사회속 삶의 구체적 연관들을 잠시 잊는다. 부르즈와적 가정에 대하여, 신의 사랑과 인간애로 충만한 가정만을 그려 본다. 농촌에 자리한 전원생활의 아름다움에 대한 환상으로 충만되는 것이다. 현실은 경쟁이며 농촌은 꿈

기가 맑다는 것 외에는 너무도 후덥지근하고 힘든 노역이 산적해 있음을 잠시 잊는다. 간단하게 말해서 T.V 속의 전원일기를 보며 느끼는 시청자들의 반응은 모두가 이런 투의 것인 것이다.

간접적 교육에 의해서 우리는 모두가 자본주의의 내의 삶에 대해서 추상적으로나마 환상을 갖는다. 어차피 체제에 대한 선전은 그 체제가 갖는 가장 긍정적 측면을 환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유의 간접적인 교육은 자본주의체제가 발달시킨 고도의 생산력-기술에 편승하여 매우 효과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 그에 비해 직접적 교육은 매우 열등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주의체제의 우월성에 관한 교육은 '80년대 중반기에 와서야 시작되었다. 그 이전에는 북측의 일탈된 형태의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만으로도 남한측의 자본주의체제는 정당시되었다. 북한측을 일차적 타도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남한측에서 파행적으로 자본주의체제를 운영하는 것을 토착될 민주주의라고 설명할 수 있었다. 그래서 체제 대립은 어느새 민주주의로 몰래 바뀌어졌다. 북한은 공산주의요 남한은 민

주주의리는 식으로 경제체제의 범주를 정치체제의 범주에 대립시켰던 것이다. 그것만으로 이념교육 사상교육이 끝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 이념이나 사상에 대한 직접적 교육을 실시하기엔 지난 공화국들의 정치는 너무도 그 지지 기반이 허약하였다. 그것이 본격적으로 표현된 것이 '80 년대의 반체제 논리였다. 다시 논의를 전환하면 공군이라는 특수성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념교육을 실시한다. 이념교육의 교수방법과 시간 장소에 관한 문제는 차치하고 공군내에서 직접적 교육에 사용되는 교재를 살펴보면 이것은,

① 공산주의 이론 일반에 대한 비판 : 소련, 중공, 북한공산주의의 실상을 폭로하면서 공산주의 체제부정의 동기를 마련한다.

② 민주주의 이론 소개 : 이는 자본주의체제를 긍정하기 위한 경제학적 이론을 정치학적 범주로 전치시킨 것이다.

이상 ①, ②의 내용은 '86년 이전에 이루어진 교육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80년 초 제5공화국의 등장과 함께 군산복합형태의 체제에 대한 재야 및 학생들의 반발은 체제논쟁으로 비화되

어 자본주의체제 일반에 대한 거부로 확대되었다. 여기에 편승하여 지하에서 유인물의 형태로 나돌던 Marx-Lenin의 혁명이론이 일반에게 보급됨으로써 한국형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파행성을 비판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러자 군 내에서 이에 대응하여 새로운 형태의 이념교육을 실시하게 된바 그것이 바로 신좌경사상 비판의 형태로 수행되었다.

이것은 '80년대의 상황에서는 반체제 이데올로기의 이론적 근거가 여덟가지 범주로 나뉘어지는 신좌경사상에 두고 있다는 정훈국-구체적으로 한국 사회의 상층 부르주아지 일반이라고 말하기 보다는 이 글이 공군 내의 이념교육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측면에서 군교육의 담당기구로서 정훈국을 설정한 것이다.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한다.

여덟가지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 (1) Neo Marxism
- (2) 종속이론
- (3) 매판자본론
- (4) 해방신학
- (5) Euro-Communism
- (6) New Left
- (7) 신제국주의론
- (8) 민중론

이 여덟 범주는 몇 가지 큰 범주로 묶여짐으로써 재분류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모두 후기자본주의 비판에 초점을 두고 어떻게 그 체제를 전복할 것이냐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들은 다음과 같이 재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1) 후기자본주의 비판

- ① 신 Humanism 논
- ② 후기자본주의의 유통분석 (시장분석)

(2) 혁명론

- ① 공산주의 연합전술론
- ② 혁명세력의 변화

그렇다면 전술한 여덟개의 범주란 상당히 자의적으로 일관성없이 선별된 것임을 곧 알 수 있다. 게다가 이들은 모두 후기산업주의를 겨냥한 일관성있는 체제를 형성하므로 여덟가지 분야로 나누어 별개의 사항인 듯이 서술하는 데에는 심각한 장애가 따른다.

그런데 이들 서적의 내용들이 갖는 무체계성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 서적이 원본이 불분명한 저본을 대상으로 한 표절품이라는 데 있다. '87년 발간된 공군본부의 「신좌경사상의 이해와 비판과 역시 동년 발간된 국방부의 「사상전에서 이겨야 산다」는

장.절의 분류에는 차이가 있으나 그 내용은 전혀 동일하다. 이는 곧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때그때마다의 이슈에 대해서 충분한 분석과정을 거치지 않는 채 줄속으로 대처한 데서 연유한다. 이들 도서의 내용은 매우 부실하게 구성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신좌경사상 전반을 논할 수 없으므로 Neo Marxism 하나 만으로 논의를 국한시키기로 한다.

우리가 현재 접할 수 있는 Neo Marxism 계열의 책은 비교적 많다. 번역된 것 만도 우선 Neo-Marxism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초기 Marx의 저작들이 최근 대거 번역되었고 Horkheimer, Adorno, Maberma, Marcuse Fromm, Neo Marxist의 저작은 '70년대 말부터 꾸준히 소개되었던 터라 어느 분야보다도 많은 저작들이 소개되어 있다. 이것을 나열해보면,

개론서로,

- (1) M. Jay, 변증법적 상상력
- (2) 신일철, 프랑크푸르트 학파 등이 있고,

Marx의 원본으로서

- (1) 경제학 철학 본고
- (2) 철학의 빈곤

(3)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테  
제

Engels의 저서로,

포이에르바하와 독일 고전철학의  
종말

등이 번역되어 나돌고 있다.

그리고 Neo Marxist들의 저서는  
좀더 다양해서

Horkheimer, 철학의 사회적  
기능

Adorno, 미학이론

Marcuse, 이성과 혁명

---, 일차원적 인간

---, 반혁명과 반역

---, 해방론

Habermas, 후기자본주의 정당  
성 연구

Fromm, 자유로부터의 도피

---, 존재와 소유

---, 사랑의 기술

등이 있다. 이렇듯 개요서내지 소개  
서에 비하면 Neo Marxism에 대한  
비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Neo Marxism에 대한 비  
판을 시도한 것은 20페이지가 채 안 되  
는 「신좌경사상의 이해와 비판」이다.  
일정한 양에 도달하지 못한 것에 어  
떤 질적 우수성을 기대하는 것이 무  
리가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본서

가 갖는 가장 큰 결함. 이들 Neo  
Marxism의 중심개념만 소개했지 그  
것이 근거한 이론적 기반에 대한 穿  
鑿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Horkheimer와 Adorno는  
자신들의 방법을 비판적 방법이라고 규정하  
고 그것은 변증법의 기능을 부정에 한정  
시킨 데에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즉,  
이전의 변증법론자들, Hegel이나 Marx  
는 정-반-합으로 이루어지는 변증법  
의 과정에서 합의 단계를 두고 있으  
나 이는 또 다른 체제 안주논리로  
발전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합은  
합으로서 존재하는 순간 타기되어야  
할 대상이 되며 그리하여 끊임없이  
정재와 부정이 반복될 뿐이라는 것이  
다. 이것이 Neo Marxism의 극좌  
이론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책자의 어디에도 이상의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국방  
부에서 발간한 책에도 마찬가지이다.  
더우기 이 양자는 Neo Marxism의  
이론적대부인 Horkheimer조차 Neo  
Marxist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보자 위의 두책은 모두  
지식인-학생이 주체가 된 혁명론을  
비판한다. 그러나 무엇을 비판하는지  
논지가 흐려진다. 결국 아무 것도

비판하지 못하고 있다. 이 지식인 - 중심의 혁명이론은 Habermas의 지식인총화론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진다. 그러나 어디에도 Habermas는 소개되지 않고 있다. 비판의 내용에 대한 반박이 가해지지 않고 왜 자본주의체제만이 나쁘냐고 반문한다. 이것은 반논이 아니다. 비판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비판자에 대한 야유에 지나지 않는다. 이 교재를 그대로 이념교육에 사용할 경우 교육자에게는 부정확한 내용을, 피교육자에게는 혼란만을 가중시킬 뿐이다. 이 책의 저자는 반드시 Neo Marxism의 낭만성, 소위, 지식인 그룹의 부정형성에 대해 비판했어야 했다. 그러나 어디에도 그러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Neo Marxism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채 급조된 교재임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서 본 교재는 교관용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미흡하고 피교육자에게는 너무 간략하여 아무 것도 모르게 하는 어정쩡한 대상층을 겨냥하고 있다. 책은 독자가 읽는 것이 저자가 자신의 이론을 요약하는데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 4. 결 론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87.'88년도에 시행된 이념교육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여 말할 것은 그동안 이루어진 이념교육이 대북한관계로 인해 주로 북한의 생활모습을 그려 보임으로써 이념교육을 대신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방법이 갖는 문제점은 첫째로, 북한 공산집단 하나만으로는 공산권 국가 전체의 경제적 낙후성을 설명치 못한다는 데에 있다. 동독, 헝가리 등 동구권 공산국의 1인당 G.N.P는 추정금액이 우리나라 1인당 G.N.P보다 월등히 많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체제 일반에 대한 부정을 들고 나옴으로써 벌어지는 현재의 좌경세력의 이론에는 무력할 수 밖에 없다.

둘째로, 북한 공산집단에 대한 일방적 비판, 즉 상대의 타자성을 강조하면서 자기의 인식에 이르는 과정, 즉 자대타화되어가는 과정속에서 과연 남한측의 상황은 어떻게 인식되었던가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자본주의체제에 속하면서 특수성을 갖는 자본주의국가이다. 어느 경제체제나 지금까지의 경제체제는 해결할 수 없는

모순을 내포한다. 자본주의체제의 예외는 아니다.

다만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나갈 수 있느냐는 것이 우리 세대에게 맡겨진 몫인 것이다. 한국의 상황에서는 자본주의 일반이 갖는 일반적 모순과 한국적 자본주의의 특수성이 갖는 특수한 모순을 갖는다. 문제는 이 모순을 적시하지 않고 호도하려는 데에 있다. 지금까지의 이념교육도 여기에 예외는 아니어서 북한의 실상을 비판하는데 그쳤을 뿐 그 비판의 화살이 언제든지 거꾸로 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잊고 있던 것이다. 그래서 북한에게 가해졌던 비판의 화살이 젊은 세대에 의해 우리측에게로 향해졌을 때 기성세대들은 이 비판에 무기력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대립된 적을 비판하기만 했지 자기의 장점과 모순이 무엇인가를 자각하지 못했다는 후회감과 하필이면 자기의 다음 세대, 어쩌면 분신이라고 해야 할 자식들에게서 비판이 이루어졌다는 배신감이 교차했으리라. 그러나 문제는 문제로서 등장하는 순간 그 해결

의 방안도 함께 가지고 태어난다. 자본주의의 모순, 한국의 특수한 자본주의의 모순은 자본주의가 갖는 긍정적 측면이 강조되면서 해결방안도 강구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이념교육이 주로 공산이론비판으로 소극적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다면 앞으로의 이념교육은 적극적으로 자본주의체제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그것이 앞으로 상당기간은 존속할 것으로 판단되는 우리의 체제, 자본주의체제가 자기의 모순을 스스로 수정하면서 개량되는 길이다.

- 하늘을 나는 비둘기는 속력을 낼수록 공기의 저항이 거추장스러워진다. 공기의 저항이 없으면 더 빨리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비둘기의 날개를 떠 오르게 한 것이야말로 바로 그 거추장스러운 공기이며 나아가 날고 있는 자신의 생존근거가 그 공기임을 잊고 있다. -

- I. Kant -

## 남북한 주민 생활비교

### 머 리 말

한반도에서 南과 北이 이념과 체제를 달리한 채 분단된 뒤 줄곧 공허한 이념과 체제 우월성 논쟁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분단 41년이 지나고, 올 해 11월로 불세비키 혁명 71주년을 맞는 오늘, 이제는 공허한 이념과 체제 논쟁에서 벗어나, 그 동안 두 체제가 성취해 온 업적(Performance)을 기반으로 비교분석을 시도함으로써 두 체제의 우월성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물론 이념, 정치체제, 경제정책 및 운용방식, 사회제도 그리고 문화양식이 서로 다른 두 체제를 단순하고 단일한 指標(Indicator)를 통해 비교·분석한다는 것은 대단한 무리이다. 南北韓의 비교·분석에 있어서 실제로 많은 기술적인 문제(Technical Problem)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료



중위 최 병 희

(8785부대)

1961년 전북 김제에서 태어났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경희대 평화복지 대학원을 졸업했다. 사후 84기로 임관한 정훈장교다.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신빙성도 커다란 제약점으로 대두된다.

이러한 제약점을 염두에 두면서, 극히 잠정적이고 편린적이거나, 여기서는 南北韓의 주민생활 비교를 다음 세 가지 지표를 통해 시도해 보았다.

첫째, 사회 총생산 규모  
둘째, 소득과 소비 수준

세제,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필수품의 공급.

## 본 문

### 1. 사회 총생산의 비교

사회 총생산을 측정하는 GNP 등 지표가 어느 자료를 인용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나지만, 한 보기를 들면, 1985년 현재, 南韓은 800억\$로서北韓의 190억\$에 비해 4.3배, 일인당 국민소득(Per Capita GNP)은 南韓이 1998 \$로서北韓의 960 \$에 비해 2.1배가 된다.

南北韓은 모두 분단 이후 경제개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높은 성장률을 과시했다.北韓은 제 1차 7개년계획 기간(1961~'70, 3년 연장 포함) 동안에 7.7%, 6개년계획 기간(1971~'76) 동안에 8.2% 그리고, 제 2차 7개년계획 기간(1978~'84) 동안에 연평균 4.3%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에 역시, 연평균 10% 이상의 공업성장을 달성하였다.

南韓도, 1차 5개년계획 기간('62~'66) 동안에 7.8%, 제 2차 5개년 계획 기간(1967~'71) 동안에 9.6% 제 3차 5개년계획 기간(1972~'76) 동안에 9.7%, 제 4차 5개년계획 기

간(1977~'81) 동안에 5.8% 그리고 제 5차 5개년계획 기간(1982~'86) 동안에 7.5%의 경제성장을 보였고, 동 기간에 역시 연평균 10% 이상의 공업 성장률을 이룩하였다. 그 결과 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南北韓간 GNP 차이는 3배 이상을 넘지 아니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北韓은 경제침체로 인해 그 성장률이 저조해져 두 체제 간의 GNP 격차는 증가하게 되었다.

표 1. 남북한 GNP 및 Per Capita GNP 변화추세

연도	'60	'65	'70	'75	'80	'81	'82	'83	'84
GNP (남/북)	2.87	2.48	3.80	2.97	3.70	3.86	4.08	4.45	5.52
Per Capita GNP(남 /북)	1.20	1.03	1.30	1.27	1.67	1.76	1.87	2.06	2.62

자료 : USCIA National Foreign Assessment Center, Handbook of Economic Statistics 1984.  
연하청, 북한의 경제 정책과 운용, 1986. p. 23에서 재인용.

세부적으로, 산업간의 생산능력 차이를 보면, 철강생산에서 南韓은北韓의 3.2배, 화학비료 생산에서 1.7배, 전력생산에서 2.3배로 앞서고 있으나,

석탄생산에서는 北韓이 南韓에 비해 1.6배 높다.

北韓은 분단 이후 지금까지 국가건설과 군사력 증강을 위해 중공업과 방위산업에 국가의 자원을 대거 투입하였으며, 그에 따라, 상당한 발전을 거두었으나, 80년대에 이르러서는 산업의 성장한계(Bottle-neck) 현상에 직면하여 경제의 지속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 北韓은 제 2차 7개년계획 기간(1978~'84)에 소기의 목표달성에 크게 부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3년간의 조정기간을 거쳐 '87년에 제 3차 7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하였는 바, 그 목표는 이전에 비해 크게 하향조정된 것이다.

北韓은 한편, 장기적인 국내산업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1984년 대외경제협력의 일환으로 합영법(Joint Venture Law)을 채택하였다. 이는 서구와 일본으로부터 자본과 기술도입을 목표로 한 것으로서, 이를 위해, 그 동안 비공산권과의 무역을 꾸준히 증가시켜 왔던 것이다. 실제 1971년 대공산권과의 무역량 85%에서 '80년 54%로 줄인 반면, 자유진영과의 무역량은 같은 기간 동안에 15%에서 46%로 급격히 증가시켜 왔다.

그러나 이같은 시도는 아직 미흡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으며,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경제정책의 커다란 전환이 없이는 뚜렷한 결실이 나타나리라고는 기대되지 않는다. 1960~1984년까지의 南北韓 무역규모 차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남북한 무역량 비교 추이 (1960 ~ 1984)

연 도	1960	1970	1975	1980	1984
무역규모 (남/북)	1.1	4.1	6.7	11.9	24.3
수출규모 (남/북)	0.2	2.8	6.6	10.7	24.6
수입규모 (남/북)	1.9	5.2	6.8	13.0	24.1

자료 : Economic Planning Board South Korea, Major Statistics of Economy, every year ; 1975년까지는 The Rand Corporation과 USCIA 자료이용 ; '80년과 '84년 수치는 IMF와 UN의 Direction of Trade Statistical Year-book 참고. 그리고 일본 무역 진흥회, 북조선의 경제와 무역전망, '86. 5 참고. 연하청의 북한의 경제정책과 운용, 1986, p. 34에서 재인용.

이같은 무역규모의 차이는 南北韓의 GNP 격차를 높이는 주요 요인이 되

고 있다. 1985년 현재, 南韓의 GNP 대비 무역의 비율은 73.8%인데 반해 北韓의 GNP 대비 무역의 비율은 겨우 18.56%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내산업이 침체해 있는 北韓의 경우, 대외 경제협력이 불가피한 반면, 자동차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최근 크게 성장하고 있는 南韓의 경우, 수출증대가 크게 기대되어, 南北韓간 GNP 규모차는 더 크게 벌어지리라 예상된다. KDI의 “2000년을 향한 국가장기발전구상(1985, p.207)”에 따르면 南北韓간의 GNP와 무역의 규모차이는 다음과 같다.

표 3. 남북한간 GNP(1985~2000)

연도	1985	1990	1995	2000	
GNP (60억\$)	南韓	81.5	112.2	166.5	247.5
	北韓	16.7	20.8	26.4	34.3
비율	南/北	4.88	5.39	6.31	7.22

자료 : 국토통일원, 남북한 주요지표별 변화추세, 1984, KDI

농업생산 부문에 있어서, 南北韓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곡물생산에 있어서, 南韓은 '84년 현재, 665만톤을, 北韓은 같은 해 560만톤을 각각 생산했다. 그리고 같은 해 南韓은 쌀을 568만톤, 北韓은 221만

표 4. 남북한 무역(1985~2000)

1984년 기준

		1985	1990	1995	2000
수출 (억\$)	南韓	280	422	632	925
	北韓	21	30	42	60
수입 (억\$)	南韓	285	409	603	892
	北韓	24	33	46	66

자료 : 국토통일원, 상계서, KDI

톤을 생산했다. 생산 총량면에서 南韓이 北韓에 비해 앞서 있으나, 인구 규모비 2.1배를 고려한다면, 일인당 곡물생산량은 북한이 앞서고, 쌀 생산에 있어서는 서로 비슷하다. 이렇게 볼 때, 1984년 현재 南韓의 식량 자급률이 49%(쌀 자급률 97.8%) 이나, 北韓의 식량 자급률이 87.9% ~ 96.6%(쌀 자급률, 110.2%~121.2%)인 것은 주목된다.

농업은 南韓에 못지 않게 北韓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83년 현재, GNP 대비 농업의 비율이 北韓의 경우, 24%이나, 南韓의 경우, 15.8%이며, 상품수출 가운데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北韓의 경우 31% 이나, 南韓에서는 3%로 아주 낮다. 그 만큼, 농업은 北韓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쌀을

수출 주종목으로 삼고, 다른 곡물을 대신 수입함으로써 외화획득을 추구하는 구상무역(救償貿易)을 실시하고 있다.

다른 한편, 경공업분야에서의 南北韓간의 차이는 매우 크다. 그것은 北韓이 그 동안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에 국력을 집중하고, 소비재 중심의 경공업 제품의 생산을 도외시해 온 데 크게 기인한다. 반면, 南韓에서는 분단 초기부터 경공업 중심의 수출상품 육성에 크게 투자하여, 경공업 산업이 크게 앞서 있다.

품목별로 보면, 南韓은 자동차 생산에서 北韓의 24배, TV 수상기 생산에서 46배, 전화가입자 수에서 22배로 남한이 北韓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이러한 소비재 공급부족은 北韓주민들의 물품 구독난을 심화시키고 가격양등을 초래하여, 결국, 열악한 생활수준을 가져오게 한다. 南北韓 주민의 생활수준 차이는 소비생활 측면에서 더욱 실감있게 나타난다.

## 2. 소득·소비면에서의 비교

소득과 소비면에서 南北韓 비교는 南北韓 주민의 실질 생활수준과 직결되므로, 주민생활을 비교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北韓은 '84년 이후 주민

의 생활수준 향상에 관심을 높여, 최근 그 수준이 제고되는 추세다. 실제, 北韓은 예산 가운데, 인민의 복지에 관련되는 사회·문화비에 20% 정도를 투여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교육사업비와 보건사업비 등이 전년에 비해 107~108% 향상되고, 노동자의 실질소득은 1.6배, 농민의 실질소득은 1.4배로 제고되었던 것이다.

南韓의 경우도, 정부예산 가운데, 국민의 복지와 관련되는 부문에 20% 정도를 할당하고 있으며, 6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에는 연 3%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다.

임금노동자의 임금수준을 보면, 행정·관리직종에서는 南北韓간의 임금차가(미화, \$ 기준) 3.8배, 사무직종에서는 7.1배, 판매직종에서는 5.1배, 그리고 생산직종에서는 3.6배로 南韓의 임금노동자가 많은 액수를 받는다. 南北韓에서 고급관리는 모두 임금상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北韓의 경우 사무직종의 임금수준이 낮고, 상대적으로 생산직종의 임금수준이 높은 것은 사회주의라는 것을 감안하여, 타직종에 비해 생산노동자의 임금을 높게 책정하기 때문이다. 반면 南韓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학력 위주의 사무직 노동자가 저학력 중심의 생산 노

동자보다 높게 보수를 받는데, 이것은 노동의 가치기준이 이데올로기보다 업무의 기능과 업적에 따른 평가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가처분 소득(Disposable Income)면에서 볼 때, 南北韓간 그 차이는 크게 나타난다. 南韓의 경우 국민의 가처분 소득률은 GNP의 70% 이상으로서 국민소비성향 75%(민간소비율 65% 정도) 정도와 유사하다. 그러나 北韓의 경우, 국민의 가처분 소득률은 GNP의 30%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것은 北韓정부가 예산으로서 GNP의 75% 정도를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가운데 10% 정도만 이 전소득(Transferable Income)으로서 국민에게 전환하기 때문이다. 실제, 北韓의 국민소비성향은 63% 정도로서, 정부가 GNP의 30% 정도를 국민의 소비부분에 투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것은 南韓의 경우 국민 개인이 평균적으로 개인소득(Personal Income)의 70% 정도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반면, 北韓의 경우, 일반 주민은 32% 정도만 처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 만큼 北韓의 주민은 개인의 선택과 소비에서 제한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임금소득에 기반을 두고, 南

北韓 주민의 가구별 소득분포를 보면, 北韓이 南韓보다 전전하게 나타난다. 南韓의 경우, 10분위별 소득분포에서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1982년 현재, 0.3574이고, 하층 40%의 주민이 차지하는 소득액은 전체의 18.8%이고, 반면에 상층 20%의 주민이 차지하는 소득액은 전체의 42.99%로서 그 갭이 큰 편이다.

그러나, 北韓의 경우 5분위 소득에서 지니계수는 1983년 현재, 0.2106이고, 하층 40%의 주민이 차지하는 소득액은 전체의 33.4%이고, 반면에, 상층 20%의 주민이 차지하는 소득액은 전체의 29.2%로서 소득분포는 아주 양호하다. 이처럼 南北韓간의 소득분포에서 소득집중도가 크게 차이는 것은, 北韓의 경우, 사유재산이 허용되지 않아 소수에 의한 자본축적이 불가능하지만, 南韓의 경우는 소수의 대재벌이나 개인이 자산을 이용해 자본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南韓에서 고용주(Employer)의 경우 지니계수는 0.4446으로서 타계층보다 높다.

그렇지만, 南北韓의 경우 소득분포비교에서 南韓의 소득 집중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국제적인 수준에서 볼 때, 그것은 양호한 편이다. 서구

의 선진국가의 경우 지니계수는 0.3500~0.3700 정도이며, 세계에서 가장 소득집중이 심한 브라질의 지니계수는 0.6200이다(세계 42개국의 지니계수를 조사하고, 생활수준을 측정 한 박한식 교수의 "Human Rights and Modernization: A Dialectical Relationship?"에 따르면, 한국은 지니계수에 있어서 세계 3위로 양호한 편이다. 그리고 생활수준은 동독의 14위, 유고슬라비아의 20위보다 약간 뒤진 22위다.)

소득분포의 균형이 곧 절대적인 차원에서 소득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北韓에서는 실제, 85% 이상의 주민이 평균 가처분 소득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반면, 南韓에서는 76%의 주민이 평균 가처분 소득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 요컨대, 北韓의 경우, 평등하다 해도 그것은 가난 속의 평등(Equality in absolute poverty)이며, 반면, 南韓의 경우는 상대적 의미에서의 불평등(Relative inequality in abundance)이라고 할 수 있겠다.

### 3. 공급면에서의 비교

北韓의 경우 전반적인 주민생활의

궁핍은 주로 산업의 생산능력 저조로 인한 공급부족에 있다. 北韓에서 의 식주에 관한 일상소비품은 그 물량이 크게 부족해서 일반 주민은 비싼 값을 주고 구입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사무원 계층의 경우, 가구 월 소득은 140 원 수준인데, 신사복 한 벌 구입하는데(108 원) 3개월 이상 저축해야 하고, 냉장고는 4개월, TV는 9개월 그리고 라디오는 2개월 이상 저축해야 한다. 특히, 고급 소비재일수록 그 물량이 적어서 값은 엄청나게 비싸며, 이런 제품은 주로 암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자전거는 1,000 원 일제 세이코 시계는 1,500 원 선글라스는 100 원 그리고 소형 녹음기는 1,000~1,500 원 정도다.

고급 소비재는 차치하고라도, 우선 식량이 모자라서 봉급의 대부분을 식량구입에 할애한다고 최근 일본을 거쳐 월남한 김 만철씨는 말한다. 실제, 김 만철씨의 경우, 월 가계소득은 160 원인데, 그 가운데 150 원 정도가 식량구입에 쓰인다(쌀 6kg이 암시장에서 120 원, 정부공급품(쌀, 기본의류 및 부식 등)의 구입가격이 30 원 정도). 정부가 공급하는 물품, 예를 들면 쌀, 잡곡, 작업복, 내의 및 부식 등은 기본 생활필수품으로서 아주 싼

가격으로 주민에게 공급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 공급량이 부족하고, 고급품목일 경우는 더욱 부족해서, 암시장에서는 본래 가격의 20~30 배를 주고 구입하는 수 밖에 없다. 실제, 정부의 공급쌀 가격은 kg당 62전이나, 암시장에서는 20원이다.

북한의 경우는 식량 뿐만 아니라, 주택, 의류 등이 기본적으로 정부에 의해 공급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은 약간의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가 폭넓고, 심도있게 발달된 것같은 느낌을 준다. 그러나 실상은 이와 다르다. 실제로 북한사회의 엄격한 신분제적 계급성때문에 일반 주민은 고급관리에 비해 매우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 즉, 신분(당이나 정부의 기관에서 차지하는 지위)은 사람의 권력, 명예, 임금 사회적 서비스 및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 부부장급(차관급) 이상은 고급주택과 기본의류 및 고급의류를 무료로 무한히 공급받는다.

그리고 4급 이상의 계층(지방의 부기관장급: 부도인민위원장 또는 중앙공급대상으로 분류되어,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기본생활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어서, 자신의 가계소득으로는 기

타 고급소비재를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하의 주민은 일반공급대상으로서(국민의 약 85%) 정부가 싼 값으로 제공하는 주택, 기본의류 및 식량 등의 비용을 지불하고(가계소득의 25% 정도), 기타의 소득으로 다른 생활필수품을 구입해야 한다. 따라서, 대다수의 하층 주민은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택문제는 남한도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다. 남한의 주택보급률은 1984년 현재, 전국적으로 70% 정도, 도시에서는 58% 정도다. 북한의 주택보급률은 같은 해, 전국적으로 65% 정도이며, 도시에서는 더욱 저조한 실정이다. 남한의 경우, 전국적으로 가구당 사용 방 수는 2.1 개이고, 도시에서는 방 1개 사용하는 가구의 비율만도 42%가 된다. 한편 북한의 경우, 전국적으로 68.5%의 가구가 방 1~2개로 생활하며, 1방당 인구수는 3.1명으로 남한의 2.2명에 비해 높은 편이다. 주택문제의 심각성은 질적인 면에서 양 체제가 당면한 커다란 문제의 하나다. 그러나 최근 남·북한 모두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의 경우는 1990년대에 아파트 비율이 전체 주택 가운데 60% 정도를 차지할 것으

로 기대되며, 현재는 아파트가 주택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의복의 공급물량도 북한의 경우에는 아직 문제가 되고 있다. 남한의 경우는 일찍부터 섬의류 수출산업이 발달하여 의류의 양적인 공급문제는 해결되었고, 이제는 고급의류를 찾는 질적인 문제가 주민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여전히 양적인 공급문제가 존재한다. 실제로 북한 주민은 가계지출 가운데, 의복 구입비로 23.2%를 할당하고 있어 남한의 8.1%에 비해 훨씬 높다. 세계적으로 선진국가들의 경우 국민의 의복 지출률은 가계지출의 10%를 넘지 않는다. 양성철, 박한식 교수의 '북한 기행'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기본 가계비를 지출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저축하여 1년에 옷 한 벌 정도 구입하고, 그래도 남은 돈이 있으면, 의식을 하거나 추첨제 저축을 한다고 한다.

이처럼 북한에서는 의류의 구입조차 힘든 상태에 놓여있다. 김일성은 1984년 11차 당대회에서 연설을 통해, 그리고 작년 제3차 7개년계획의 발표를 통해, 북한 주민생활의 향상을, 특히 그 가운데 의복수준을 향상시키는 일

이 당과 국가가 당면한 해결해야 할 가장 커다란 문제의 하나라고 시인하고 그 문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 맺 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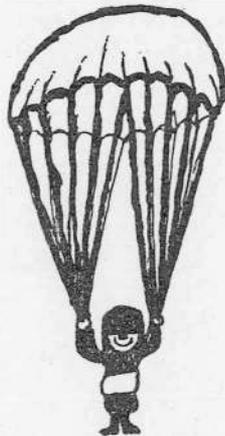
이상에서 보듯이, 남북한의 주민생활에 있어서 거의 모든 면에서 남한이 상대적으로 훨씬 앞서있다. 특히, 일반주민의 소비생활면에서 북한주민은 개인의 자유를 많이 제한받고 있어서 욕구충족이 매우 미흡한 상태다.

북한은 소득분포의 안정이 남한에 비해 높게 나타나 있으나, 절대적 수준에서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고, 또 계급적 차별대우로 인해 하층 주민의 삶은 크게 낮은 상태다. 특히 북한 사회는 정치적 참여와 경제적 활동, 사회조직 및 문화·예술활동이 모두 규제받고, 제한받고 있어서, 개인이 느끼는 삶의 가치와 질은 크게 떨어진다. 물론, 남한의 경우도 정치적으로 참여가 제한받는 제한적 다원주의(Limited Pluralism)나 권위주의 정치체제이지만, 기타 경제, 사회, 문화 및 예술활동은 북한의 전체주의 사회에서 보다는 훨씬 제한받지 않고 있다.

요컨대, 평등이 인간사회에서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 인간의 다른 많은 가치, 특히 인간 삶에 있

어서 가장 소중한 자유를 희생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북한 사회는 바로 자유의 부재라는 너무 큰 Cost 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밀튼 프리드

만이 얘기했듯이 자유, 즉 선택의 자유(Free to Choose)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인간 삶의 가치와 의미를 잃은 삭막한 것이기 때문이다.



## 부품신뢰도 향상방안

이 글은 Defense Electronics에 게재된 내용으로 미공군 군수사령부의 실무자들이 실제 야전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비지원 및 장비의 효율성 제고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비를 설계 제작하는 엔지니어와 실제 문제발생시 작업을 담당하는 작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다. 우리 공군 실무자들의 일독을 권하며 백계근 중령이 번역 기고해준 글이다.

“LOGISTICS COMMAND ISSUES RELIABILITY CHALLENGE”

“군수사령부 : 부품신뢰도 향상 방안검토”

— 편집자 주 —

군용 장비의 빈발하는 정비불량 문제로 인하여 숙련정비사가 요구되고



중령 백계근

1952년 전북 곡성에서 태어났다. 공사 22기로 입관했고 서울공대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다. 자동화체제 프로그래밍교육을 이수하고 자동화체제 창정비를 담당했다. 현재 전산정비 공장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각종 정밀장비의 수리비가 급상승함에 따라 공군 당국과 납품업체 관계는 점점 더 불편해지고 있다.

위와 같은 정비불량의 문제가 부품신뢰도에 기인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력 증강의 주 고려요소가 전투력 향상과 생존성 증대라는 개념에 입각해서 미공군은 2000년대를 목표

로 신뢰도 (Reliability) 는 2 배로 증진하고, 정비시간 (Maintainability) 은 반으로 단축하는 R & M 2000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간략해 보면 R & M 2000 계획은 군용장비의 신뢰성, 정비용이성에 관해 성능못지 않은 중요성을 방위산업계에 인식시키는 시행계획이다. 군용 장비의 정비와 수리를 담당하는 군수사령부 (AFLC : Air Force Logistics Command) 가 이 R & M 2000 계획의 주무부서이다.

군수사는 신뢰도 증진을 위하여 군수산업분야 관련회사들이 호응할 수 있는 수준의 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R & M 2000 계획의 목표를 추구하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서 군수사 산하 OHIOAFB 의 물자조정국 부품신뢰도 및 정비가능성 조정담당관 Jack Reynolds 대령은 “우리는 지금 국가적으로 산업부문의 우선순위가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령관께서는 산업분야 중 특히 전자공학분야에 대해서는 우리의 신뢰도 증진에 관한 노력을 홍보, 동참토록 하여야 한다.” 라는 관심제고를 전하고 있다.

부품 신뢰도 증진에 관하여 제기되고 있는 최근의 강조사항들은 여러가

지 측면에서 검토된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한 예로서 물자획득 및 재생을 담당하는 Edmund J. Wescott 씨 자료에 의하면 1987년도 총 공군예산 1040억\$ 중 군수사 단독으로 498억\$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예산의 대부분을 장기적인 군수지원, 예비부품 확보, 창정비, System 과 장비의 Overhaul 등에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액수는 새로운 무기체계 획득을 담당하는 체제사령부의 동기간 중 사용예산 360억\$에 비하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Reynold 대령은 “한 해에 기존의 무기체계를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미국 부채액수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다. 공군의 기존 무기체계 유지비용이 새로운 무기체계 획득을 위하여 사용하는 예산을 상회한다는 사실은 왜 사용되는 부품의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하는가를 단적으로 설명해 준다.

군 당국은 야간 저고도 항법과 적외선을 이용한 목표 추적장치 개발과정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관계업체에 추궁을 하였다.

왜냐 하면 개발과정상의 Engineering 결함으로 이 장비는 저조한 성

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1985년 3, 4월에 시행된 시범비행에서 예상했던 진동제한치 내에서 바늘이 부러졌고 결과적으로 높은 고장률을 보여 주었다. 이에따라 군 사업담당자는 각 중간단계별 요구성능을 점점, 불만족시는 다음 단계의 공정을 진행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계획을 수정하였다. 그후 1985. 9월 재시험비행에서 성능기준에 합격한 후 이 사업은 다음 단계로 진척될 수 있었다.

향후, 공군당국은 사업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신뢰도 측정에 관하여 기준을 수립,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Reynold 대령은 “앞으로 많은 경우 계약서에 실질적이고 명확한 방침이 포함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군수사령부에서는 R & M 2000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였으며, 이들은 구체적으로 방위산업체들이 Design과 제작단계에서부터 신뢰도를 고려하도록 유도된 제도로서 Environmental Stress Screening (ESS)과 Blue Two Visit (BTV) 계획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Environmental Stress Screening (ESS)

공군 당국이 가장 곤혹스럽게 생각하는 신뢰도에 관한 문제점은 특히

전자계통 부분품의 결함이다.

이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기 위하여 군수사령부는 결함의 원인을 교정하기 위한 ESS 계획을 수립하였다.

ESS 계획은 야전 적용시 생길 수 있는 결함의 조기발견과 잠복해 있는 결함의 발견을 위하여 가속된 환경조건을 부과하여 시험하는 것으로 한다. 부과되는 Stress는 임의의 진동을 가하는 방법과, 주기적으로 온도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사용된다.

ESS는 새로 구입되는 전자장비는 물론, 수리가 요구되는 장비에서도 결함을 극소화시켜주고 있다. 미공군당국은 1987년부터 5대 공군 주요정책의 하나로 공군 장비획득 과정에는 반드시 ESS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1987년부터, 장비제작자는 결함부품 수를 100만개당 1000개 이내 줄여야 하고, 1989년에는 100개 이내로 줄여야 한다. “앞으로는 초기에 책정된 부품가격을 액면 그대로 구입하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다. 미달된 품질과 신뢰도 저하는 가격과 연계될 것이다.”라고 물자조정국 Westcott씨는 강조하고 있다.

ESS의 초기 시험적용은 캘리포니아 McClellan, 텍사스 Kelly, 유타주

Hill, 오클라호마 Tinker, 그리고 조지아주의 Warner-Robins 기지 등 5개의 군수지원 센터에서 진행 중에 있다.

텍사스주 샌. 안토니오에 있는 Kelly AFB에서는 F-16에 장착된 전자 제어엔진 F-100 (Electronic Engine Control : EEC)의 결함을 찾아내는데 이용되는 Stress Screening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와 관련 Reynold 대령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Stress Screening 방법이 야전에서 사용 중, 고장난 엔진의 결함발견에는 크게 기여하지는 못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하튼 정비를 하여야 했으므로 이 방법을 더 개선시켜서 모든 과정에 적용시켰다. 마침내 정비사들은 문제점을 분류해 내고, 그것을 정비할 수 있게 되었다. 요즈음에는 공군의 Thunder Birds 정비사들은 샌. 안토니오 기지의 Screened EEC 검사를 거치지 않은 비행기는 아예 기동시키지를 않게 되었다.”라고 최근의 동태를 전한다. 덧붙여 미군수사 ESS 계획 관리자인 Thomas Burns 중령은 Kelly 기지의 ESS 과정을 F-15 항공기의 EEC 결함 정비에도 적용시키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ESS 프로그

램을 적용하기 전에는 “정비작업 중 어느 누구도 실제 정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꼬집지를 못했습니다.”라고 털어놓았다.

그는 또 다음과 같은 4가지 단계가 실제적인 Stress Screening의 내용이라고 소개한다.

첫째는, 실험실에서 온도와 진동의 내성 적응시험을 수행, 자료를 수집한 후.

둘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결함분석을 통하여.

셋째, 결함수정에 책임이 있는 부서의 사람들에게 상기 과정에서 획득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네째, 결과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시정하는 것이라고 알려준다.

한편 유타주 Hill AFB에서는 F-16 항공기에 장착된 중앙통제컴퓨터 (CADC : Central Air Data Computer)의 정비과정에 ESS를 적용시키고 있다. CADC System은 Pitot-Static System과 공격각도의 전기신호 변환장치, 온도감지기 등으로부터 측정된 자료들을 입수한다. 이 자료 중에 오차가 있으면 CADC 자체 내 계산에 의해 스스로 교정해 가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교정된 입력치들은 비행계기, 항법, 무장통제계통

및 다른 부수계통의 작동을 위하여 정확한 자료로서 사용되어 진다.

Hill AFB의 대변인 Jay Joersz 씨는 “CADC 체계 점검에 적용하는 ESS는 우리 기지에서 갖고 있는 큰 관심을 반영, 좋은 결과가 기대되며, 처음에는 제한된 25대 정도의 CADC를 정비, 그 결과를 관찰할 것입니다.”라고 소개한다.

그러나 수리품에 대한 Stress Screening은 단지 신뢰도에 관한 것만을 측정하게 된다. 왜냐하면 Hill AFB에서 사용된 부품과 장비들은 직접 계약서에서 구매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Joersz 씨는 “현재 진행 중인 중요한 계획 중의 하나는 물자의 획득과정에서 ESS 조건을 만족하는 물자를 선별해서 획득하는 방법을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관련요원들이 물자구매시 물자를 선별하는 실질적인 내용들을 알지 못하여 정확하게 결함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만종의 부품들에 대해서는 다 할 수 없더라도 중요한 품목들에 관해서는 필수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추진방향을 설명한다.

이 계획의 핵심은 계약업체들이 모든 환경조건에 적응할 수 있는 부품

제작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ESS 개념을 정립, 설계단계에서 부터 관심을 갖도록 군 당국이 유도를 해 나가는 것이다. 현재 ESS에 참여하고 있는 관련자들은 경제적, 기술적인 면에 의거 부품을 선별하는 기준을 작성하고 있다. 모든 설계단계의 문제는 제작단계와 조립하는 과정에서 해결할 수 있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결함과 근로자들의 성실성 등은 생산과정의 관심으로 해결 가능하다.

여하튼 군수사령부는 실제 야전에서 발생하는 결함은 반드시 방지하겠다는 것이 주목표다.

#### 군과 업계의 상호 협력이 요구된다.

“Reynold 대령은 말하기를 “설계 기술자는 신뢰도 및 정비 용이성 문제에 관한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다수의 경우 설계자들은 자기들이 설계한 장비들이 어떤 야전조건하에서 임무를 수행하는가 하는 점에 관해서는 소홀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연구실에서 설계한 장비들이 실제 사용되는 야전의 환경조건, 예를 들면 온도면에서 극히 추운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 정전기 방지 설비유무, 화학

적·생물학적 방사능적응면 등에서 고려되지 않은 요인들에 의거 성능이 저하되고 이를 수리하는데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모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설계자들의 실제 야전환경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공군 당국은 1983년부터 Blue-Two Visit (BTV)라고 명명된 프로그램을 도입, 적용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R & M 2000 계획부서의 후원으로 실제 비행대기선상에서 작업하는 일등병들의 애로사항을 납품업체 관리자들과 설계담당자들에게 실질적인 장비작동 및 정비환경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뜻에서 일등병을 상징하는 Two-Stripe Blue Suiter의 명칭을 인용, BTV 계획으로 명명된 것이다. 실제로 이 제도의 시행결과 몇개의 중요한 장비를 재설계하기도 한 이 제도의 핵심은 미래의 무기체계를 설계하는 기술자들에게 더 신뢰성있고 정비가 용이한 장비들을 설계하도록 격려하고 협조를 증진시키는데 있다.

Reynold 대령은, “사실 Engineer 들은 어느 면에서는 예술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의미있게 얘기한다. 확실히 BTV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기술자들은, 이전과는 다른

각도에서 그들의 임무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Reynold 대령에 의하면, “BTV 프로그램의 시행결과, 이 프로그램을 경험한 관련 산업분야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큰 충격과 영향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Plattsburgh, Ellsworth·Warner-Robins 기지 등에서 5일간의 일정으로 15회에 걸친 Design 시범실습을 마친 후 귀사한 한 Engineer의 후일담은 저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실제 그 사람 자신이 설계한 것이었는지 또는 다른 사람의 작품을 보고 갔든지는 그다지 문제되지 않습니다. 설계자가 볼 때, “실제 장비작동상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크나큰 위험과 정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후, 그는 인간적으로 심한 감정상의 충격을 받았습니다.”라고 전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루 12~15 시간씩 5일 정도의 일정으로 정비사들이 고뇌와 좌절감 등에 직면하고 있는 작업현장을 목격하도록 되어 있다. Ford Aerospace 회사에 근무하는 한 엔지니어는 BTV 프로그램에 의해 Ellsworth AFB 를 견학 후 작성, 보고한 보고서에서 “B-52 폭격기는 출입문과 동체에 있는

많은 연결부분 틈 사이에 비행 중 접촉되는 눈보라, 먼지 등에 의해 용접부분이 녹아서 부식되는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또 비행 중에 날아가 버린 문짝, 패널 등은 경첩을 달고 고정을 시켜 사용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고정장치가 느슨하여지는 등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번 고정시킨 부분이 영구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고려가 된다면 이는 정비분야의 난제를 해결하는 획기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정비분야의 어떤 대령급 장교가 전하는 말이다.

새로운 무기체계가 도입되어 지하 격납고, 또는 미사일 등에 장착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부품들이 "실제 장비에 장착되어 검증되는 시험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많은 결함과 요구리품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물론 사용되는 고정자나 볼트, 너트 등은 토크크렌치 등을 이용하여 정확한 절차에 따라 장착되기 때문에 문제는 오히려 사용되는 토크크렌치나 고정자 등이 적절하고, 정확하지 않게 고안되었거나, 설계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는, 공중발사 순항 미사일 (ALCM : Air Launched Cruise Missile) 경우, 목재 보관함을

뜯어내고 보면 보관시에 생긴 습기로 인하여 표면이 축축함을 느낄 수 있다. 이 습기는 습기방지 설비가 잘 되지 않은 부분 - 예를 들면 티타늄과 알루미늄 접합부분 표면 - 의 부식작용의 원인이 된다.

미사일에는 크기와 규격이 부적합하여 빠져나온 많은 평평한 스크루 볼트들이 있다. 이러한 결함사항의 보완을 위하여 크고, 단가가 비싼 "EMP" 콘넥터가 고안되었다. 이 콘넥터는 짝을 이루는 볼트·너트를 한 눈에 구분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립시 많은 Slot들을 정밀조정해서 맞추어야 하므로 실제 사용자들에게는 또 다른 불편함을 주었다.

"Ellsworth 기지의 전략 공군사령부에서는 많은 정비작업 중 결함이 있는 부품을 찾아내는 데는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고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결함부품들을 수리설비가 있는 Hill AFB 에 발송, 예비부품을 획득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런데 거기에 적합한 예비부품이 있었느냐?"

이 엔지니어의 보고서에는 그와 관련된 해결책으로서 12 가지나 되는 방법들이 열거되어 있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공군 당국이 BTV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내용으로서 “앞으로 관련업체의 모든 분들이, 생산하는 각종 부품들은 이번 방문시 느끼셨던 문제점들이 설계단계에서 부터 고려되어 고장률이 낮은 부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번의 방문이 우리 모두가 국가와 군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주는 것입니다.”라고 인용하면서 끝을 맺고 있다.

BTV 방문결과 얻은 큰 수확 중의 하나는 Pratt & Whitney사와 General Electric사에서 제작하는 엔진에서 Safety Wire를 전부 제거한 것을 들 수 있다. Safety Wire는 많은 경우 인명손상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된다.

지금은 양사에서 생산하는 모든 엔진에는 Safety Wire가 전부 제거되어 있다.

실제로 Pratt & Whitney사의 한 회사 간부는 1983년 12월 그가 항공모함 “Eisenhower” 호에 승선할 당시 항공모함 사령관이 Safety Wire로 만든 교수형 올라미틀 기념으로 그에게 주었고,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고 회상한다. Safety Wire 제거 외에 정비사들이 설계자들에게 요구하는 또 다른 사항들은 가급적이면 볼트를 많이 사용하지 말고 좀더 신뢰성있는 정비방법을 제시하고, 항공기 동체에서 효과적으로 전자장비들을 탈착, 장착하는 방법을 제시해 줄 것보다 나은 외부물체에 의한 엔진 손상 방지 대책, 그리고 개선된 각종 기술 자료 제공 등이다.

Westinghouse사의 한 선임연구관은 “제가 설계자로서 느끼기에는 특히 겨울철 추운 상황에서, 군에서 현행 사용 중인 작업과정 중 GBU-12의 조립과정, F-4 항공기에 AIM-7을 장착하는 과정, 그리고 MINUTEMAN 미사일에서 유도통제장치를 분리해내는 작업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이러한 작업의 효율적인 방법을 군 당국에 제시했고, 이러한 것들은 바로 R & M 2000 계획이 작전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라고 회상한다.

또 다른 사항으로서 방진복을 입고 작업을 해야 하는 일은 특히 신속하고 단순한 작업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방진복을 착용하면 무겁고, 불편하고, 몸 동작이 둔해지기

때문이다.

General Dynamic사에서 참가한 기업인은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우리는 신뢰성있고 또 쉽게 정비할 수 있도록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군당국과 관련업체 간의 의사소통과, 과거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심층분석, 신뢰도 향

상과 정비가능성에 대하여 획기적인 발전이 있으리라고 예상합니다.” 라고 결론을 맺는다.

이제 군수사령부는 산업분야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몇가지 방안을 갖게 되었다. 핵심적인 문제는 : 업체가 이에 대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임하느냐 하는 것이다.

#### 참 고 도 서

DEFENSE  
ELECTRONICS

## 정밀측정과 군전력

### 1. 서론

옛날 우리나라에도 체계적인 측정표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아니었으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발달한 서양문명에 비추어 측정표준에 대한 개념과 방법이 다소 미흡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우리의 옛 선조들은, 양반은 돈을 세어서도 아니되고 너무 적은 단위를 따진다는 것은 속좁은 소인배나 할 일이라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다. 땅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도 마지막 단위였으며 각종 길이나 무게 등을 나타내는 자나 관 등의 단위도 저마다 기준이 틀려 유통과정에서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따라서, 현대과학의 발달에 따른 국가기간산업이 발전하게 되고, 전자, 기계 등 모든 분야가 서로 관련되어 발전함에 따라 과거의 주먹구구식에서 탈피한 각종 측정표준기준의 확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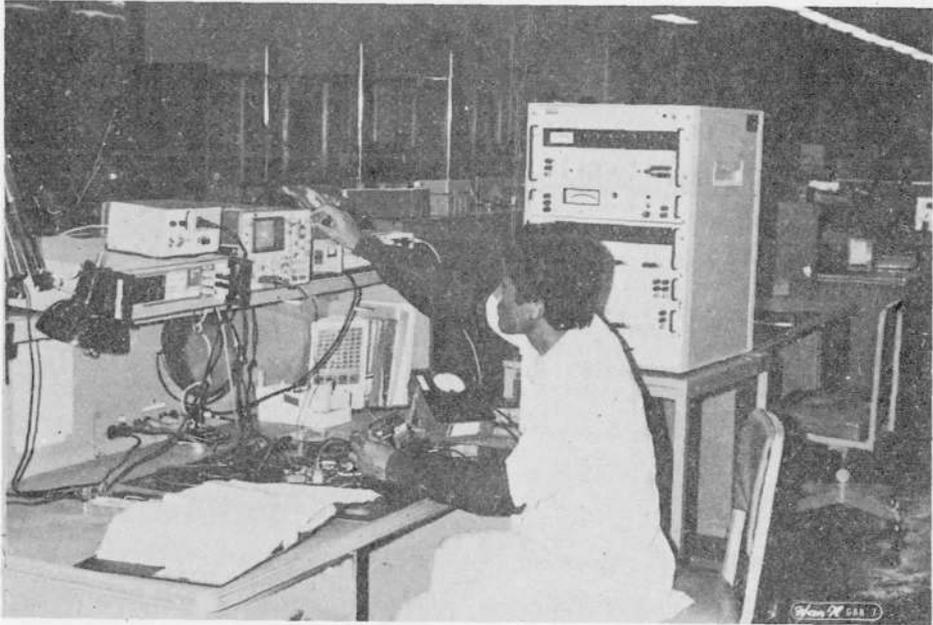


소령 김기택  
(9341 부대)

1956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공사 27기로 임관했으며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무장사다. '86년 미국에 건너가 정밀측정과정을 이수하고 돌아왔다. 현재 품질관리과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의 시행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고도기술사회 진입을 위해 무엇보다 우선되고 중요한 과제라 아니 할 수 없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함에 따라 전자, 통신, 컴퓨터 등의 여러 분야에서 급속한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이에 우리 군도 이러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모든 분야에 있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특히 전자공학의 눈부신 발달에 힘입어 화력, 통신, 기동체계 등 고도기술 분야에서 모든 장비가 더욱 정밀화되어가고 있다. 특히 이들 장비는 정밀도 여하에 따라 신뢰성 및 전투수행능력의 차이가 극심하여, 군에 있어서의 정밀측정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대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이러한 신규 정밀장비를 계속적으로 도입, 운영함에 따라 이들 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정비지원이 새로운 과

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육, 해, 공군은 원활한 정밀측정업무 지원을 위해 각군의 특성에 맞게 정밀측정 지원부대를 운영하여 왔으나, 고가의 표준장비 중복구매 등 여러 불합리한 요소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투자요소를 해소하고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군 정밀측정체계의 유지와 통일된 정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978년 국방훈령 제258호에 의거, 제반 표준장비 및 정밀측정능력이 비교우위에 있었던 공군이 3군을 통합하여 현재 군 정

밀측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정밀측정분야의 개략적인 소개와 그 업무의 중요성, 그리고 향후 개선방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 2. 본 론

### 가. 국가 정밀측정 지원체계 및 군 지원체계

국가표준유지 및 각 산업의 정밀측정 능력향상을 위해 정부는 한국표준연구소(Korea Standards Reserch Institute)를 국가표준의 정점기관으로 설정하였으며, 1987년 12월에는 공업

진흥청고시 제13672호에 의거 한국표준연구소를 1차 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이어서 2차 및 3차 교정기관을 지정하기 시작하여 국가정밀측정체계를 완비하였다.

현재 2차 교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공군 9341부대, 한국에너지연구소 등을 비롯한 7개 기관이 있으며, 3차 교정검사기관에는 각 지방 공업시험소를 비롯한 약 40여개의 교정검사기관이 있다.

차 상급기관으로부터 측정표준을 지원받는 국가정밀측정지원체계(National Precision Measurement Traceability)는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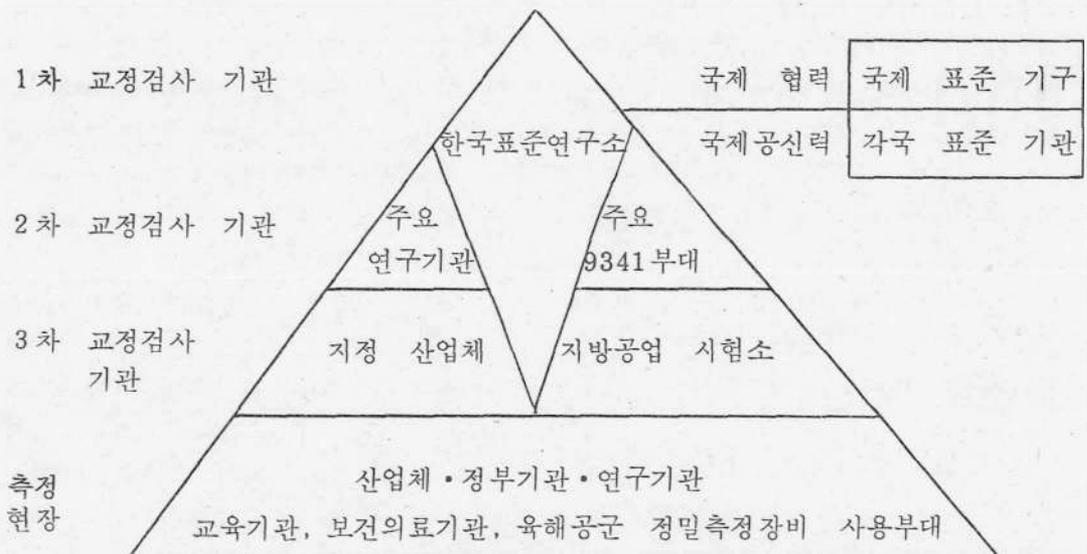


표 1. 국가 정밀측정 지원체계

한편 국가 2차교정기관으로 지정된 공군제9341부대(군 1급시험소)는 보유 중인 기준표준장비(Reference Standards) 유지를 위해 한국표준연구소 및 미공군 최상급시험소(AGMC)로부터 측정표준을 지원받고 있으며 지역별 정밀측정 지원업무를 위해 창설된 4개의 군 2급 지역시험소(제 2,

3, 5, 6 정밀측정시험소)는 해당 지원 지역의 육, 해, 공군 및 방위산업체 정밀측정지원업무를 위해 군 1급시험소인 공군제9341부대 제 1 시험소로부터 측정표준을 지원받고 있다. 이와같은 공군 정밀측정지원체계(Air Force Precision Measurement Traceability)는 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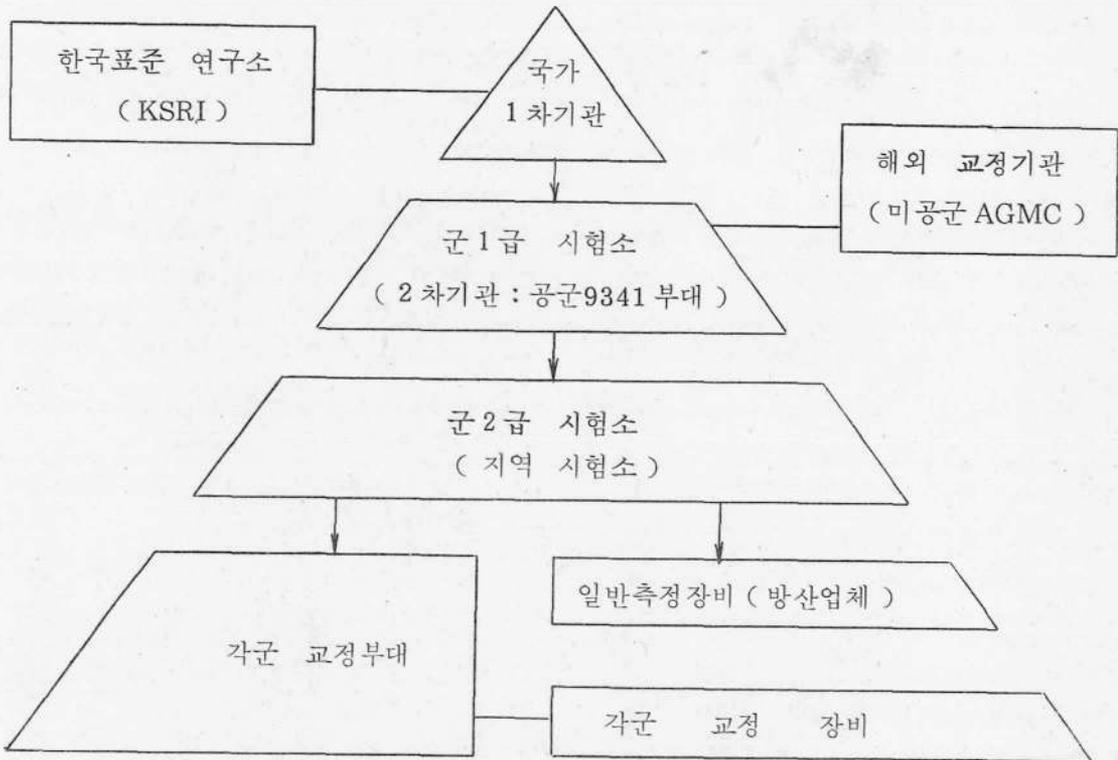


표 2. 공군 정밀측정 지원체계

### 나. 정밀측정기술 개요

앞에서는 정밀측정기관의 구성과 그 체계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그러면 과연 정밀측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술하여 보겠다.

정밀측정이란 모든 사물의 객관적, 정량적 및 물리적 측정치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또한 어떤 양을 기준으로 한 양과 비교검사에 그 몇 배인가를 정밀하게 재는 기술이다.

측정 (Measurement)이라 함은 기준량과 비교하여 수치로서 그 양을 측정하는 인위적 조작을 말한다. 또한 측정하려는 양 또는 상태를 측정량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물의 크기를 장비나 계기를 써서 기본단위를 기준으로 재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사물의 현상파악은 크고, 작고, 무겁고 가벼운 성질에 대하여 또한 그 사물이 지니고 있는 전기적, 물리적인 현상에 대하여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한다. 그러한 기준은 길이(M), 중량(KG), 시간(SEC), 전류(A), 온도(K), 광도(cd), 질량의 양(mol) 등 국제단위계 SI(Le System International d' Unit'es)의 기준을 가지고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과 같은 고도의 정밀기술이

요구되는 산업사회에서는 과거에 사용되었던 저울이나 자 등으로는 각 분야에 요구되는 정밀측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분야의 사물현상을 측정하기 위해 속도계, 압력계, 각종 진기계기 등이 등장하였으며 이러한 정밀측정계기를 정밀, 정확하게 조작하는 것을 정밀측정기술이라고 한다.

정밀도(Precision)라 하면 정밀측정치의 계속성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정밀측정이 계속 반복되어도 그 측정치가 거의 같은 값으로 측정된다면 그 측정은 정밀측정(Precision Measurement)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정확도(Accuracy)라 하면 정밀측정시 얼마나 근접하게 측정치의 참값에 접근했는가 하는 정도로서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표준전지의 정확도가  $\pm 0.1\%$ 라 한다면 그 표준전지의 오차가 전지 참값의  $\pm 0.1\%$  이내라는 것을 의미한다.

(표 3)의 (1)에서 탄환은 표적에 산발되어 명중도에 있어서 정밀하지도 정확하지도 못하다. (표 3)의 (2)에서는 좀더 정밀하게(More Precise) 한곳에 집중되어 명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소총가늌좌 조정실패로 표적 한쪽으로부터 치우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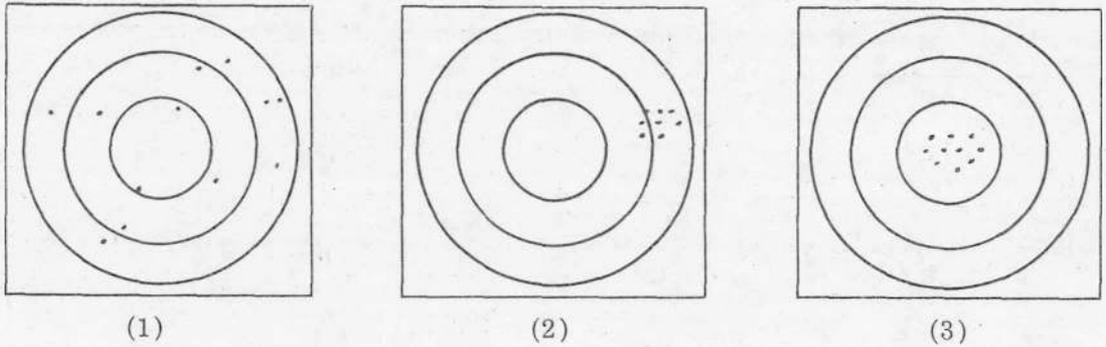


표 3. 정밀도 및 정확도 구분

명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태를 정밀측정분야에서는 정밀하지만 정확하지 못한 측정 (Precision Measurement Without Accuracy)이라 한다.

(표 3)의 (3)에서는 가늠좌 조절 후, 정확하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표적에 명중했음을 보여준다.

이와같은 개념으로 정밀측정기술이란 정밀측정기계의 반복적인 조절로서 측정하고자 하는 물리현상의 참값에 정밀, 정확하게 접근하고자 하는 기술을 말한다.

#### 다. 군 정밀측정업무의 중요성

과거 전쟁에 있어서 창과 칼 등과 같은 무기체계와 각종 연락 기동체계에서는 정밀하고 규격화된 무기체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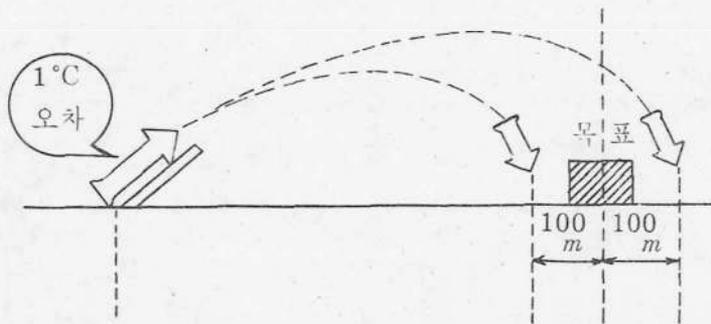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현대전이 고도의 정밀무기체계를 유지하게 됨에 따라 현재 한국 공군의 주력기인 F-4D 항공기의 부품 구성이 300만개 이상의 초정밀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육군 및 해군의 각종 미사일 등 무기체계와 기동장비, 통신장비 등도 고도의 정밀도가 필요한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성품의 정밀도는 적어도  $1/10000 \text{ mm} \sim 1/1000000 \text{ mm}$  수준에 도달하고 각종 계기의 전기적 정밀도도  $1/100$  만A 이하, 주파수도  $1/100$  만Sec 이하의 고도정밀도를 요구하고 있어 이의 정비유지를 위한 정밀측정지원업무는 모든 국방전력의 근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만약 중대한 작전임무를 부여받은

사례 1  
 미사일 → 연소온도 1°C 오차  
 목표물에서 ±100m 이상 거리차



사례 2 :  
 철강 → 1°C 온도변화  
 1m당 0.0115mm 길이변화

사례 3 :  
 로켓 → 각도 0.1° 오차  
 1km에서 정상궤도의 ±1.57m 거리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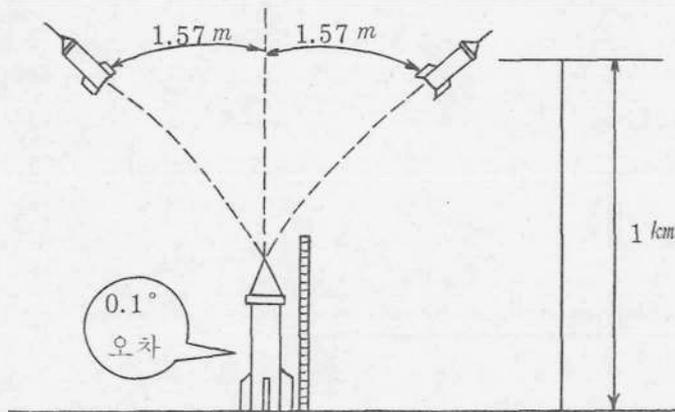


표 4. 정밀정확도 중요성에 대한 사례

전투기의 계기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전투기는 항로를 벗어나 적의 표적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적의 공격에 대하여 탑재 RWR (Radar Warning Receiver) 장비가 조금이라도 늦게 경보를 한다면 중대한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다.

실례를 들어 각종 무기체계에 있어 정밀측정의 중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앞의 (표 4)에서 보면 지대공미사일 발사시 각도  $0.1^\circ$ 의 측정범위는 1 km 거리 밖의 표적물에서 1.57m를 벗어나게 된다는 점은 각도오차의 정밀정확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입증시켜 주고 있다.

그리고 지대지미사일 발사시 표준연료온도  $1^\circ\text{C}$ 의 측정오차는 100 km의 표적물에서 100 m 이상의 거리차를 초래하고 있어 여러 정밀측정 중에서도 단지 온도측정에서의 오차 만으로도 상당한 전력손실을 감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전차, 야포 등의 무기체계의 주 구성자재인 철강에 있어서도 외부나 자체 열 발생의  $1^\circ\text{C}$  온도변화가 철강 1 m당 0.0115 mm의 길이 변화를 일으켜 작전효과에 차질을 초래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세계각국의 무기체제도 양 보다는 우수한 고도정밀의 무기체계 확보를 위해 막대한 투자도 서슴치 않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국가 표준사업비가 GNP의 6%에 이르고 있다고 미 국립표준국(National Bureau of Standards)이 밝히고 있다.

#### 라. 향후 발전방향

이러한 정밀측정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각군이 보유 중인 정밀측정계기의 효율적인 정밀측정지원을 위해 국방부에서는 1986년 국방예산 〇〇억원을 추가 지원하여 3군통합 정밀측정사업을 시행하여, 현재 공군제9341부대가 2차교정기관에서도 최상급의 지원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첨단 무기체계인 F-16 전투기의 요구 정밀도를 충분히 지원할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교정되어질 각종 초정밀 무기체계를 지원하고 현재 지원 중인 각군의 정밀측정계기의 효과적인 정비지원을 위해 다음 사항의 계속적인 연구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1) 표준장비의 지속적인 확보  
표준장비는 군 최상급 시험소에서 보유하는 기준표준장비(Reference Standards)와 지역시험소에서 보유

	길이 (m)	각도 (rad)	질량 (kg)	시간 및 주파수 (SEC)	전기 (A)
항공기(F-16) 요구정밀도	1/1,000만	1/10 만	1/20 만	1/100 만	1/10 만
공군 정밀도 능 력	1/4,000만	1/20 만	1/500 만	1/20 억	1/100 만

표 5. 공군 정밀측정 능력

하는 작업표준장비(Working Standards)로 분류하나 각 표준장비 공히 점차 고도화, 정밀화되어가는 각군의 정밀무기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밀도 향상을 위해 현재의 정밀측정범위보다 한 단계 Level-up 된 표준장비 확보가 필요하고 과거 ANALOG형 표준장비는 과감히 DIGITAL형 표준장비로 대체함으로써 국방요구 정밀도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2) 정밀측정요원의 전문화

정밀측정요원은 다른 요원과는 달리 고도의 전문기술과 장기간의 숙달훈련이 필요하며 이의 충족을 위해 다수의 민간 군무원을 채용하고 있다.

또한 공군 정밀측정교육부에서도 연간 약 100여명을 7개월에 걸쳐 지

속적으로 실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하루가 다르게 급속히 발전하는 제반 정밀측정분야의 신 기술습득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따라서 미 공군 AGMC 및 한국표준연구소와의 정기적인 기술교류가 필요하며 현재 약간명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정밀측정 도미교육도 군무원을 포함하여 과감히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3) 3군 정밀측정 지원제도의 준수 및 보완 개선

1986년도 부터 시행하고 있는 3군 통합 정밀측정업무는 단기간에도 불구하고 괄목할만한 발전을 하였고 또한 효율적인 예산절감과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졌으나 아직까지 각 군 간

의 업무수행 방식과 용어사용 등에서 다소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그리고 주기적인 정밀도교정 (Calibration) 과 그 검증 (Certification) 이 정밀측정업무의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말단 예하 전방부대의 검교정 미시행이 간혹 발생하고 있으며 각군의 장비획득 및 구매부서에서도 무계획적인 정밀측정장비의 구매가 이루어져 장비 교정 및 수리시 부품 획득 및 교정에 어려움이 발생하는등 정밀측정 지원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따라서 1979 년도에 제정된 3군통합 정밀측정업무에 관한 국방훈령 제258 호와 제반 관계규정의 철저한 준수가 필요하고 관계자들은 개선문제가 발생할 시 이러한 제반 절차의 연구보완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 3. 결 론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정밀측정분야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와 중요성, 그리고 향후 발전계획에 대해 기술하였다.

정밀측정업무는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측정업무라 할지라도, 몇 년 전 미 우주왕복선 챌린저호의 발사 직후 폭발사건과 같이 정밀정확한 정밀측정없이 모든 노력이 일시에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목격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방위를 위해 많은 예산을 전력증강부분에 투자하고 있고 또한 고도의 무기체계유지를 위해 초정밀한 각종 정밀측정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밀측정업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 아래 오늘도 많은 바 임무인 정밀측정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우리 정밀측정요원에 대해 끊임없는 격려와 조언을 부탁하며 본고를 맺는다.

## 공군교리 소개



### 1. 머리말

필자가 공군교리 또는 군사교리라는 용어를 맨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최신판 공군교리의 초안이 교리연구위원회에 의하여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1983년 봄이었다. 필자의 부족한 지식으로 사관생도들에게 공군작전을 소개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던 중, 공군기본교리(초안)를 발견하였고, 그 내용이 공군작전을 다루기 위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가치가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자료수집과정에서 과거의 공군교리가 비밀로 분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열람하고, 교육에 참고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느꼈었다. 그렇지만 오늘에 와서는 1983년판 공군기본교리(초안)를 보완하여 1986년 공군교범 1-1 및 2계열로 발간하고, 비밀분류를 해제하였기 때문에 누구나 마음대로 접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령 유길형  
(공군사관학교)

1957년 안성에서 태어났다.

공사 28기로 임관했고 국방대학원에서 무기체계를 전공했다. 현재 공군사관학교 국방학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공군대학 항공교리연구실」에서 많은 자료를 내게 됨에 따라 보다 풍부한 내용을 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관련있는 관계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 공군의 구성원들이 공군교리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은 한마디로 백지상태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교리의 역할은 뒤에서 교리의 개념에 대해서 다룰 때

언급되었지만, 모든 구성원이 그 내용을 알고, 가르치며, 집단을 운용하는 원칙으로써 집단의 목표달성을 위해 개념을 통일시킨다. 따라서 공군의 모든 구성원들은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군교리를 읽고, 가르치며, 그에 따라 공군을 운용함으로써, 통일된 개념 하에서 공군목표를 달성하며, 국방목표를 달성하고 국가안보에 이바지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

특히 군의 핵심인 장교들은 그 책임과 의무가 더욱 막중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공군의 모든 구성원이 교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자보다도 더 많은 지식과 풍부한 이해를 가진 교리전문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이 글을 쓰게 된 것이다.

독자 여러분들은 아무쪼록 이 글을 통해 공군교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고있는 지식을 더욱 체계화하고, 새롭게 공군교리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이다.

이 글은 머리말에 이어서 교리의 개념, 군사교리의 원천, 그리고 공군교리의 순으로 전개하고, 공군교리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한 뒤 맺음말로써 종결하도록 한다.

## 2. 교리의 개념

### 가. 일반적 개념

교리란 말은 영어의 Doctrine 이란 용어를 번역한 말로서 신봉하고 있는 사상을 나타내는 철학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教義」, 「教條」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가톨릭에서는 「신이 계시한 종교상의 진리로서 교회가 신도들에게 信奉의 의무가 있다고 宣明한 것」이라고 풀이한다. 또한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주의나 사상의 핵심원리」를 교리 곧 Doctrine 이라고 하여, 예를 들면 「공산주의의 기본원리」를 「The Basic Doctrine of Communism」이라고 쓴다. 한편 우리가 Doctrine 이라는 용어로서 가장 많이 접해 본 용법은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활용일 것이다. 이는 「외교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지침의 천명」이라는 의미로서, 그 예로는 「Monroe Doctrine」, 「Truman Doctrine」, 「Nixon Doctrine」 등이 있다.

따라서 일반적 개념으로서의 교리 즉, Doctrine이란 「반드시 알아야 할 원리이며, 반드시 가르쳐야 할 원리」라고 요약할 수 있다.

## 군사지식

### 나. 군사교리의 개념

군사교리란 한마디로 말해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 본 일반적인 원리의 개념을 군에 적용한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군사교리란 「군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개념(Concepts) 원리(Principles), 그리고 신념(Beliefs)의 근원과 기초가 되는 이론체계」를 말한다. 또한 군사교리는 군의 철학과 의의와 목적을 제시해주는 군사전문가들의 신조로서, 그 군의 특성, 규모, 구조, 조직의 근원과 기초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교리는 군을 실질적으로 형성시키고 있는 여러가지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일괄 종합된 것으로, 교리 자체가 군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지침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군이 형성되고 변경되며, 발전되는 것이다.

한편, 소련을 대표로 하는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군사교리는 민주주의 국가와는 다른 관점에서 정의되고 있다. 먼저 그들의 정의를 살펴 본 뒤 그에 대해 언급하면, 소련은 군사교리를 「현대전의 성격과 그 전쟁에서 군대의 사용, 그리고 국가와 군대가 어떻게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가」하는 필요로부터 나온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견해에 대하여 「국가가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체계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군사교리는 정치적 측면과, 군사기술적 측면이 있는데, 그 기본적인 교의는 사회적, 정치적 질서, 국가의 경제적, 과학적, 기술적 발전, 군대의 전쟁물자, 미래에 가능한 적의 견해, 그리고 군사과학의 결론에 따라 국가의 정치적, 군사적 리더십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서방세계의 국가안보정책의 의미와 비슷하게 평가되는 내용이며, 「국가의 공식적인 견해」임을 특히 강조하고 있고, 정치적 입장이 군사기술적 입장보다 강하게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군사교리의 원천

군사교리의 원천을 이해하는 것은 군사교리를 발전시키는 기준이 되고, 이해하고 운용하는 사람들의 기초지식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군사교리의 원천은 전쟁사적 경험과 군사이론 및 과학기술 등이며 이 외에도 상대국의 무기체계와 군사교리교리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여기서는 크게 세가지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가. 전쟁사적 경험

군사교리의 원천으로써 전쟁사적 경험은 다시 전쟁사 자체와, 전쟁을 겪으면서 얻은 군사전문적 경험의 두 가지를 포함한다.

전쟁사는 군사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천이며, 과거 전쟁의 역사적인 교훈으로부터 전쟁의 원리, 양상, 발전과정, 형태, 성패요인 등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군사교리의 원천으로서 전쟁사를 연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과거를 회고해 보기 위한(Retrospective) 연구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미래를 내다보기 위한(Prospective) 연구」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군사전문적 경험은 군사력을 실제로 운용해 본 경험을 말하며, 군사교리의 원천으로써의 경험이란 장군들의 경험은 물론이고, 전쟁에 직접 참가한 장병들의 경험도 포함한다. 경험은 실질적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가설 및 추측을 증명해준다. 그러나 우리가 군사전문적 경험을 군사교리의 원천으로 택할 때 주의할 점은, 「과거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교리를 시대에 뒤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이다.

나. 군사이론

일반적인 의미의 이론이란, 지금까지 축적된 경험이나 발견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한 논리를 말한다.

그러나 군사교리의 원천으로써의 이론, 즉 군사이론이란 이와는 약간 다르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군사이론이란 「지금까지 무엇을 했었는가 아니라, 만일 발전되고 적절히 운용된다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해석의 중점을 두는 가정과 추측을 바탕으로 한 논리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군사이론가(군사사상가)들은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무기체계가 적절히 발전되고 운용될 때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자신의 경험과 합리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군사이론을 세운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군사교리를 확립하는데 있어서 경험에만 의지하지 않고 합리적인 군사이론을 고려함으로써 다가오는 변화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이론이 결여된 경험은 다가오는 변화에 대하여 적절히 대비하여 나가지 못한다는 말도 되는 것이다.

### 다. 과학기술

기술적 혁신이 교리를 변화시키느냐 아니면 교리가 기술을 이끌어 주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최근들어 매우 중요한 논점이 되고 있다. 그것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때로는 군사교리 내지는 군사사상이나 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강요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핵무기의 등장은 그 좋은 예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리가 기술을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그 예로는 「전략방위구상(SDI)」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상에만 근거를 둔 새로운 교리는 차기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기술이 따라가지 못할 때 결정적인 위협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발전과 군사교리의 변화는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통상 기술의 발전은 전쟁의 본질이나 전략 등에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수단이나 전술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가 기술을 이끌어 주어 새로운 무기체계의 발전을 위한 지침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과학기술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 4. 군사교리

지금까지 우리는 교리의 일반적 개념과 군사교리의 개념 및 군사교리의 원천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이 과정에서 독자 여러분은 군사교리가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나갈 것인가를 알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면 이 장에서는 공군교리란 무엇이며, 오늘날까지 우리의 공군교리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그리고 공군기본교리를 중심으로 그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공군교리는 군사행위에 있어서 공군력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설명과 그 지침이 되는 공인된 신념과 전쟁수행의 원칙을 기술한 것이다.

공군은 공군력을 준비하고 운용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에 관하여 공통된 지침으로 공군교리를 공포하며, 공군의 조직, 훈련 및 발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준다.

공군교리는 군사적 교훈, 경험, 연구 및 시험을 통하여 얻어진 지식에 기초를 둔다. 이는 변화하는 군사정세 개념 및 과학기술에 따라 발전되며,

또한 국가목표와 정책 그리고 군사작전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을 통하여 발전된다.

따라서 공군교리가 공군 임무수행을 위한 유용한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

이에 공군기본교리에서는 교리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공군교리는 공군력으로 국가목표를 지원함에 있어서 공군의 활동지침이 되는 기본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원칙들은 권위있는 것이나 적용시에는 판단이 요구된다」.

#### 가. 공군교리의 발전과정

1949년 10월 1일 공군이 독립한 이후 60년대 초까지 공군은 지금과 같이 형식을 갖춘 교리가 없었고 지휘관의 지도이론과 결심에 의해 운용되는 교리부채기를 가졌었다.

그러나 6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주국방을 지향하고, 현대전의 양상에 부응하기 위해 공군력이 급진적으로 증강되는 것에 발맞추어 독자적인 교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나온 것이 최초의 교리라고 할 수 있는 「공군작전운용요강」인 것이다. 공군작전운용요강은 1962년에 초안이 작성되었고,

1966년에 공포되었다. 이것은 지금의 기본교리와 운용교리가 혼합된 성격을 갖고 있었다.

'60년대 중반에 들어서서 공군력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면서 초음속 전폭기를 도입하는 등 전력의 급진적인 발전이 이룩되었다. 이에 부응하여 공군력 운용의 표준화와 개념통일의 필요성이 다시 거론됨에 따라 1974년에 공군교범 1-1로 공군기본교리를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임무의 다양화, 무기체계의 급진적인 발전 및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교리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1977년에 기본교리를 개정하고, 또 다시 1986년에 현재의 공군교리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최신판 공군교리는 교리체계를 기본교리와 운용교리, 전술교리 및 합동작전교리, 연합작전교리로 구분하고 있다. 운용교리는 29개 전문분야별로 작성되어 공군교범 2계열로 발간되었다.

최신판 공군교리의 특징은 공군목표를 최초로 설정하였고, 정신전력분야를 추가하는 등 한국적 여건에 맞는 독창적인 교리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머리말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비밀분류를 해제함으로써 해서 공군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교

## 군사지식

리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실은 교리가 그 구성원의 개념을 통일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며, 이로 인해서 공군교리는 획기적인 발전을 보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 나. 공군교리의 개요

#### (1) 공군교리의 분류

공군교리는 기본교리, 운용교리, 전술교리, 합동작전교리, 연합작전교리로 분류된다. 각각의 교리는 공군력의 준비 및 운용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서로 다른 수준과 심도로 기술된다.

기본교리는 군사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공군력의 적절한 사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지침이 되는 가장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신념을 기술한 것이다.

기본교리는 모든 공군교리의 기초가 되며 공군력의 준비와 운용에 관한 광범위한 지침서로서 공군교범 1-1로 발간된다.

운용교리는 공군의 임무수행을 위한 각 전문분야별 업무활동의 운용원칙과 지침을 제시하며, 공군의 상세한 임무 설명과 공군력을 준비하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방법을 기술한 것으로서 전술교리를 개발하는데 기초가 된다.

운용교리는 공군교범 2계열로 발간

된다.

전술교리는 세분화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 무기체계의 적절한 사용을 기술하며, 기본교리와 운용교리를 군사행동에 적용시키고 있다. 전술교리는 공군교범 3계열로 발간되고 전술, 전기 및 절차 발전의 기초가 된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전술교리를 교리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교리란 어느 정도 상황이나 무기체계가 달라도 적용될 수 있는 원리, 원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합동작전교리는 합동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각군의 책임을 명시하고, 공군력을 지·해상군과 통합 운용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기술한다.

연합작전교리는 2개 이상의 국가가 연합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상호방위 조약 또는 협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전되며 방위 동맹국의 각 군 간에 조정된다.

#### (2) 공군의 목표

대한민국 공군은 국가방위의 핵심전력으로서

- 첫째, 전쟁을 억제하고
- 둘째, 영공을 방위하며
- 셋째, 전쟁에서 승리하고
- 네째, 국익을 증진함을 목표로 한다.

공군은 적의 도발에 대하여 단호하게 격퇴, 응징, 보복하겠다는 국가의지를 과시함으로써 전쟁발발을 사전에 억제하고, 적기의 영공침입을 거부하고 적의 공격에 대한 방위를 통해 국가와 국민을 보호한다. 또한 유사시 우세한 전투력과 건전한 작전개념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평시를 막론하고 국가이익에 기여한다.

### (3) 공군의 임무

공군의 임무는 크게 기본작전 임무와 특수작전 임무로 구분되며, 기본작전 임무에는 제공작전, 근접항공지원작전, 전장항공차단작전, 항공후방차단작전, 전략목표공격작전, 감시 및 정찰작전, 공수작전, 그리고 탐색 및 구조작전이 있고, 특수작전 임무에는 전자전투, 화생방전, 심리전, 비정규전, 그리고 대비정규전이 있다.

공군의 임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그러나 공군의 임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은 제공작전을 통한 제공권 - 엄밀한 의미에서는 공중우세 - 의 확보다.

### (4) 공군력의 의의, 특성 및 능력

공군력은 공중공간을 매개체로 하는 고유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정치,

군사적으로 복합된 상황하에서도 신속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군사행동의 효과와 영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타군보다 광범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공군력은 국가를 방위하고 침략을 억제하며, 또한 국가목표 달성을 지원하는데 필수적이고, 핵심적이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전력이다.

### (5) 공군의 조직, 훈련, 유지 및 발전

공군력은 그 특성과 능력면에서 타군에 비해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공군력 준비를 위해서는 항상 장차전에서 공군에 부여될 임무를 완수하는데 적합하도록 조직하고 훈련하며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공군은 주임무부대에 효과적인 전투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되고, 지휘계통을 통하여 노력을 목표에 집중시키도록 적절한 통제를 해야 한다.

따라서 공군은 신속한 의사결정과 이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부대를 조직해야 한다.

교육훈련은 공군과 그 구성원이 다양한 변화에 신속히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임무수행에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고 사명감과 사상무장 및 필승의 신

## 군사지식

념을 고취할 수 있도록 정신교육을 겸해야 한다.

공군은 어떠한 작전의 요구에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군수능력을 개발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체계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 (6) 공군의 운용

공군력은 국가목표를 달성하거나 달성에 도움을 주는 국가정책수행을 위하여 취하여지는 군사적 수단이므로 군사작전의 승리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준비되고 운용되어야 한다.

공군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전쟁원칙은 다음의 10가지이다. 목표의 원칙, 공세의 원칙, 집중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 기습의 원칙, 보안의 원칙, 통합의 원칙, 기동의 원칙, 적시의 원칙, 감시의 원칙 등이다.

또한 지휘통제에 있어서는 중앙집권적으로 통제하되, 분권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부대를 운용하도록 한다.

## 5. 공군교리의 발전방향

교리는 원칙적인 문제를 다루기는 하지만 동태적이다. 과학기술이나 국가안보정책, 국제정세와 경제적 환경 등에 부응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발

전되어야 한다. 이러한 발전은 실제 및 가상 위협을 통하여 형성되며 미래지향적인 발전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군의 모든 구성원은 교리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의견제시를 통하여 교리를 발전시켜 공군력의 전비태세 완비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1979년에 교리를 발전시키면서 항공우주교리 (Aerospace Doctrine)로 그 영역을 넓혔다.

우리도 군사력의 발전추세에 맞추어 주어진 또는 앞으로 주어질 공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공군교리로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 또한 현재 발간된 교리 내용에 있어서도 상위 교리와 모순되거나 대치되는 것은 없는가 면밀히 검토하여, 공군의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개념을 갖고 공군목표 달성에 노력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하겠다.

## 6. 맺음말

교리란 어떤 집단의 구성원이 반드시 알고, 반드시 가르쳐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군의 모든 구성원, 특히 장교들은 필자의 부족한 지식과 견해를 감히 피력한 이 글을 바탕으로, 이미 발간되고 배포된 공군교범 1-1

공군기본교리와 공군교리 2계열 공군 운용교리 및 3계열 전술교리를 한번씩 읽고 개념을 통일하며, 그 외에 USAFM 1-1 Aerospace Doctrine 이나, 교리 관련서적을 통해 공군교리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그럼으로써 공군목표를 달성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국가목표 달성에 보탬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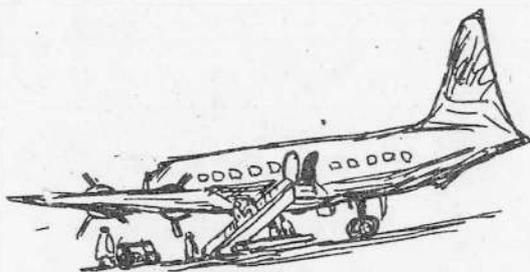
#### 참 고 문 헌

1. 공군교범 1 - 1 공군기본교리, 공군본부, 1986.
2. 공군교범 2 - 공군운용교리, 공군본부, 1987.
3. 군사교리일반, 공군대학, 1986
4. 한국공군교리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논문), 김인기, 1983.
5. USAFM 1-1 Aerospace Doctrine, USAF, 1979.
6. 공대교본 SOC-6,7 군사운용, 공군대학, 1987.

## 空 의 安 全

본고는 1972년 4월 「동경대학 공개세미나」 공의 일환으로 행한 토론내용을 가필하여 「동경대학출판회」 발행의 공에 등재된 것으로 최근의 사정을 가미하여 역자가 보정 요약한 것으로서 이 글은 특히 항공기 발전에 따라 공의 안전침해 요소들에 대하여 형법해석론적 입장에서 법률의 제한점과 이에 따른 최소한의 대책에 관하여 기술한 것이다. 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최신기계 설비의 개발과 승객수속절차의 철저함을 통해 범죄발생 예방과 승객편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사전예방이 어려운 현실성을 감안할 때 피해자에 대한 보상문제도 범죄대책의 하나로서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역자 주 -



소령 이 만 중  
(3726 부대)

1957년 광주에서 출생했다.  
사후 74기로 임관했다. 조선대학 법학과를 졸업했고, 경상대학원에서 교육심리를 전공했다.  
현재 헌병대 작전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 1. 서 언

오늘날 항공기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초고속화」현상은 세계를 일일 생활권으로 묶었으며 많은 시간을 앞당기는데 절대적인 공을 세웠다.

그 옛날 「라이트형제」 에게서부터 발전을 시작해 온 항공기의 발달을 오늘날 영·불공동으로 개발된 「콩코드 초음속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업적을 남겼다. 이같은 항공기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항공기를 정치적으로 혹은 개인의 욕구만족을 위한 하나의 도구물로 악용하려는 테러분자들의 소행으로 말미암아 당대의 전 인류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970년 「요도호 납치사건」을 필두로 해서 시작해 온 항공기의 하이잭이나 공중폭발은 우리 모두에게 큰 염려와 공포의 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2시 5분경 버마 안다만해역 상공에서 공중폭발하여 1백 15명의 고귀한 생명을 희생시킨 대한항공 858기 사건은 전 세계 자유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항공기에 대한 테러분자들의 소행은 급변하는 국제관계

에 있어서 새로운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 2. 공교통의 발달과 그 마이너스면

근년 민간항공의 눈부신 발달은 시간적 거리를 단축시키고 인간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등 많은 플러스효과를 낳았다. 그러나, 동시에 마이너스면도 상당히 도출되고 있다.

### ○ 소음과 항공사고

항공소음은 대표적인 마이너스면으로 많은 곳에서 공항소음문제가 소음화되고 있으며 초음속기(SST)역시 충격파(Sonic Boom)의 피해때문에 각종 제재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비행기의 대형화로 비행장의 확장 또는 신설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공항부지의 문제가 생긴다. 그 외에도 공교통량의 증가에 따라 「착륙실패」 「추락」 「공중충돌」 등 각종 항공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고의 대형성이다.

따라서 공교통이 빈번해지면 해결수단 공의 안전도모의 필요성이 커진다.

○ 하이잭크의 등장

하이잭은 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요소로서 1970년 적군과 「요도호 납치사건」 이후 크게 대두되고 있다.

하이잭은 정치적 망명의 수단이나 정치범 석방 등의 요구를 위해 비행기를 납치하는 범죄행위로서 승객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피해는 다른 항공사고에 비해 적다고 볼 수 있지만 장시간의 구속에 의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여행스케줄의 파괴, 항공회사의 손해 그리고 안전비행의 심각한 위협 등의 문제를 고려해 볼 때 공의 안전을 해치는 대단히 위험한 범죄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3. 공의 안전확보와 법률

공의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항공기 사고방지를 위한 과학기술적 측면과 항공사고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적 측면의 두 가지 문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본고의 목적에 따라 법률적 측면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 보겠다.

○ 공의 교통정리와 사고방지

공의 교통안전에 있어서도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률적 규제가 필요하다.

그 보기로 「고도지정」이라든가 「항공로 규정」 「진로변경금지」등의 규정을 들 수 있는데 1969년의 「전일공기」·「자위대기」의 공중충돌 사고를 볼 때 이것은 항공사고방지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 항공사고 조사위원회

항공사고의 조사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거한 「항공사고 조사위원회」라든가 「항공사고심판소」같은 상설기관의 운영이 필요하며 사고대책면에 있어서도 법률적 측면이 관계되나, 여기에 있어서 주역은 어디까지나 「항공기술 전문가」이고, 법률은 활동을 보조한다는 데 중점이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으로서의 하이잭은 주로 범죄방지의 문제에서 보아야 하며 법률적인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대상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하이잭의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하여 술하고자 한다.

#### 4. 하이잭 문제의 현상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자료에 의하면 하이잭은 1961년 5월에 시발로 그해에 5건 1965년에 2건 '67년에 5건이 발생했으며 '68년이 되면서 그 수가 급증하여 30건, '69년에 84건, '70년 92건, '71년 69건, '72년 108건으로 해마다 그 수가 급격히 늘기 시작했다.

##### ○ 쿠바와 중근동

처음에는 하이잭이 미국과 중남미 즉, 쿠바 주변에서 일어났으나, 1970년 9월 아랍계릴라의 「유럽항공기 4대 연속 탈취사건」 1972년 10월 「검은 구월단」의 뮌헨올림픽 계릴라 석방요구를 위한 「서독 루프트한자기」 납치사건 등 이후 그 무대가 미주에서 중근동으로 옮겨 나갔다.

한편 아시아권의 사건으로는 1969년 대한항공 YS-11 형기의 북한피납 사건, 1970년 적군파의 「요도호 납치사건」, 1971년 필리핀 항공기의 「중공피납사건」 등이 있다.

##### ○ 정치목적의 하이잭

하이잭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미국에서 쿠바로 간 경우 대부분 미국·쿠바관계에서 비롯된 일종의 국외 탈출 즉 정치망명에 가까운 유형이며 아랍계릴라 관련사건도 이스라엘과 아랍제국 간의 전쟁으로 인한 것으로서 대 이스라엘 군사원조에 대한 항의나 적국에 대한 공격수단의 하나로서 정치적 목적을 띤 것이다.

또 하나의 유형은 「영국 BOAC기 납치사건」의 경우나 「안젤라 데이비스사건」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치범의 석방요구를 위한 하이잭이다.

한편, 정치적 목적 외에 사회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서, 운행 중인 비행기를 자살의 장소로 사용하는 유형도 있다.

##### ○ 몸값 요구형

이것은 '72년 1월과 4월에 일어난 2건의 하이잭으로서 비행기와 승객을 인질로 몸값을 요구하는 비정치적 목적의 하이잭이다.

#### 5. 하이잭의 대책 I :

##### 형벌의 역할

##### ○ 일반예방적 효과

범죄방지의 방법으로는 나쁜 일을

한 자에게는 형벌을 가하는 방법이 있다. 즉, 형법은 어떠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러한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예고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독일의 포이에르 바하가 제시한 「심리강제설」에 기반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쾌락추구본능」을 고통을 피하려는 본능」으로 억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형법학에서는 「일반예방주의」라 한다.

○ 하이잭 방지법

그러면, 하이잭 방지를 위해서는 어떠한 형벌을 가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 점에 대해 일본에서는 1970년 요도호사건을 계기로 「항공기 강취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하에서 죄로 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람을 저항불능의 상태로 빠뜨려 항행 중인 항공기를 강취하고 또는 임의의 그 운항을 지배하는 행위(무기 또는 7년 이하의 징역)

나. 전항의 미수죄

다. 전항의 죄를 범한 것에

의해 인명을 사망케 하는 행위(사형 또는 무기징역)

라. 전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꾀하는 행위(3년 이하의 징역)

단,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자수하면 그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마. 위계 또는 위력으로 항행 중인 항공기의 침로를 변경시키거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사용절도와와의 비교

그런데, 이 법률 이전의 하이잭은 어떻게 죄로 물을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대부분의 하이잭은 비행기 자체를 탈취하지도 않고, 승객의 하물을 뺏지도 않으며 다만 자신의 목적을 위해 비행기를 무단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형법상의 「사용절도」에 가깝다. 「사용절도」라는 것은 타인의 물건을 일시 무단으로 차용하는 것으로서, 확실히 반납할 경우 절도가 아니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절도가 된다는 견해도 있다.

○ 산업스파이와의 비교

산업스파이는 중요서류나 도면을 몰

래 꺼내 복사하여 자신의 목적에 따라 사용한다. 이것은 잠시 타인의 물건을 꺼내어 보고 다시 넣어두는 것으로서 절도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명확한 판례도 없다. 마찬가지로 하이잭의 경우에 있어서도 비행기를 훔쳤다는 것인가 훔치지 않았다는 것인가를 판단하기가 애매하다. 다만, 범인들이 조종사와 승객을 위협하고 억류한다는 점에서 협박 그리고 불법감금죄 정도를 적용할 수 있을 따름이다. 이러한 점에서 「항공기 강취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그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

### ○ 하이잭과 국제조약

한편, 국제범죄인 하이잭 예방에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하여 「항공기의 불법적인 탈취방지에 관한 조약」이 국제조약으로 성립되어 있다. 이것은 조약의 정신에 의하여 각 조약 체결국가가 조약내용에 해당하는 범죄를 자국의 법률에 의거, 범죄로서 처벌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이는 범죄에 대한 사고방식과 관습이 서로 다른 여러나라에서 하이잭만은 공통된 인식으로 무겁게 처벌하자는 것이다.

### ○ 형벌의 한계

그런데, 형량이 무겁다고 해서 범죄의 억지력이 커지는 것 만은 아니다. 만약 성공가능성이 큰 범죄라면 형벌을 무겁게 한다고 해서 범죄를 예방하기는 어렵게 된다. 이 점을 생각해 볼 때, 하이잭은 일반적으로 성공가능성이 있는 종류의 범죄이며, 바로 이 점이 하이잭 예방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이다.

### ○ 국외도망방지

하이잭의 성공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범죄 후 도피의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도망할 경우 체포된 예가 많으나, 국외로 도망치는 경우, 도피에 성공한 예가 많다. 따라서 국외도망방지책이 필요하다.

## 6. 하이잭의 대책 II : 도망범죄인의 인도

국외도망에 의한 범죄의 성공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범죄인 인도조약」을 국제조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이것은 하이잭도 범죄인 인도의 대

상이 되는 범죄로 취급하여, 국가간에 그 범인을 서로 인도하자는 약속이다.

범죄인 인도는 원칙상, 조약체결국가 사이에서만 이루어지지만 실제로는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사이에서도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행해지고 있다.

### ○ 범인 인도의 실제

일반적으로, 하이잭의 경우 대개 불법입국이 된다. 따라서, 범인을 불법입국자로 구분, 입국관리소에 수용한 다음 해당국가에서 온 신병인수자에게 인도하여 출국시키고, 공해상에서 체포하게 하는 것이 통례이다.

### ○ 자국민 불인도

그러나,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가 둘 있는데, 자국민인 경우가 그 하나이다. 이것은 국제관습법상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이라고 하며, 외국에서 하이잭을 한 자가 자국으로도 망쳐 올 경우, 자국의 법률로 처벌한다는 취지이다.

### ○ 정치범의 불인도

둘째는 정치범의 경우로서, 국제관습법상, 정치범의 해외도피는 자국에서의 정치적 박해에 대한 도피로 간주하여,

본국 정부에 인도하지 않고 있다.

### ○ 정치범죄의 의의

정치범죄란 소수파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다수파의 탄압에 대항할 목적으로 범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런데,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에 따른다면, 대부분 정치적 목적을 띠고 있는 하이잭의 경우 그 처벌이나 예방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국제적 조약으로 하이잭은 정치범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약속하는 것이 유효하나, 이러한 합의는 쉽게 성립되기 힘들다.

## 7. 하이잭의 대책 III :

### 그 외의 방책

그 외의 대책으로 하이잭을 피하는 자가 비행기에 탑승한 경우, 기내에서 그 자를 체포하는 방법을 세울 수 있다. 기장에게 범인체포권한을 부여하여 무장시킨다든가, 경찰관의 동승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법은 안전비행과 승객안전에 큰 위험이 따르므로 최선의 방법이 될 수는 없다.

### ○ 수하물의 검사, 신원확인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범인을 비

행기에 탑승시키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사전의 철저한 신원확인과 하물조사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 역시 한계가 있다. 하이잭 방지를 위해서, 다른 승객들에게 불쾌감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항공사에서도 이러한 이유에서 철저한 사전조사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그 보완책으로서 기계·설비의 개발과 수속절차의 합리화를 통해 하이잭의 예방과 승객편의의 보장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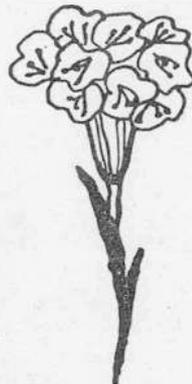
#### ○ 피해자의 보상

한편, 현실적으로, 범죄의 사전예방이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범죄예방과 동시에 피해자 보상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하이잭의 경우에는 비행기내에서 무리하게 체포하려 하지 않고, 승객에 대해서는 여행일정이 다소 망가지는 정도에서, 지나친 공포감을 갖지 않는 상태로 내릴 수 있게 하고, 범인체포는 다음으로 미루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쾌적한 사회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으로 범죄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국가적인 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즉, 피해자의 이익을 십분 고쳐주는 일도 범죄대책의 하나로서 금후 고려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중점인 것이다.





## 생 환 의 약

본 연구 비망록은 현재 미 공군 생환학교의 항공승무원 교육  
용 자료로서 미공군 환경정보국의 Linda L. Glenboski 박사  
에 의하여 편찬되었으며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및 한국전쟁  
경험을 토대로 하였다.

따라서 본 자료는 유사시 의약의 손길이 채 미치지 못하는  
상황하의 전투요원 생환능력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줄 믿는다.

- 편집자 주 -

### 1. 상처 치료를 위한 파리 구더기 이용법

1차 세계대전 중에 W.S Baer  
는 때때로 군사 응급치료소에 들어가  
기전에 상처에 구더기가 바글거리면서  
맨땅 위에 누워있는 부상병들을 보았  
다.

그는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상처들이



대위 이재규

(6547 부대)

부상 후에 신속한 치료를 받았던 상처들과 마찬가지로 심하게 감염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더우기 구더기들이 우글거리던 상처들은 그렇지 않은 다른 많은 상처들 보다 오히려 더 신속히 치료되었다.

이러한 발견들은 Baer로 하여금 1930년대 초에 Baltimore에 있는 John Hopkins 병원에서 골수염, 그리고 다른 감염상처들을 소독하는데 무균배양된 구더기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게끔 만들었다.

골수염에 대한 Baer의 구더기 치료요법은 뼈의 완전 부식상태 이후의 상처에 대해 무균배양된 유충의 사용으로 되어 있다.

치료에 사용된 구더기(유충)들은, 외형적으로는 살균상태하에서 배양된 *Phaenica Sericata*, *Lucilia Caesar*와 *Phormia Regina* 같은 파리과의 일종에 속한다.

또한 구더기 치료요법을 사용함으로써 상처들이 현저히 잘 치료되고 또 놀라울 정도까지 빠르게 회복되었다.

구더기 요법은 Baer의 후계자 Bennet, Buchman 등의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New York에 있는 병원에서 관절질환에 이용되었으며 골수염과 다른 감염상처에 치료요법으로서 적절하게 사

용되고 수용되었다.

이러한 구더기 치료법의 실제적 가치를 놓고서 어떤 연구학자들은 구더기들이 실제로 세포를 섭취함으로써 죽은 세포조직을 제거시킨다고 믿었다.

한편 다른 연구학자들은 구더기들이 죽은 세포조직 내에서 단백질을 소화한 효소들을 분비한다고 생각했다. 또 다른 연구그룹은 치료의 효율성이 구더기 추출물에 내재해 있는 활동성의 원칙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수많은 연구시간이 구더기 요법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 요소 결정을 위해 고안된 실험에 소요되었으며 이러한 모든 연구결과는 다음의 요소들이 모두 포함된 하나의 결합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첫째, 구더기들의 살균활동은 실제로 죽은 세포 조직을 제거해 준다. 구더기들은 단백질세포 조직을 유동화시키고 유동화된 단백질을 섭취한 구더기들은 액체 소화물로 배설한다.

둘째, 구더기들은 끊임없이 상처를 중화(Alkalize)시키는 탄산칼슘을 발산하고 신체의 백혈구에 의해 박테리아와 죽은 세포들이 현저하게 감소한다.

세째, 구더기들의 배설물은 요막과 요소, 건강한 세포조직의 성장을 자극

하는 요소와 상처를 신속히 케유시키는 요소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발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더기 요법의 적용은 활동성 원칙의 하나하나를 다른 원천에서 획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쇠퇴하고 있다. 요막과 요소는 합성적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으며 탄산칼슘은 천연 자원 혹은 상업적으로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합성적 생산물들은 구더기보다 더 우수하고 안전하게 되는 어떤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비록 구더기 요법이 골수염과 다른 감염상처의 의학적 전문치료법으로 더 이상 확산되어 사용되지는 않지만 보고서에 의하면 그것은 개개인의 생존연장을 위해서 특히 전쟁포로들의 상처치료법으로서 사용되어 왔다. 많은 의학자들도 전시 포로상태하에서 상처치료법의 한 방법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생존상황하에서 의학지식이 없는 개인이 상처치료를 위해 구더기 요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처가 지극히 위험상태에 놓여 있을 때에 한해서 상처에 구더기를 삽입시켜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상처가 파리들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박테리아 감염의 가능성이 있으며

파리들은 불결한 습성때문에 쉽게 상처에 박테리아를 삽입시킬 수 있다.

물론 추가적으로 합병증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일단 상처에 삽입된 구더기들은 죽은 세포가 사라지거나 즉시 접할 수 없을 때 정상적이고 건강한 세포조직을 파괴시킬 가능성이 있다. 건강한 세포조직에의 구더기 침입은 심한 고통을 야기시킬 것이며 혈관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 구더기 활동으로 손상된 세포조직은 매우 폭넓기 때문에 혈관이 수축될지도 모르며 살아있는 세포에 들어간 구더기의 제거는 외과수술로도 매우 어렵다.

따라서 상처치료를 위한 구더기 요법은 사전에 장, 단점을 모두 알고 있어야 하며 부상당한 포로나 생존자는 구더기 치료요법이 내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생존자는 스스로 그러한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최종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즉 그것은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가 없거나, 상처의 심한 감염 또는 회복이 매우 어렵거나 정상적인 치료가 불가능할 때에 한해서 구더기를 사용하는 상처치료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 2. 구더기를 이용한 상처치료절차

가. 모든 붕대는 상처가 파리들에게 노출되도록 제거되어야 하며 파리들은 감염된 상처에서 나오는 썩은 악취에 의해 유도된다. 바꾸어 말하면 파리들은 신선하고 깨끗한 상처 위에는 알을 낳지 않을 것이다.

나. 파리들에 의해 옮겨진 병원균 때문에 상처의 오염이 더욱 심각해지

는 것을 막기 위해 파리가 상처 표면 위에 직접 앉아서 안 되며 파리의 활동은 상처의 가장자리에 있는 상하지 않은 표피에 한정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곳에 낳아진 알로부터 부화된 구더기들은 파리들이 자유롭게 상처에 접하면서 부화된 구더기 보다는 덜 오염된 상태로 상처 부위로 접근할 것이다.

### ○ 파리의 성장과정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

다. 한 번에 파리들에게 노출시켜서 상처의 완전한 치료를 위한 충분히 많은 구더기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파리들이 알을 낳은 후에 더 이상 추가적으로 알이나 벌레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상처를 봉대로 덮어주어야 한다.

라. 봉대는 구더기들의 상태 관찰을 위하여 매일매일 들쳐 보아야 한다. 만약 파리들에게 노출된 후 2일 이내에 상처에서 구더기들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봉대를 제거하고 다시 한 번 더 파리들에게 노출시켜야 한다.

그러나 봉대를 제거했을 때 상처에 너무 많은 구더기가 발견되면 집게나 다른 살균된 기구 혹은 살균된 물을 사용해서 가능한 한 많은 수의 구더기를 제거해야만 한다. 상처 안에는 상처의 크기 또는 심각성 등에 비추어 대략 50~100마리 정도의 구더기만을 남겨 두어야 한다.

마. 일단 구더기들이 상처 안에 군집하게 되면 다시 봉대로 덮어주고 구더기들의 활동을 매일매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구더기들에 의해 생긴 거품으로 된 액체는 구더기들의 식별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상처

안에 있는 모든 구더기의 상태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가끔 흡수성이 강한 헝겊으로 닦아내야 한다. 이 때 액체와 함께 구더기들이 제거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바. 상처치료를 위해 필요한 기간은 상처의 깊이와 정도, 상처부위, 상처에 존재하는 구더기 수, 파리의 종류 등 다수의 요소에 의해 정해진다.

그러나 생존상황하에 있는 인간은 이러한 요소들 중에서 단지 구더기의 숫자 정도 만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며 때로는 그것조차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또한 구더기들을 제거하는 정확한 시기 즉 특정시간이나 특정일수를 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일단 구더기들이 상처부위의 모든 죽은 세포조직을 제거하고 다시 건강한 세포조직에 파고들기 전에 즉시 제거해야만 한다.

구더기들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세포조직에 번식하기 시작하면 부상자는 구더기들이 살아있는 신경과 접촉하게 됨으로써 상처부위의 고통이 증가될 것이다. 상처에 밝고 붉은색의 피가 비치는 것은 구더기들이 죽은 세포를 제거하고 건강한 세포조직에 접근했음을 의미한다.

사. 구더기들은 살균된 물을 상처에 반복해서 부음으로써 제거할 수 있다. 모든 구더기들이 제거되었을 때에 상처는 붓대로 감아야 하며 상처의 구더기가 완전히 제거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 수일에 걸쳐 매일 4 시간 혹은 그 이상 상처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남아있는 구더기들이 있다면 다시 살균집게나 살균수를 쏟아붓는 방법으로 제거해야 한다.

아. 일단 상처에서 모든 구더기들을 제거하고 나면 형질으로 감고 다른 상처와 마찬가지로 치료되어야 하며 다른 합병증없는 상처처럼 정상적인 치료가 될 것이다.

### 3. 환경정보국의 전쟁포로 귀환보고

“그들은 분명히 상처를 깨끗이 보존하면 그것이 나을 뿐 아니라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그들 스스로 상처에다 구더기를 집어넣었다. 그 결과 상처가 깨끗해지고 어떤 것 보다도 더 좋은 효과를 낸 것이었다”(2차대전 당시 일본군에 포로가 되었던 “MOSS”의 보고서에서)

“아주 심각한 오염이었다. - 그는

붕대를 풀어내고 파리가 알을 낳도록 하였으며 곧 그의 팔에 구더기가 득실거리게 되었다. 그는 구더기가 썩은 살을 전부 제거하도록 놔 두었다가 구더기들을 제거하기 위해 자신의 팔에 오줌을 누었다”(환경정보국 연구 비망록 No.7, 1975년 12월 서남아시아 포로수용소에 억류되었던 미전쟁포로들이 사용했던 야전생활 의료기술).

### 4. 의사들의 논평

한국전쟁시 생포되어 전쟁포로로서 생존했던 미합중국 육군 군의관 Gene. N. Lams 소령은 포로생활 중 상처소독을 위한 구더기의 이용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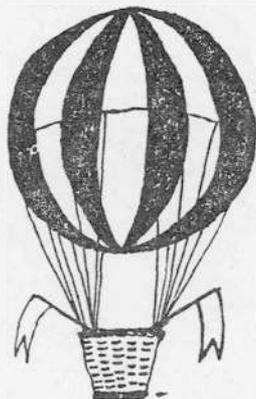
“구더기는 1차 세계대전 중에는 감염상처의 승인된 치료법이였으며 오직 죽은 세포조직 만을 먹어치우기 때문에 수술을 제외하고는 그 무엇보다도 훌륭한 상처치료법이 될 것이다”(1970년 8월 미합중국 육군 비행학교, 항공의학 교육훈련 보고서 “생활의 의학적 측면”)

1977. 8.19일 뉴욕에 있는 Northern Westchester Hospital Center의 군의관 William M.

Smith 중령도 역시 다음과 같이 전쟁포로 상황하에서의 부상 소독을 위한 구더기의 이용을 권장했다.

“포로생활 중의 깊게 열려진 상처에는 빈번히 구더기가 생길 것이다.

물론 이들 구더기를 제거해 내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태도이겠지만 실제로는 구더기가 죽은 피부를 제거해 상처를 청소하는 일을 훌륭히 해낸다.



# 핵무장이

## 우리에게 주는 갈등

### 1. 核擴散의 問題

우리 생활에 있어서 필요악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 많지만 핵무기만큼 그 표현이 적합한 것은 없으리라고 본다. 핵전력의 보유는 전쟁의 억제라는 평화적 측면과 핵의 공포라는 파괴적 측면이 동시에 상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1950년대 이후 미·소를 중심으로 한 냉전 및 화해 체제를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한편 세계각국의 핵선포에 따른 핵확산의 고민과 경쟁적인 핵무기 개발의 노력은 인류의 종말까지도 경고하는 핵공포의 현실화를 가져왔던 것이다. 특히 핵보유는 습목적의 아닌 돌발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으며 1979년 트리마일섬(Three mile island)의 핵사고와 1986년 4월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사고는 많은 피해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



중령 남 상 열  
(3526 부대)

1950년 전남 화순에서 태어났다. 사후 63기로 임관했고 국방대학원 안보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야전정비대대 대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100개국 이상의 국가가 핵 확산 금지조약(Non proliferation treaty)에 가입되어 있고 기타 국가들도 대부분 국제원자력 기구의 안전조치를 지키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다행스런 일이다.

### 2. 核武器 開發條件

오늘날 중소국가에서 핵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반드시 전쟁억제수단과 通常戰의 효율적 수행이라는 측면 뿐 아니라 국제정치속에서 자국의 위치확보라는 측면에서 더욱 증대되고 있다. 또한 핵무장에 대한 욕구를 더욱 높여주는 것은 원자력 발전이 에너지 활용면과 경제성에서 볼 때 더 효율적이고 그 폐기물로 나오는 핵물질이 바로 핵무기 제조시 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 발전은 1985년 말 기준으로 32개국에서 총 3백74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핵무기는 미국·소련·프랑스·중공·인도 등 6개국이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는 1978년 4월에 건설된 古里1호기를 시발로 하여 현재는 총 6기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과 같은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은 자본, 기술의 도입과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몇가지의 문제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핵발전의 폐기물을 이용하여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고 핵폭탄의 제조, 운반수단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의 축적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핵원료의 문제로서 우라늄의 확보 또는 플루토늄의 생산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나 핵무기확산 금지조약에 가입되

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우라늄(U<sup>234</sup>, U<sup>235</sup>)은 일정하게 공급받을 수는 있겠으나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우라늄(U<sup>238</sup>) 또는 플루토늄(P<sup>239</sup>)을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셋째, 정치적 문제로서 기존 핵무기 보유국가 이외는 핵무기의 제조 및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핵무기 확산 금지조약”의 명분없는 탈퇴는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고립을 감수해야 할 것이며 만일 자국의 능력으로 핵무기를 보유할 시는 인접 및 적대국에 대한 핵무기개발에 대한 명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또한 핵확산을 불가피하게 초래한다는 점에서 정책결정을 신중하게 해야 하는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3. 韓國의 核武器開發 水準

핵무기를 획득하고자 하는 욕망은 중소국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며 한국의 경우는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핵으로 가는 길에 대하여 많은 찬성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무장을 자극하는 요인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미국의 한국 방위태세가 유동적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핵

무장 수준은 어느 정도 일까? 정부의 공식발표가 없는 한 정확한 답변은 어렵겠지만 관련자료를 분석해 볼 때 핵기술문제는 어느 정도 극복되었다고 판단되나 핵원료와 정치적 결정문제는 미결인 것 같다.

1962년 원자력연구소(ATOMIC RESEARCH INSTITUTE)를 설치하고 미국의 지원을 받아 250킬로와트의 연구용 원자로를 건설한 것을 시작으로 1971년에는 역시 미국의 지원하에 2메가와트 원자로가 건설되어 동위원소와 방사선을 생물 및 농업에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게 되었다. 1977년에는 연구소의 자치기관으로 한국핵공단(KOREAN NUCLEAR ENGINEERING)이 설립되어 발전소 건설, 부품조립 및 산업에의 이용 등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한편 1970년대 초에 주한미군의 철수론이 대두되면서 한국정부는 비밀리에 「핵무기개발 위원회」가 발족하여 핵무기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핵개발의지는 미국의 설득과 방해로 인하여 계획이 일단 유보되었으나 기술축적은 계속 이루어져 현재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된 것으로 예상된다.

#### 4. 韓國의 核武器開發의 問題點

한국의 핵개발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핵원료의 확보문제이다. 한국은 충북 괴산지방에 규모가 약 7,460톤 정도되는 우라늄광을 가지고 있으나 순도가 0.04% 밖에 되지 않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핵원료는 대부분 저농축 우라늄으로서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일부 천연우라늄은 캐나다에서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핵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고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의 확보대책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하나는 핵무기 제조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정치적 문제해결의 어려움이 있다. 즉, 국제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핵확산 금지조약의 이행과 한반도 주변 4대강국의 세력균형의 유지 및 북한과의 적대적 대립관계가 한국의 핵개발 정책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5. 韓國의 核武裝時 利點

한국은 1975년 핵무기확산 금지조약에 조인하였으며 핵개발 계획은 단지 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에만 제

## 군사지식

한되고 있지만 여타 중소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어떠한 이점이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확고하고도 결정적인 보복수단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안전보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우위적 군사력과 대남혁명전략에 의한 전쟁위협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억제」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전력강화라는 국방비 부담에 있어서 핵무장에 따른 일시적으로 많은 군사비가 투입되어야 하나 장기적으로 볼 때 통상전력의 유지보다도 경제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째, 외교적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크게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인도의 경우 핵실험의 성공은 과학기술의 과시 뿐 아니라 국제적 지위를 강국으로 끌어 올리는데 크게 기여하였던 것이다. 특히, 핵무기의 가공할 만한 파괴력은 수량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적대국에 대하여 국가존위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결정적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6. 韓國의 核武裝時 不利點

서두에서 핵전력을 필요악이라고 표현했듯이 한국의 핵무장에 따른 불리

점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국제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핵무기 확산금지조약으로부터의 탈퇴는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둘째, 북한의 핵무장을 자극하고 소련 및 중공으로 부터의 핵지원 구실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세째, 한반도 주변 4대강국중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일본의 강력한 반대와 핵무장을 촉진하게 될 것이며 미·소의 대결이 마치 동·서독에서의 核武器配備와 같은 경쟁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네째, 핵전력의 의존은 통상전력의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한반도와 같은 조밀한 지형에서는 핵무기의 선별적 사용이 어려운데 통상전력의 약화는 결정적 승리의 보장을 어렵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 7. 結 論

중소국가의 핵무장은 세계적인 관심사이고 핵확산금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핵무기 제조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되어 있고 비공개된 원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핵원료

를 공급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의 허락없이 핵폐기물로부터의 플루토늄을 추출해 낼 수 없기 때문에 핵개발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여건의 변화에 따라 한국이 핵무장을 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는 긍정적인 기여를 하겠지만 한편 몇가지의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한국의 핵무기 개발 거론이 북한으로 하여금 남침구실을 제공할 우려가 있으며,

둘째, 소·중공으로 하여금 북한의 지원을 더 적극화시키며

세째, 한국은 미·일을 포함한 국제적으로 외교적 고립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정적 제약요소를 극복해 나가면서 원자력발전을 중심으로 한 평화적 사용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핵기술의 축적은 물론 북한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비하여 자체능력 확보에 부단히 노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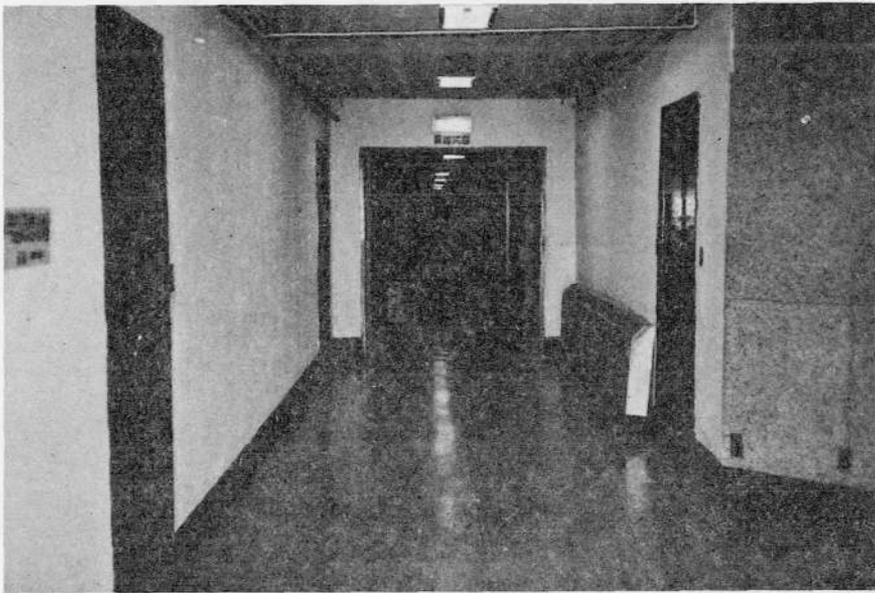
### 참 고 도 서

1. 한국의 핵에너지와 핵정책에 대한 연구, 국방대학원, 1984.
2. 핵개발과 핵확산금지정책, 국방대학원, 1983.
3. 한국과 대만의 핵문제, 국방대학원, 1981.
4. 중급국의 핵개발정책 및 전략이론과 한국의 핵정책의 방향연구, 국방대학원, 1983.



## 순백색의 Cap

편집실



“나는 나의 일생을 순결하게 살며 내 직무에 충실할 것을 하느님과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서약하나이다.

남에게 해로운 일은 무엇이나 하지 않겠으며 해로운 약인줄 알고는 자기나 남에게 쓰지 않겠습니다. 간호사업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나의

전력을 다하겠으며 나의 직업상 알게 된 내게 맡겨진 사람들의 개인적 비밀이나 가족에 관계된 일에 대해 신의를 지키겠나이다. 나는 성심으로 의사와 협조하여 내게 맡겨진 모든 사람의 안위를 위해 이 몸을 바치겠나이다.”

인간이 태어나서 인생을 사는 동안 자신의 생애를 걸고 한 일에 투신하겠다는 뜻있는 예식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이 서약문은 간호사들이 희생과 봉사를 상징하는 하얀 촛불을 가슴에 안고 자신의 젊음을 인류봉사의 길에 바칠 것을 엄숙히 다짐하고 그들의 상징인 순백색의 Cap을 머리에 올리며 드리는 서약문이다.

국군 간호장교!

그들은 지난 40년간 60만 국군의 건강안내자로 항시 우리의 곁에 있어 왔다. 전란의 와중에서도 연약한 여

성의 몸으로 절해고도와 변방을 누비며 포연탄우 생사간을 우리와 함께 해 온 오랜 전우였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외형적 모습만 느낄 뿐 과연 그들이 어떤 생활을 하며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사실적인 참모습을 바라보는 시각은 극히 제한되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같은 유교적 전통이 뿌리깊은 나라에서는 여성의 미덕을 내적인 측면에서만 강조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연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고정관념이 되어버린 여성의 행복론은 가정이란 소우주에 여성을 가두어 두고 그 안에서만 자아실현을 요구하는



공사 1학년생도의 체온을 Check 하고 있다.

## 탐방기획

편협함이 암암리에 잔존해 왔다. 이러한 기본틀 속에서 군인들만을 대상으로 일하는 여성, 특히 인간이 가장 처참하게 상해받고 쓰러지는 전쟁수행의 과정에 참여하는 간호장교들에 대한 인상은 그들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애국심을 인정하면서도 별스런 대상으로 생각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기자 역시 그런 류의 선입관을 가지고 찾아간 수도병원의 간호장교들은 기자의 성급한 판단과 근거없는 사고들을 새롭게 정리해주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올해로 국군에 간호병과가 창설된 지만 40주년을 맞는다. 이 시점에서

그들의 양지와 음지를 조명해 보는 것은 타분야에 종사하는 동료들에 대한 이해라는 측면에서 뜻깊은 일일 것이다.

### 〈마지막 도움의 손길〉

의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반드시 전쟁의 참상을 겪은 이후에 이루어졌다.

간호사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나이팅게일 역시 크리미아 전쟁에 참전한 간호사였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의 역사를 더듬어 보는데 있어서 군 간호장교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필연적인 접근방법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간호병과 역사는 1948

인공신장기치료



년 8월 조선통위부에서 자격간호원을 모집한 것이 첫 근거를 이룬다. 이후 곧 간호장교단이 발족되었으며 이는 창군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성이 국방에 참여한 획기적인 사실로 주목된다.

당시 전국의 감격과 의욕 속에 사회 각 분야의 자생움직임은 드높았으나 기본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조직을 구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리 공군도 L-4 10대를 전 장비로 하여 공군을 구성하였으니 당시의 어려움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48년 간호장교단이 발족된지 두 달만에 발생한 여순반란사건과 개성웅진전투에 간호장교들은 즉각 투입되어 전상자 간호에 참여했다. 이어 발발한 6.25전쟁에서도 그들의 역할은 엄청난 전력의 격차로 낙엽처럼 쓰러져야 했던 국군장병들에게 마지막 도움의 손길이었고 그들이 다시 상처난 몸을 추스리고 전투에 참가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해 주었다. 종전 이후 간호장교단은 우리나라 간호사 역사상 처음으로 마취, 간호행정 등의 전문분야 습득을 위한 미국과견교육을 실시해 신기원을 이룩했다. '64년에는 월남전에 전상환자, 간호를 위한 의무지원을 실시했고 '66년 간병과로

승격된 이후 정예화된 간호장교 양성을 위해 현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전신인 국군간호학교를 신설했다.

6.25 이후 두번째 전쟁인 월남전에 참전한 간호장교들은 특히 공군과 더불어 항공간호업무를 통한 파월전상자 후송에 큰 공헌을 하게 된다.

'83년에는 국제적십자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간호사 최고의 명예인 나이팅게일 기장을 전금자대령이 수상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국군간호장교들의 전문분야에 대한 높은 기량과 활약상이 인정받게 되었다.

#### 〈누이처럼, 어머니처럼〉

그들의 입대동기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 단 한 가지의 공통점은 그들은 유니폼과 명예와 봉사를 사랑하며 간호장교를 동경했다는 점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간호장교 훈련과정은 국군의무사령부 산하 간호사관학교의 4년 정규과정과 일반 간호전문대 및 대학을 졸업한 미혼여성들의 자원입대를 받아 8주간의 기본훈련을 마치고 임관케 하는 간호장교 후보생 과정의 두 가지 system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간호사관학교는 지금까지 18기 사관을 배출했으며 1기생이 현역 대령까지 진급하여 실질적인 임상간호업무를

## 탐방기획

총괄하고 있다.

간호장교들의 하루일과는 24시간 그 모두를 활동영역으로 두고 있다. 공군개념으로 Crew 근무제라 할 수 있

기되기 쉬운 각종 안전사고로 신체의 일부에 중대하거나 경미한 상처를 입은 환자들에게 정상회복을 위한 보호자적인 역할이었다. 수술실에서 의사



환자를 따라 웃게하는 그들의 상냥한 웃음은 가장 훌륭한 치료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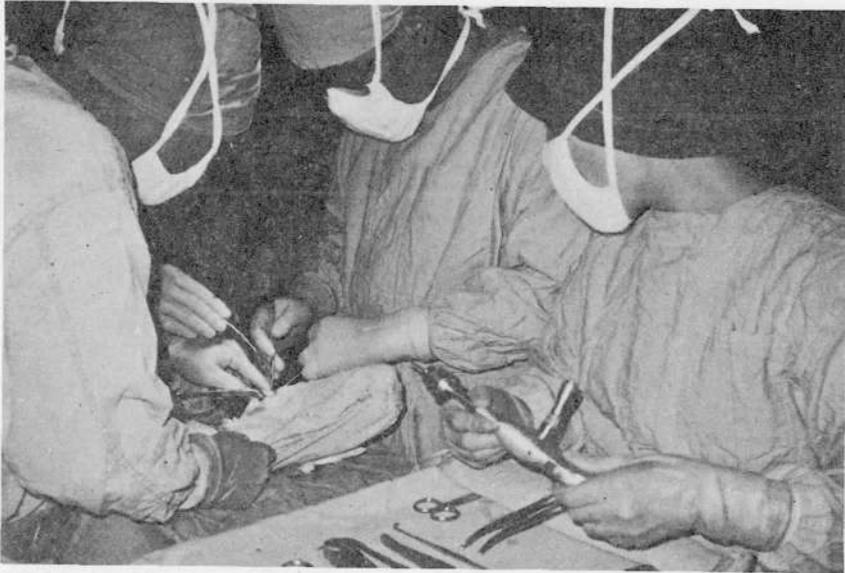
는데 이러한 어려운 근무조건에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고 화사한 미소로 환자들을 대하는 그들의 모습은 어떠한 투약보다도 환자들에게 힘이 되어 주는 것 같다.

옆에서 지켜 본 그들의 주된 일은 정상적인 인간임을 고집하고 싶으나 기본적인 생리 및 사고작용까지 잠들어 버린 중환자부터 병영훈련 중 야

의 원활한 수술진행을 위해 기구를 집어주고 집도의 얼굴에 땀을 닦아주는 모습만을 상상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다. 환자들을 씻기고 먹이고 부축해주고 편히 잠들게 돌봐주는 누나같은, 어머니같은 일면들이 더욱 중요한 부분인 것이다.

〈생명의 등불을 지키며〉

의료인과 환자와의 사이더라도 인간



팀웍이 가장 뛰어난 외과수술 Team

과 인간의 만남이기에 따뜻한 정과 사랑이 환자치료에 큰 변수로 작용한다.

이런 점에 있어서 직업의식이 밀반침해주는 친절과 상냥함은 간호장교들이 다른 간호사들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다고 느껴졌다.

그들의 열성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진행은 국가를 위해서나 병원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본인들이 상처받은 동료들에게 다시 힘과 용기를 준다는 직업적 만족감에 기인한다고 피력하는 장교들이 많았다. 전문분야로 나뉜 각 병실마다 많은 간호장교들이 분주히 일하고 있었지만 특히 중환자실의

전경은 기자에게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겨 주었다.

생명의 등불이 꺼져가는 환자들은 보기에도 안타까운 모습이었고 이런 환자들 사이에서 오헨리의 마지막 잎새에서처럼 마지막 남은 잎사귀를 지키기 위한 간호장교들은 백의의 천사라는 애칭 그대로 생명을 지키는 천사가 되어 환자를 괴롭히는 죽음의 그림자와 최선을 다해 싸우고 있었다.

#### 〈금지과 자부〉

국가안보의 절박성으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의무복무를 하고 있다. 이



중환자 실에서의 간호장교들은 한순간도 긴장을 풀 수가 없다.



투약중인 간호장교

과정을 건강하고 무사히 마치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다치고 병들고 허약해졌을 때 군인도 인간인 이상 쉽게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이때 간호장교들은 푸른 제복을 입은 동질감과 전우애로 환자들의 피폐해진 마음과 상를 어루만져 주고 건강한 발걸음으로 복귀하는 그들을 보며 일반 간호사들과는 다른 간호장교들만이 느끼는 보람 즉 무형의 전투력 증진의 일익을 담당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된다.

〈 숨겨진 모습들 〉

일과 후 자유시간에 본 간호장교들은 특수한 임무와 역할에 대조되게 그들 역시 평범한 여성임을 쉽게 느낄 수 있었다. 정결하고 깨끗하게 단장한 N.O.Q(간호장교 숙소)의 모습과 미혼장교들이 교대로 만드는 식사준비 시간을 앞둔 젊은 여성들 특유의 정성이 가득담겨 있었다. 업무의 대부분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아픔을 평안으로 바꾸는 작업이기 때문에 정서



적으로 메마르기 쉬운 여건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만

의 공간엔 음악, 노래, 웃음 그리고 잔잔한 장난기(?)들이 곳곳에 고무

풍선처럼 매달려 있는 듯 했다. 아마 이러한 낭만적이고 감성적인 분위기들이 그들을 격심한 업무로부터 여성스러움을 지켜주고 그러한 여유로운 여백을 갖고 있기에 명예로운 계급의 의미를 인정하는 군인의 모습과 섬세한 손끝으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표출하는 여성의 모습을 동시에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다.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젊은 장교들에겐 전방근무와 24시간 대기근무가 혼기를 놓치는 주요인이란다. 더구나 아직까지는 간호장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마저 부족한 형편이어서 결혼에 관한 심적 부담감이나 갈등이 젊은 여성으로서의 어려움 중의 하나다(물론 이러한 제한요소를 주목하는 것이 사랑의 묘미일테지만 말이다). 그러나 그들은 장기간 봉사할 각오와 군인으로서의 직업의식이 이미 갖추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제한요소는 별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제대 후의 간호장교들은 교육계와 의학분야의 행정요원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가난한 농촌의 말단 보건소 진료요원으로도 많이 참여하는데 이것은 희생과 봉사의 기본 바탕이 그들의 심성에 깊이 정착되었기 때문이다.

상처입은 이들이 고통스런 아픔속에 혼자임을 느끼며 괴로와할 때 환한 미소와 다정한 속삭임으로 따뜻하게 보살펴 줄 전우가 있다는 사실은 새롭게 일어나서 조국의 변방으로 떠나는 장병들에게 커다란 위안임에 틀림없다.

#### 〈헤아릴 수 있었던 것들〉

아직까지 여러 제도상의 문제로 공군 간호장교는 없지만 비행군의관 제도와 더불어 항공간호분야는 이미 오래전부터 훈련보급되어 왔다. 그들의 이야기로는 임무특성상 모든 부서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군에서도 공군간호장교 양성 문제도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며 항공간호부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물론 길지 않은 취재시간이었기 때문에 생소했던 조직을 완벽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작은 돌을 던져서 물결의 깊이를 헤아릴 수 있듯이 기자의 인터뷰에 성의껏 임해주신 간호부장 김순규 대령님과 안내장교들을 통해 그들의 생활과 군인으로서의 철학을 접할 수 있었다. 여기에 덧붙여 그들이 군인임을 나타내주는 계급장 뒤에 숨은 평범한 여성으로서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도 지

나칠 수 없는 기쁨이었다. 진중에서  
늘 우리의 건강을 보살펴주는 간호장교

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빌  
어본다.



## 항공간호장교

### 1. 등 기

대위 신 영 애  
(수도통합병원)

언젠가 생도시절 국립묘지 참배를 할 기회가 있었다. 그곳에서 월남전에서 환자후송 도중 전사하신 선배님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무척 인상깊었던 적이 있다. 임관 후 간호장교로 근무하면서 좀더 독립적인 간호업무를 해보고 싶은 욕구와 아울러 우주의학과 항공간호업무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다.

### 2. 교육과정

처음으로 비행간호장교의 정식훈련이 시작된 것은 Kentucky의 Boromon Field에서였다. 이때 4주일 과정으로 행하여졌던 것을 근거로 하여 현재도 4주간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1일 8시간 교육이며, 1주째는 전반적인 공군의 조직 및 특성, 항공생리, 대기권의 물리 등 전반적인 오리

---

1961년 서울에서 출생했다. '82년 간사 14기로 임관한 간호장교다.

엔테이션과 아울러 기초체력 훈련이 있다. 기초체력 훈련에는 15kg에 달하는 낙하산을 메고 구보하는 것과 막타워 점프 및 지상에서의 착지훈련, 저압 및 고압실 적응훈련 비상탈출훈련 등이 포함된다.

2, 3주째는 항공후송에 대해서 각 환자별 분류 및 비행 중 응급상황, 간호상의 문제점에 대해 공부하며 비행착각, 비행의 특징과 심리 등 각종 비행원리 및 항공기상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마지막 4주째는 부산의 김해공항에서 일주일간의 현지적응훈련 및 실습을 하게 된다. C123, C54 등의 수송기를 이용해 환자적재



항공생리 훈련중 동료들과 함께

방법 및 분류, 위치설정, 탑승순서 등 기타 행동절차를 실제 경험을 통해 익히게 된다.

### 3. 보 략

일단 공중근무자(조종사, 항공군의, 관측장교 등)의 애로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어느 직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항공기내에서의 환자간호는 Team Work 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원만한 대인관계, 책임감, 지휘능력 그리고 어떤 환경하에서도 조용하고 능력있게 행동할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4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 세르반테스의 돈끼호테

### 1. 형식과 문체의 자유, 그리고 돈끼호테

많은 사람들이 현대소설을 이야기할 때 어렵다고들 한다. 왜, 무엇때문에 어렵다고 느끼는 걸까? 바께로 고야네스는 現代小說의 구조라는 자신의 책을 통해 “오늘날의 모든 小說家나 評論家, 理論家들이 소설의 구성상에 있어서의 융통성 그리고 작법의 자유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한 의견의 일치로 보여주고 있다”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 점에 대해 어떤 식으로 의견이 일치되고 있는지 “앙드레 지드”의 소설속에 주인공 입을 통해 들여보자; 소설이라는 것이 모든 문학장르 중에서 가장 자유롭고 일정한 법칙이 없는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뜻하는 것은, 소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 특히, 현대소설에서 - 자유로운 형식과 이에 바탕을 둔 자유로운 내용이라는

중위 남 진 희

(공군사관학교)

1960년 전주에서 태어났다. 외국어대학 및 동대학원에서 서반아어를 전공하고 공사 외국어 교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것과 일치한다. 즉 근대소설에 있어서의 線的인 “이야기 전개” 형식을 지양하고 독자의 창의적인 참여와 상상력을 요구하는 형식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설가가 소설속의 모든 사실에 통달하여 독자에게 일일이 간접하여 독자의 思考方向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게 아니라, 독자와 소설 각각의 자유를 인정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독자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思考와 상상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이 현대소설이 어렵다는 이야기의 가장 큰 要因이 아닐까? 단순한 독서 다시 말해서 소설

가가 제시하는대로 따라다니기만 하다 보니 이렇듯 자신의 고유한 의견을 요구해 오는 현대소설에 당혹감을 느끼는게 아닐까 싶다. 그러나 독서의 본질이 창의적인 사고력 증진에 있음을 비취봤을 때 과연 어느쪽이 바람직한지는 너무도 자명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서구 현대소설은 바로 “세르반테스”에서 비롯된다.

그의 소설들 - “모범소설집”(Novelas Ejemplares)과 “돈 끼호테” - 은 그 당시까지 유일한 아름다운 세계로 간주되고 있던 서사시적인 꿈이나 상상, 그리고 영웅적인 모험담 따위를 나열하는 단순한 線的進行에서 벗어나 좀 더 복잡하고 직접적인 현실의 도전을 직면할 수 있게 만드는 상황을 전개시킨다. 즉 “돈 끼호테”에서 나타나듯이 기존의 기사소설에서는 볼 수 없는, 현실과의 충돌속에서 빛어지는 적나라한 인간의 갈등을 복합적인 시각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 2. “현실과 환상의 접합”과 모호성

영국의 評論家 엘리오프트는 “구라파 사람으로 “돈 끼호테”를 읽어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사람은, 제대로 교육받았다고 할 자격이 없다”라고 이

야기하였다. 이 말은 “돈 끼호테”라는 작품이 서구인들의 精神生活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단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다.

사실 “돈 끼호테”는 성서 다음으로 많이 출판되었고 읽혀졌으며, 시대와 계층을 막론한 모든 사람에게 환영을 받아왔고 환영받은 이유 역시 가지각색이었다.

그만큼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의미는 폭이 넓고 다양한 것이다.

理性을 제일 重視한 17세기에는, “돈 끼호테”는 일종의 환상적인 笑劇에 지나지 않았다. 하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돈 끼호테”에 가득찬 笑劇的인 要素에 빠져 이 작품을 즐기기도 한다. 이러던 것이 良識을 중시 여기던 18세기에 들어와서는 양식에 어긋난 짓을 하는 모자란 사람에게 대한 풍자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풍자는 어떤 이유에서건 단순한 笑劇과는 다르다. 즉 그 안에서 교훈성을 찾았던 것이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흐른 19세기에선 “돈 끼호테”를 일종의 낭만적 영웅으로 간주하기에 이르렀다. 다시 말해 “돈 끼호테”는 현실에만 집착하는 세속적인 인간들에게 박해를 받고 오해를 받는 理想主義者로 여겨진

것이다. 양식에 어긋나는 어리석은 18 세기의 “돈 끼호테”는 理想과 現實의 갈림길에서 비극적 투쟁을 벌이는 숭고한 영웅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현대, 20 세기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게 된 점은 아무래도 궁극적인 모호성이 아닌가 싶다. 즉 세르반테스는 “돈 끼호테”의 독특한 전개방식을 통해 現實과 幻想, 論理와 非論理, 비극과 희극, 지혜와 아둔 따위의 정반대되는 상황을 적절히 接合시켜 놓음으로써, 희한한 平衡을 이루며 독자로 하여금 안개속을 헤메이는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현실과 환상, 논리와 비논리, 정상과 비정상을 논의할 때 가장 먼저 문제시해야 하는 점은 “돈 끼호테”의 정신상태이다. 다시 말해 과연 미치광이인지 아니면 단지 미친 체 하고 있는건지가 논의의 초점이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작품 곳곳에서 유사한 意見이 나타난다.

먼저 “산초”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정신 말짱한 미치광이, 아니면 미치광이는 미치광이인데 뭔가 똑똑한 구석이 있는 미치광이 기사, 다른 곳에서 아버지 “돈 로렌조”의 질문에 아들은 “돈 끼호테”를 이렇게 평했다;

그분은 가끔 그끔씩 정신 말짱한 말 씬을 하시긴 하지만 반쯤은 미치광이 같아요. 그렇다면 반쯤 미치광이라고 했는데 어디까지가 미치광이고 어디까지가 정상일까? 이에 대한 또 다른 목소리를 들어보자; 기사도 문제만 나오면 넌센스를 보이다가도 다른 이야기를 할 때면 확연하고 침착한 思考를 보여주곤 했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봐, 기사도라는 것이 행동에 의한 실천을 기본덕목으로 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기사도에 미친 “돈 끼호테”가 벌린 일련의 행동들은 미치광이 짓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바로 여기에서 현실이 환상으로 둔갑하게 되는 기본패턴이 발견된다. 선량한 노친네 “알론소 끼하노”(“돈 끼호테”의 본명)가 아마디스와 같은 傳說的인 기사와의 접신을 통해 理想을 추구하는 데서 현실과 환상의 교차 내지는 접합이 이루어진다. 다시 이야기해서 그가 읽었던 기사소설의 세계를 현실로 풀어다 놓는 과정, 특히 기사소설에서 접한 마술사의 세계를 믿고 마술사에 대한 피해망상증에 걸려있는 그의 의식속에서 한층 구체화된다. 자기를 질투하는 마술사의 둔갑술과 기사소설을 현실로 받아들이려는 그의 狂症이 환상의 세계를 만

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환상적인 요소를 가 일층 부각시키는 것은 현실이다. 현실과의 대비없는 환상이란 환상 그 자체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리며 하나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아니면 단순한 기괴스러움에 머물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돈 끼호테”에서 배경을 이루고 있는 구체적인 사물들, 예를 들어 풍차나 여인숙, 그리고 반복적으로 현실을 상기시켜 주는 “산초”나 작중 話者의 역할이 “돈 끼호테”의 모험 즉 환상체험을 더더욱 강조해 주고 있다. 그럼 이것을 양떼와의 싸움장면(1부 18장)을 통해 살펴 보자.

가. 현실에 대한 話者의 說明

지금 그가 본 먼지 구름은 양떼들이 서로 마주보고 몰려오면서 내는 먼지였는데, 먼지때문에 가까이 올 때까지 무엇인지 잘 볼 수가 없었다.

나. 돈 끼호테의 임의적인 해석

“돈 끼호테”는 그것을 의심할 바 없는 굉장한 군대라고 단정하였다.

다. “산초”의 현실지적

“주인님, 경칠 놈의 사람이고, 거인이고, 기사고, 주인님이 말씀하시는 놈들이 어디 눈에 뵈니까? 딴 사람들은 몰라도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中略 제 귀에 들리는 건 암놈 숫놈 양떼가 시끄럽게 울어대는 소리뿐인데요”.

라. “돈 끼호테”의 否認과 모험 돌입

“자네는 겁이 나서 올바르게 듣도 보도 못하는거야. 겁이 나면 감각기관이 교란되어서 사물이 얼토당토 않게 보이기 마련이거든”하고는 암양떼의 가운데로 돌진하여 실제로 원수들을 무찌르는 것과 같이 용기와 담력을 다하여 양떼를 찌르기 시작했다.

마. 모험의 실패

바로 이 순간 돌이 날아와 그의 옆구리를 치는 바람에 갈빗대 두 개가 몸속 깊숙이 박혀버렸다.

바. 마술사에 대한 돈 끼호테의 저주

내 원수인 마술사놈이 사물의 모양을 변화시키는 재주는 기가 막히거든 나를 괴롭히는 이 못된 마술사가 내가 이번 싸움에서 분명히 얻게 될 명예가 탐이 나서 적군을 양떼로 바꾸어 버린거라네.

이를 分析해 보면 현실과 “돈 끼호테”의 狂症에서 비롯된 환상이 어떻게 조합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가” “다” “마”의 현실과 “나” “라” “바”의 환상이 교차 배합되면

서 환상을 현실속으로 그리고 현실을 환상으로 뒤바꿔 놓고 있는 것이다.

즉 현실과 환상이 하나의 고리를 이루며 서로 연계되어 진행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실과 환상이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고 있는게 아니라 불분명한 한계속에서 서로 교차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현실과 환상이라는 문제를 좀 증폭시켜 보면 소설이라는 가공의 세계와 세르반테스가 살았던 時代 즉 현실과의 접합이 나타난다. 모든 소설은 나름대로의 사실성이 있고 그것이 역사소설이나 사실주의 문학장르에서는 더욱 두드러진다. 이들 사실주의 소설들은 현실을 모방하면서도 그것이 가공된 현실이라는 점을 최대한 숨기고 있다. 즉 많은 경우 “사실이라는 또 다른 환상”을 조작하는데 온 정력을 쏟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 역시 “돈 끼호테”와 같은 환상적인 소설에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작품속의 話者는 가공의 세계를 독자에게 제시해 주는 주인공인데 이러한 話者가 이끄는 가공세계 속에 세르반테스가 살고 있던 시대의 구체적인 현실을 대두시키고, 이것이 소설속의 가공된 사실과 구별되지 않게 만들어버릴 때 우리는 소설을 읽는건

지 그 당시의 평론이나 신문 따위를 보는건지 당황하게 된다.

더우기 세르반테스가 작가가 아닌 작중인물로 둔갑하고, 사실이 가공의 세계로 뛰어들고 가공이 사실로 변화된다; 이발사와 신부가 뒤지던 돈 끼호테의 서재에서 세르반테스의 소설 “갈라테아”(Galatea)가 발견된다. 신부가 이에 대해 評하기를 “세르반테스라는 이는 몇년 전부터 나의 막연한 친굴췌. 그 친구는 문학보다 불행에 더 이끌이 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책은 상당히 독창적인 데가 있어” 이러한 要素는 이부에서도 많이 나타난다. 이부 곳곳에서 나타나는 “돈 끼호테”의 일부와 모조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어느 여인숙에 들렀던 돈끼호테는 옆방에서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된다. 그가 읽고 있던 책에 돈 끼호테가 이제 돌시네아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옆방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즉 이부에 나오는 돈 끼호테 일부와 모조판들에 대한 評들은 모두 사실세계의 이야기들인 것이다.

이와 같이 사실이 가공의 세계로 들어가고 가공의 세계는 마술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로 변화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독자인지 아니면 작중인물인지 모르는 착각의 세계에 처해 있음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더욱 부추기는 것은 작품 전반에 깔려있는 모호성이다.

모호성은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작가가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세르반테스는 일부 팔장에서 자신은 두번째 작가라고 밝히며 뒤로 한발짝 물러서는 것이다. 그의 말대로 한다면 “돈 끼호테”의 원작가는 아랍인 역사가인 “시데 아마테 베넹헬리”이고 이것을 번역한 사람이 따로 있고 자신은 그 번역을 스페인어로 정리만 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번역상에 있어서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은근히 드러내며 작품을 한층 안개속으로 밀어넣는다. 여기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학자; 돈 끼호테 기사님이 저 아래 내려가 계신 시간은 아주 짧은데 어떻게 것처럼 많은 걸 보고 듣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돈 끼호테; 내가 내려간지 얼마나 됐지.

산초; 한시간 남짓 될까요.

돈 끼호테; 그럴리가 없지 내가 거기있는 동안 밤이 되었다가 날이

밝았고 이러기를 세 번이나 반복했으니까

산초와 돈 끼호테의 공방에 대해 원작자가 끼어들어, 번역문제와 어울려 더욱 모호하게 만든다.

해설; 나는 앞장에 기록된 사실을 문자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중략) 그렇지만 돈 끼호테가 거짓말을 했으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 중략 그러므로 이 모험이 가짜로 보인다고 해도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나는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적어놓기만 할 따름이다. 현명한 독자여, 스스로 판단하라(이부 28, 29 장).

요컨대 상상이 진실인지 가짜인지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계속되어 언급되면서도 궁극적인 해답은 주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모호성은 독자의 독자적인 판단을 요구하고 이러한 판단없이 사실은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긴지 하나도 똑 떨어지게 분명하게 없는 것이다.

### 3. 돈 끼호테의 매력

르네 지라르는 그의 논문 안에서 돈 끼호테의 기본틀을 돈 끼호테와 아마디스 그리고 돈 끼호테의 이상을 연결하는 삼각형으로 도식화시켰다.

즉 돈 끼호테는 전설상의 아마디스를

모방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그의 이상에 한걸음씩 접근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 역시 이 작품을 보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돈 끼호테를 이상주의자인 낭만적 영웅으로 간주한다면,

하지만 우리가 이미 살펴 보았듯이, 전체적으로 모호성에 바탕을 둔 현실과 환상, 가공과 실제라는 이원적 구조가 그리 쉽게 도식화될 수 있을 것 같진 않다. 이렇듯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고와 상상력을 요구하는 돈 끼호테의 매력은 어디에 있는걸까?

돈 끼호테는 현대 어느 작가도 쉽게 모방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치밀한 구성속에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도 불구하고 실수인지 의도인지 모르는 헛점이 군데군데 노출된다. 작중 인물의 이름을 혼동한다든지, 앞장에서 일어난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 뒤에선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는 점들. 어쩌면 이런 인간적인 실수라면 실수가 돈 끼호테를 더욱 부담없이 대할 수 있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또한 “이것이 진리요”라고 외쳐대는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행동해봤는데 독자들 생각은 어떠하시오?”라고 묻고 있는 돈 끼호테의 인간적인 체취가 더욱 이 소설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것이다. 삶의 모호성을 시인하고 그대로 웃어넘기는 휴머니스트, 그가 바로 돈 끼호테인 것이다.





## 국악을 아십니까 ?

### 1. 한국음악의 특징

서양에서는 불과 30 여년전만 해도, Harvard Dictionary of Music(1944)의 Korean Music 이란 항목에 한국음악이 간단하게 “Same as Chinese music” 이라고 소개되었던 것과 같이, 한국음악은 중국음악과 같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과연 한국음악이 중국음악과 같고 아무런 특징을 갖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한국음악에 대한 부정확한 판단은 한국음악을 연구, 분석하는데 실제의 음악에 기하지 않고, 한국음악에 관한 고문헌에만 기하여 「궁상각치우」같은 중국음악이론을 사용하거나 또는 중국의 악기를 많이 쓴다든지 하는 소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헌으로 보면 「궁상각치우」나 황중, 대려, 대후니 하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음악이 중국과 같다고 하겠으나 실제 그 음악을 들어보면 다



이 훈 선

196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음대 국악과를 졸업하고 작곡공부를 위해 이태리유학을 준비하고 있다.

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한국음악이 중국이나 일본의 음악과 어떻게 다른 지를 알아보자. 한국음악의 특징은 이 세 나라 음악의 비교로 스스로 드러날 것이다.

왜냐 하면 중국음악이 한국에 들어와서 변모된 것이 있다면, 바로 그 변모가 한국음악의 특징의 일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당의 칠언절구에 붙여진 「양관삼첩」이란 금반주의 노래와 일본에 들

어간 당악 「월천악」(Etenraku) 과 송에서 한국에 들어온 「락양춘」을 비교하기로 한다.

「陽關三疊」은 당의 유명한 시인 王維가 지은 七言絶句로 그 내용은,  
 「渭城朝雨浥輕塵 客舍青青柳色新  
 勸君更盡一杯酒 西出陽關無故人」  
 이다.

우리나라 「靑丘永言」의 翻譯文을 보면, 「渭城 아침비에 柳色이 새로워라, 그대를 권하나니 一杯酒 나오너라, 西으로 陽關에 나가면 故人없어 하노라」하는 離別의 노래이다. 위 詩에서 살펴 보면 중국과 한국의 음악 구조의 차이는 음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양국의 시형의 차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음악은 중국음악과 달리 규칙적인 길이의 구 대신에 불규칙한 길이의 구를 갖게 된다.

따라서 중국음악이 일자일음의 규칙적 Rhythm 인데 반해 우리음악은 시가만큼이나 불규칙한 Rhythm 을 갖게 된 것이다.

중국과 일본의 음악에는 이박자 또는 사박자계통의 음악이 많은데 비해 그 양국의 중간에 위치한 한국의 음악에는 삼박자가 많다. 이는 「Oxford History of Music」의 한국음악 편에서 Laurence Picken 에 의하여

지적되었고, Curt Sachs 도 그의 저서 「The Wellsprings of Music」(P.114)에서 “동아세아에서 한국만이 삼박자를 사용한다.”고 말하였고 미시전대의 William Malm 교수도 “어째서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있으면서도 그 음악은 중국과 일본의 음악과는 달리 삼박자로되어 있는지 intriguing 하다”고 말한 것처럼 한국음악의 삼박자는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한국음악을 피아노로 연주하면 제맛이 안나는 것 같이, 한국음악을 중국의 방향·편종·편경·생황·소와 같은 고정음만을 내는 악기로 연주해도 그 맛을 낼 수 없다. 이는 중국의 음정과 다른 한국고유의 음정과, 일음의 미분음적 변화(Microtonal Shading)를 의미한다. 즉 한국음악은 흘러내리는 음을 쓰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우리 음악에 Hamony를 붙이면 그런 변화가 죽어버린다. 「하모니」라는 것은 고정음이라야 이루어질 수 있지 우리 음악같이 미분음적 변화를 가진 음악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음악에 서양의 화성을 붙일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한국음악은

- ① 불규칙한 길이를 가진 악구
- ② 가사한자에 여러 개의 음
- ③ 삼박자
- ④ 음정의 미분음적 변화, 등의 특징으로 나타난다. 다음은 이러한 음악의 특징으로 나타난 우리 민족의 독창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 2. 음악에 나타난 우리민족의 독창성

첫째로 우리민족의 독창성이 나타난 것으로 한국악기를 들 수 있다. 즉, 대표적 한국악기인 玄琴〈거문고〉·伽倻琴·大琴에서 우리민족의 독창성을 발견하게 된다.

### 가. 玄琴〈거문고〉

거문고는 고구려의 왕산악이 서기 4~5세기경에 중국 진나라의 칠현금을 고쳐서 만든 악기이다. 12세기경에 중국 남송의 서긍이 쓴 「宣和奉使高麗圖經」에는 거문고의 패(바이올린의 Bridge 같은 것)가 그 복판에 붙어서 이동할 수 없었다고(주교내불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거문고의 법제가 중국에 없었던 것임을 말해준다.

### 나. 伽倻琴〈가얏고〉

가얏고〈가야금〉는 서기 6세기에 伽倻국의 가실왕이 중국의 쟁을 伽倻

의 음악에 맞도록 고쳐 만든 것이다. 이 새로 만든 伽倻琴은 서기 551년〈신라 진흥왕 21년〉에 악사, 우륵에 의해 신라로 들어가 거기서 보급되었다.

### 다. 大琴〈젓대〉

우리말로 젓대로 불리우는 大琴은 그 창제년대와 국명이 불명이나, 삼국사기에 신라때 중금·소금과 함께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젓대는 80cm나 되는 길이와 큰 취구에 있어서 중국의 당적과는 다르기 때문에, 또 그것이 젓대라는 우리말과 그리고 향악에 사용된 점에 비추어 한국악기임에 틀림이 없다. 이 거문고·가얏고·젓대의 세 악기는 한국특유의 음정과 미분음적 변화를 연주하는 데 적합하다.

둘째로, 세계 최초의 유량악보인 정간보의 창안이다. 세종때 창안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이 정간보는 “우물 정字”(井) 모양의 연결된 악보로 “一井間一拍”이며 한 井間 안에 여러 개의 미분박을 포기할 수 있으며 불규칙한 Rhythm 형 등을 기보할 수 있다.

끝으로 한국음악의 창작면에 나타난 우리 민족의 독창성을 살펴보겠다.

조선의 가곡원류에 「이치를 알고

신에 통하면 자연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가지에 매어 있지 않고 주물러서 새것을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일종의 창작정신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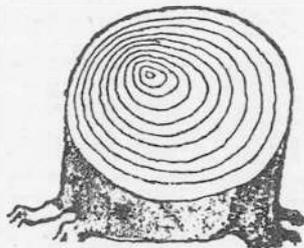
신재위의 판소리에서도 「장단고저·변화무궁」이라고 표현하였듯이 음악의 변화무궁을 강조하였다.

이상에서 밝힌 내용을 요약하면 우

리민족의 독창성을 나타낸 것으로 한국음악 특유의 음정과 미분음적 변화에 적합하게 만든 거문고·가얏고·젓대 등의 악기 창조, 일자수음과 불규칙한 Rhythm으로 된 음악을 기보할 수 있는 정간보의 창안, 그리고 풍부한 변화와 다양한 양식, 그것들의 바탕이 되는 음악인의 개성존중사상을 들 수가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이해구 : 한국문화의 이해, 문화공보부 1979년 12월
- Survey of Korean Arts : Traditional Music, Seoul : 예술원 1973
- Grove's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1980. 중 "Korea"
- Harvard Dictionary of Music Second Edition, 1970. 중 "Korea"



# 정의와 형평을 위하여



1. 얼마전 세상을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미결수들의 탈주사건. 그 사건은 우리 사회 각 분야에 충격을 준 것이었지만 특히 법조계와 사법절차의 문제들을 노출하는 공을 세웠다.

그들 중의 누군가가 말했다는 “무전유죄”라는 말이 잠시 동안이나마 인구에 회자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샀었다.

“무전유죄”라 하는 말은 어찌 보면 여러 각도에서 이해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즉, 가난하여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은 후에도 가난으로 더욱 중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어찌보면 사회의 문제이다. 부자와 빈자가 나뉘어지고 그중 빈자는 더욱 더 어려워지는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는 것인데, 일면 수궁할 수 있는 바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을 범죄행위로 결과지을 수 밖에 없다고 볼 바는



중위 윤근수  
(5718 부대)

1963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시 27회로 합격했다. '8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법무관으로 공군에 입대했다.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므로 그러한 범죄행위가 비난을 벗어날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 후자의 경우가 문제인데 결국 이것은 사법절차에 대한 다수국민들의 불신임과 연관이 있다. 돈이 많은 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집행자들로부터 보다 넓은 융통성을 행사하도록 공작을 하고 그에 반하여 가진 것이 없는 범죄자들은 관대한 용서를 기대하

기가 어려운 것이 어찌보면 우리의 법조계가 돌아가는 실정인 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서도 어느 정도는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변명이 그러한 실정을 합리화하기는 부족한 듯하다. 필자는 일면으로 변명하고픈 심정도 적지는 않으나 오히려 조금의 잘못도 솔직히 인정하고 그를 개선코자 하는 노력이 아쉬운 때가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2. 필자가 모교의 품에서 진리며, 자유며, 정의 등을 배우고 탐구하던 시절, 모교의 필자가 몸담았던 법과대학은 법률도서관이라고 하는 독립된 도서관건물을 선배들의 힘으로 장만할 수가 있었다. 그 건물이 완공되어갈 무렵의 어느 가을날 필자는 그 건물의 전면 윗부분에 부조되어있는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궁금하여 친구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 그림은 여인이 한손엔 칼을, 다른 손엔 저울을 들고 있는 부조상이었는데 뒤에 알은 바론 그 조각상은 법의 여신이라고 들었다. 한손에 든 칼은 정의를 상징함이요 다른손의 저울은 형평을 뜻함이라. 그것을 알았을때 나는 그 그림이 법률가가 나아가야

할 바의 표상임을 깨달았고 또한 정의와 형평을 위하여 나 자신이 살아갈 것이라는 긍지를 강하게 느꼈었다.

그러한 긍지와 신념을 안고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의 연수과정을 거쳐 오늘에는 군법무관으로 법집행자의 입장에 서게 되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우리 법무특기의 특기Mark가 저울을 그려놓은 것임을 아시는지

3. 나는 아직도 분명히 법률가들의 의무는 불의로부터 정의를 지키고 또한 치우침이 없이 형평을 유지하는데 있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만이 법률가로서의 존재의의를 잃지 않는 것이며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 믿고 있다. “무전유죄”가 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사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법률가들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수치일 수 밖에 없다. 즉 이는 법집행자들이 형평을 잃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형평을 이루기 위하여 공부하고 생각하는 것이 법률가가 되기 위한 노력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이제 법을 집행하는 위치에 선 사람들은 그런 노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이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형평을 잃는다고 비난받고 있다면 이는 곧 형평을 지키고자 하

는 신념과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닐까하고 감히 생각하여 본다. 법이 보호하여야 할 사람들은 돈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이어야 할 것이 아닌가.

4. 나는 약 3개월전 법무관이 됨으로써 법집행자의 아주 작은 일부분이 되었다. 이제 여지껏 내가 배운 지식과 내가 길러온 신념을 내가 처리하여야 할 사건들에 쏟아부어야 할 때인 것이다. 그리고 정의와 형평을 위한 나의 삶의 시작을 이루어 나가야 할 때이기도 하다. 그동안 연수생활 등을 지나오며 내가 갖고 있던 정의와 형평에 대한 나의 신념이 너무나 녹슬어 있었던 점을 이번을 계기로 다시 그 녹을 떼어내고 새로이 담금질하여야 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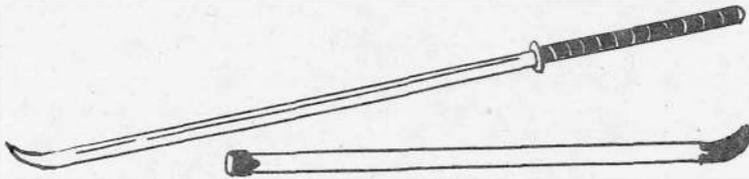
사실 내가 떠맡고 있는 균형사범이 민간사회의 그것에 비해 결코 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권리에 취약한 우리 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균기를 확립하고 부대내의 장애인들의 범법·범칙행위를 규제하는 등의 일에 하나라도 소홀히 할만큼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그에 비해 아직은 부족한 나의 지식과 능력, 적은 경험이 오히려 매 사건에 정의와 형평을 유지하였는지 우려되게 한다. 보다 많이 공부하고 노력하여야 할 것이리라. 그러나 그 뿐 아니라, 나의 부족한 신념이 사건이 정의와 형평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지 않은지 더욱 더 염려된다.

몇달 사이에 나의 부족한 신념과 용기가 나 자신을 불공평한 법률가로 만든 적도 틀림없이 있었을 것 같다.

나는 내가 한 법률가로서의 존재의 의를 잃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그 신념과 용기만큼은 절대 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항상 정의와 형평의 편에서 있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채찍질해야만 한다.

가을밤이 깊어만 간다. B.O.Q.의 책상머리에 홀로 앉아서 우주와도 비견되는 음악세계를 지녔던 고고한 작곡가 Bruckner의 너무나 명상적이고 아름다운 Adagio 악장을 들으며 다시금 정의와 형평을 위하여 걸어야 할 길을 생각하며 나의 신념을 재충전해본다.



## 仙國爲術得劍修

**검도는** 우리 민족 문화의 고유한 전통성을 지니고 우리 민족의 역사속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는 무도중의 하나이다. 우리 검도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마치 검도가 완전히 일본에서 들어온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 물론 현대적인 경기화에는 일본의 영향이 많이 미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검도의 맥은 화랑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술이나 기가 아닌 도에 이른 경지를 武에 연관시킨 예는 화랑도가 처음이라 할 수 있으며, 삼국유사 김유신조에 '수검득술위국선'이란 글이 있는데 이는 검의 원리를 수련하고 터득해야 국선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검도사에서는 귀중한 기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화랑의 세속오계는 당대 뿐만 아니라 오늘날 검도의 근본정신이자 도덕적 배경이 되고 있다.



대위 신승호  
(공군사관학교)

1961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성균관대 대학원에서 사회체육을 전공했고 사후 80기로 임관했다.  
현재 공사 검도교관으로 재직중이며 64회 전국체전에서 1위로 입상한 바 있다.

검도와 검술은 그 의미가 당연히 틀린다. 검은 애당초 인간에게 유용하게 사용되기 위해 발생했고, 다만 이것을 선용하지 않으면 불행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이며, 정의의 위해서 혹은 약자를 위하는 등의 목적에서 사용되는 소위 살인검이 아닌 활인검이 그 본래의 목적이기에

어디까지나 검술이 아니라 검도라 할 수 있다. 즉, 검을 가지고 기술을 익힘으로써 심신을 단련하여 자신의 인격을 도야하는 것으로 기술이 숙달되면 될수록 그에 비례하여 인격이 향상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아무리 숙달된 기술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에 비례한 인격이 병행되지 않으면 이는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오히려 위험하기 짝이 없다. '기술을 배우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함은 검도수련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검도수련의 목적은 정신단련, 신체연마, 기술의 숙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 세가지 중에서도 정신의 단련과 신체연마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술의 숙달은 이 두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 1. 검도와 정신의 단련

검도를 수련하는 도장에는 세가지 지켜야 할 예가 있다. 이는 국기에 대한 예, 스승에 대한 예, 동배간의 예로써 국기에 대한 예는 국가에 충성하는 마음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고, 스승에 대한 예는 윗사람을 공경하는 마음을 기르며, 동배간의 예는

상호간의 신의를 지키는 마음을 기르는 것을 이른다. 이와같이 시종일관 예의를 바르게 함은 검도의 가장 큰 특색으로 도장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예의를 존중하고 습관화시키는 정조를 길러준다. 검도에서의 모든 치고 찌르는 동작들은 올바른 자세, 정확한 기술 및 충만한 기세의 삼요소가 일치 구비되어야 한다.

이것을 기·검·체의 일치라고 하며 이 기·검·체 일치의 수련을 통하여 특히 과단성과 인내심이 강하여지며, 염치와 침착 등의 여러가지 덕을 양성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수련시에 지켜야 할 마음의 사제가 있다.

첫째, 놀라지 말라는 것이다. 이는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사태에도 놀라지 말라는 것으로 담력을 강하게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는 상대의 외형적 우월성이나 유명세 등으로 미리부터 심리적 압박을 갖지 말라는 것이다.

셋째, 망설이지 말라는 것이다. 이는 상대에게 혹시 반격이나 기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으로 우유부단하게 망설이다가는 오히려 당한다. 정확한 판단하에 과감한 공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째는, 당황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는 놀라는 것과는 달리 마음의 평정을 잃어 안정되지 못할 경우에는 신속하고도 정확한 동작이 불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마음의 네 가지 병을 초월한 수련을 통하여 신속·정확한 판단력, 백절불굴의 정신력, 무념무상의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 2. 검도와 신체의 단련

검도는 우선 죽도라는 기구로써 기·검·체 일치라는 신체운동의 형식으로 상·하지의 조화적이고 합리적인 움직임과 공격과 방어의 동작을 통하여 신체건강 및 경기적 기능을 높일 수 있다. 검도에서의 신체활동은 다른 운동에 비하여 강한 편이고, 전신운동이며, 교치운동이며, 기민운동으로서 대단히 적당할 뿐만 아니라 내장기관 및 일반 골격근의 단련으로 비할 바 드물고, 전신을 원만하게 발달시키는 운동이다. 일반적인 신체적 효과는 지면상 생략하고 특징적인 것 몇가지만 나열해 보겠다.

첫째, 시각의 예민이다. 수련 중에 가장 정신을 들여 탐색하는 것이 적의 마음의 움직임과 공격을 가할 수 있는 헛점 및 전광석화와 같은 상대

의 공격에 있으므로 주의 작용은 비상하게 예민하여진다. 숙달된 검사의 호면은 좁은 철망 안에서 밝게 빛나는 안광은 그 얼마나 시각이 예민한가를 말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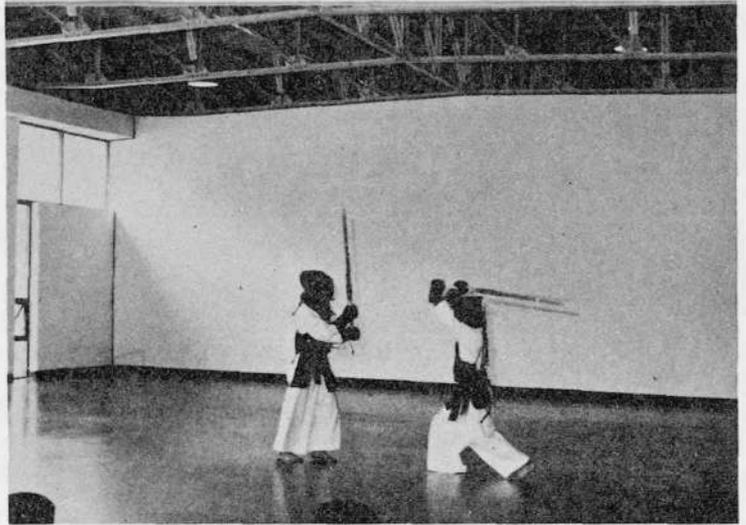
둘째, 주의력의 집중이다. 검도는 두 사람이 대항하여 정신과 기술을 겨루는 것이므로 전신의 주의력을 상대에게 집중하고, 추호도 주의를 게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집중의 연습으로 검도에 미치는 것이 거의 없다.

세째, 동작의 민첩성이다. 동작의 민첩은 근육의 흥분성이 높아진 결과로써 죽도를 통한 전광석화와 같은 빠른 동작으로 공방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우리 신체는 한없이 민첩하여 지는 것이다.

네째, 바른 자세이다. 정확한 타격은 바른 자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시간 본능적으로 바른 자세를 취하게 되어 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습관화될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적극적 행동의 유발이다. 공격은 최대의 방어라고 했다. 내가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상대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적 공격이 있어야 하고 자신을 너무 아껴서는 안 된다. '내 피부를 주고

검도는 적극적이며  
과단성있는 행동을  
지향케 해준다.



적의 뼈를 끊으라, 내 뼈를 주고 적의 맥을 끊으라'는 공격원리하에 행하여 지는 검도는 적극적인 행동을 그리고 과단성있는 행동을 지향케 해준다.

### 3. 기술의 숙달

검도는 다른 운동에 비해 그 기술을 익히기가 어려운 편이다. 평소의 수련도 그러하지만, 특히 삼복중 가장 더울 때와 소·대한의 가장 추울 때를 택해서 실시하는 모서·모한연습 등은 실로 참기 어려운 수련이다. 이 모든 참기 어려운 고비를 이겨 나가는

때 의의가 있고 따라서 심신의 단련은 물론, 기술의 발달도 보게 된다. '기술이 숙달되면 될수록 확고부동한 신념이 생기며 불의의 변을 당하였을 때는 호신의 용구도 되는 것이다.

검도는 문자 그대로 하나의 '도'이다. '도'라는 것은 사람이 일생을 살아 나가는데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올바른 길을 말하는 것이므로 검도를 수련함으로써 올바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다는 데에 검도의 의의는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 고려수지침의 신비

**고려** 수지침의 창시자 유태우 박사는 동양의학 침구학자인 동시에 음양오행침술가이기도 하다.

유박사는 한국의 사암선생이 3백여 년 전에 정립한 오행침술법을 토대로 수지십사기맥혈 345개 기정혈을 좌우 수합하면 1,260개혈을 신발견하여 그 중에서 요혈들인 정혈, 오수혈, 명혈, 기막혈, 기유혈, 인성혈, 기방, 사영혈들을 이용하여 임상에 응용하고 있다.

이것들은 인체의 전 질환을 간단하면서도 치료효과가 빠른 요법으로서 10여년 전에 유박사가 연구발표한 것으로 각종 질병들을 수지에서 치료하고 있다. 즉 전 신체의 기능을 말아보고 있는 곳이 있는 것처럼 수지에서도 기능국재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수지에서 인신세부의 기능을 맡고 있는 부분이 세밀하게 되어 있다. 이 수지침술은 누구든지 쉽게 익힐 수 있으며 치료기구도 간편하며 고통도 적



강 옥  
(고려수지침학회)

1930년 서울에서 출생했다.

한양대학교 토목과를 졸업하고 공무원 생활을 했다. 은퇴후 고려수지침술에 몰두하여 수지침보급에 전념하고 있다. 현재 수지침학회 학술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고 간단하게 치료할 수가 있으며 치료효과도 빠르며 양호하다. 그러나 수술을 요하는 병과, 악성전염병 일부에서는 암도 수지침으로 치료하고 있으나 아직은 연구단계인 것 같다.

그러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의 질병들을 수지침으로 치료가 가

능하며 치료효과도 대단히 좋다. 현 사회에서 난치병으로 알려지고 있는 폐결핵 초기, 디스크(추간판탈출증), 갑상선종대, 연주창, 악성피부염, 소화기병, 간염, 간경화, 만성신경성의 모든 질병들, 정신병, 전립선염, 신장염, 오줌싸개, 견갑질환, 심장병, 혈압병, 비만증, 당뇨병 초기, 골막염, 골수 초기, 안면신경마비 초기, 삼차신경통, 오관의질환 등 등 十四個科系 질환의 180 종류 이상의 질환을 수지침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은 대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의학이란 사람의 질병치료를 함에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고통을 적게 주고 간편한 방법이면서도 값싼 방법으로 널리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수지침술은 가장 이상적인 것 같다.

국민 모두가 수지침을 알고 각자의 가정에서, 나아가서 단체들의 건강관리를 하게 된다면 가정경제는 물론 외화절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국력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국민 각자가 건강예방지식과 치료지식이 없으면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유박사의 手指十四氣脈論의 작용을 보면 기맥은 五장六부에 통하고 사지

와 뇌수에 통하여 모든 관절과 피부, 모발에까지 통하여 전 신체 어느 곳이든지 그 작용이 미치게 된다. 따라서 모든 기능과 허실을 조절하여 모든 병들을 기맥을 활용하여 치료하게 되는 것이다. 즉 기맥은 기혈의 통로이자 오장육부의 기능조절선인 것이다. 수지침술에 있어서는 수지에 전신의 상응부위로 배당시키고 기맥의 유주에 따라서 기맥보사등으로 침자극을 주어서 장부의 병을 치료하고 있다.

동양철학적으로 모든 사물과 기능이 오행에 의하여 판단하고 있듯이 의학 또한 이 오행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인체의 생리와 병리가 오행작용과 일치하고 있는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先人들의 예지가 얼마나 훌륭한가를 알 수가 있다. 유박사가 신발견한 手指十四氣脈論을 보면 다음과 같다.

## 手指鍼十四氣脈論

### 1. 任氣脈

임기맥은 인신 외 임맥과 동일한 작용을 하게 된다. 즉 사람 몸에 있는 전면 복부 외 정중선으로 흐르는 맥으로 오장육부와 생식기, 자궁, 인후기관, 얼굴, 심장병을 전부 치료한다.

## 2. 督氣脈

독기맥은 척추 중앙으로 흐르는 맥과 상응되는 기맥이다. 인체의 자율신경계와 척추신경계에 전부 관여한다.

이것은 인체의 모든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중요한 기맥이며 치료될 수 있는 병은 요부 등줄기, 오장육부, 뒷머리, 뒷목, 머리, 정신병, 얼굴의 질병, 생식기병, 대장출혈, 코, 눈, 항문, 변비, 설사, 입, 귀병 등을 전부 치료한다.

## 3. 肺氣脈

폐기맥은 폐, 기관지, 코, 피부, 대장병, 해소천식, 위병 등을 치료한다.

## 4. 大腸氣脈

대장기맥은 소화불량, 변비, 불면, 두통, 장통, 척추압통, 식욕감퇴, 체기, 위산과다, 만성감기, 치통, 전두통, 요통, 코피, 눈알이 노랗고, 목구멍에 핵이 있는 것 같고, 잇몸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럽고, 무릎이 아프고, 십이지장궤양 왼쪽의 견갑통, 수족이 저리고, 입안이 마르고, 장이 꾸르룩하고, 목이 마르고, 입과 입술이 마르고, 눈이 당기고, 자주 놀라고, 대변에 흰색이 나오고, 변이 무르고, 하혈, 변혈, 배힘이 없는 것 등을 치료한다.

## 5. 胃氣脈

위기맥은 식욕부진, 구토, 소화불량, 위의 복만증(그득한 것), 체증, 기트림, 하품, 미식미식 토할 것 같은 것, 변비, 설사, 체증, 광란, 복통, 구내염, 식도염, 식도의 경련, 급성위염, 위무력증, 위산과다증,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면열, 여드름, 얼굴이 수척하여 마르는 증상, 눈병, 코막힘, 치통, 두통, 정신병, 현기증, 미친병, 유방의 질병, 전 흉통, 갑상선종대, 연주창, 복직근이 땅기는 것, 원인모를 열병, 무릎이 아픈 것, 하지 무력병, 무릎관절염, 정강이와 뼈와 살이 아픈 것, 앞발목이 아픈 것, 둘째·세째 발가락이 아픈 것, 아랫배 아픈 것, 중완부근에 딱딱한 곳이 있는 것, 복부 전체의 냉증, 원기쇠약, 안면부종 등 위경련, 식도경련, 위산결핍, 위복통, 위내증, 빈혈, 사지수족의 냉증, 간질, 시력부족(특히 야맹증), 대식증, 당뇨병, 비만증, 삼치신경통, 피부습진, 탈모증, 정력감퇴 등을 치료한다.

## 6. 脾氣脈

비기맥은 설사, 변비, 복만, 구역질, 식욕부진, 불면, 소화불량, 수족권태, 장명, 위산과다, 위장병, 신경성 질병, 경풍, 살이 빠지거나 살이 찌고, 입술의

胃腸病 治療方法을 보면

- ① 中焦基本方 - A8 A12 A16에 자석 N極이나 T 鍼을 刺入하고 20分 內 外면 疾病症狀이 없어지고 轉해진다.



中  
焦  
基  
本  
方  
A16 }  
A12 }  
A8 }

- ② 中焦基本方으로서 治療가 안 되면 A12의 五福鍼과 K9 F4를 추가하면 胃腸病症狀에 좋은 效果가 나와서 治療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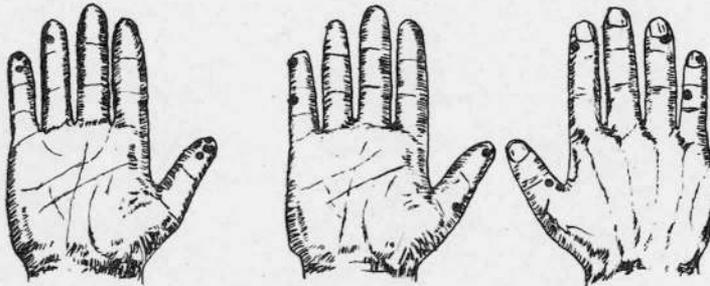
K9  
F4

A12의 五福鍼

- ③ 上記處方이 不足하면 K9 F4와 脾正方이나 胃勝方을 추가시키면 차츰차츰 胃腸病症狀이 모두 없어진다.

※ 오래된 胃腸病은 이 處方으로서 꾸준히 長期間 治療하면 治療效果가 좋다.

G13 }  
F1 } 脾  
F3 } 正  
N1 } 方



E45  
E40  
D1  
M28  
胃  
勝  
方

이상, 피로감, 이질, 허약증, 두통 등의 치료가 여기에 속한다.

허가 뻗뻗하고, 먹은 즉시 구토하고 위장이 아프며 배가 붓고 게트림, 몸 전체가 무겁고, 허끝이 아프며, 몸 움직이기가 불편하며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 밑이 몹시 아프며 황달, 무릎 내측이 아프며 발이 차고 정강이에 열이 나며 배가 부어서 그득하고 식사를 많이 하고 잠을 많이 자며 물을 많이 마시고 수족에 힘이 없고 관절염통, 배가 냉하고 위산감소, 췌장염, 복통, 요통, 모든 신경통, 피부병, 빈혈, 정력부족, 뇌혈정, 전신불수, 화농성 질환 등을 치료한다.

### 7. 心氣脈

심기맥은 심장이 두근거리며 심장과 배가 아프며 말하기 어렵고 심장에서 차가운 것을 느끼며 황홀, 깜짝깜짝 자주 놀라고 꿈을 많이 꾀다.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며 밤에 오줌을 싸고 정액이 나오고 오줌을 자주 누며 수족이 차갑다. 저혈압과 신성고혈압 머리 위가 아프며, 류머티즘, 혈액순환장애, 자궁냉증, 동상, 언어장애, 난시, 난청, 경련, 얼굴이 빨개지며 요배통이 일어나면서 하지무력 마비등의 증세가 있다.

변비, 복만, 사지가 무겁고, 피로가 심하며 몸에 항상 열이 많고, 옷기를 잘하고 입안이 쓰고, 목이 마르고, 심장이 아프며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곤란하여 상기상충되며 순환장애, 판막장애, 동맥경화, 고혈압, 기운이 없어지는 것 등을 치료한다.

### 8. 小腸氣脈

소장기맥은 뒷목이 뻗뻗하며 오른쪽 견갑통, 근육류머티즘, 두통, 코감기, 인후염, 편도선염, 소변이 자주 나온다든가 소변보기가 어렵고, 단백뇨를 보며, 몸이 부었다 내렸다 하는 부종, 신장염, 월경불순, 심장쇠약, 류머티즘, 알레르기 질환, 하복통, 부인병, 귀병, 축농증, 구내염, 하지마비, 깜짝깜짝 놀라고, 눈을 감으면 꿈이 계속 나타나고 항상 불안초조, 시력이 나빠지고 얼굴에 광대뼈가 붉은 것 등을 치료한다.

### 9. 膀胱氣脈

방광기맥은 허리가 아프고 소변이 잘 안 나오고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며 가슴이 답답하고 그득하며 머리가 빠지는 것 같이 아프고, 목이 빠지는 것 같으며, 척추가 아프며, 허리가 부러지는 것 같고, 엉덩이를 굽힐 수가 없고, 오금이 결리며, 장단지가 갈라지는

것 같다. 치질과 학질, 미치는 병, 간질과 머리 꼭대기가 아프며, 눈이 노랗고, 눈물이 나오며, 코피가 나오고, 등허리 장딴지 팔다리가 모두 아프며, 새끼발가락을 쓰지 못하며, 방광염, 요도염, 눈이 아픈 것, 견비통, 요통, 좌골신경통, 슬관절통, 족관절통, 소변불리, 입질, 심통 등 다리힘줄이 땅기며 복증이 아프고 허리와 등이 땅기며 굽히고 펼 수가 없으며 근육이 뒤틀리고 바람을 싫어하고 발 힌쪽이 마르고 요통이 있으며 소변을 자주보며 오줌이 계속해서 저절로 흐르며 또는 통하지 아니하고 자면서 오줌을 싸고, 뒷머리가 무겁고, 허리와 척추가 아프며, 고환염, 치질, 목이 뻣뻣하고, 자궁생식기의 염증을 치료한다.

#### 10. 腎氣脈

신기맥은 배가 고프면서도 먹고 싶지 않고 얼굴빛이 검으며 기침한즉 피가 섞여있고, 숨이 가쁘며, 앉으면 곧 일어나고, 눈이 어지럽고,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으며, 항상 배고픈 사람과 같다. 방광이 붓고 오줌이 안 나오며 아랫배와 척추가 서로 땅기고 아프며 허가 건조하여지고 목구멍이 붓고 가슴이 답답하며 때때로 가슴과 옆구리가 아프고 숨이 차며 기침이 나

오고 땀이 많이 나며 아랫배가 붓고 그득하여 허리와 등줄기가 땅기며 소변색이 적황색이며 화를 잘내고, 두려워하기를 잘하며, 발가락에 열이 나고 아프며 답답하고 사지가 흙색으로 변하고 귀가 들리지 않으며, 몸에 열이 있고 가슴이 아프며 신장염, 부종, 소화불량, 저혈압, 신성중풍, 자궁의 모든 염증, 냉증, 대하, 불임증, 하복이 아픈 것, 고환염, 신장결석증, 신장결핵, 인후염, 류머티즘, 이질, 오줌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 귀가 울리는 것, 언어장애 등, 또한 가슴이 답답한 것, 다리가 무겁고, 발이 붓고, 발을 땅에 안전하게 딛지 못하며 정강이가 가늘고 약하여지며 찬바람을 싫어하고 맥이 뛰었다 안뛰었다 하며 발이 차갑고 아랫배가 그득하게 부으며 두통, 치통, 신경통, 고혈압, 반신불수 또는 전신불수 관절염, 귀, 눈, 코병, 견갑통, 정력감퇴, 정액이 적거나 찬 것 등을 치료한다.

#### 11. 心包氣脈

심포기맥은 일반적으로 장부의 숫자를 오장육부라고 하나 침구학에서 만은 육장육부로 하고 있다. 오장인 肝心脾肺腎과 오부인 胆小腸胃大腸膀胱은 각각 형체가 있는 것으로 오직 三焦와 心包는 명백한 형체가 없이 전해

지고 있다. 다만 그 병세 등을 추리하여 이용되고 있다. 즉, 삼초실일 때 심포허가 된다. 심포의 실증에는 심실증과 거의 비슷하다. 손바닥에 열이 많고 팔꿈치와 팔뚝에 경련을 일으키며 아프다. 겨드랑이 밑이 부으며 심하면 가슴과 옆구리가 그득하고 결리며,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며, 얼굴이 붉어지고, 눈이 노랗고, 미소가 그치지 않는다. 이러한 것 등을 치료한다.

## 12. 三焦氣脈

삼초기맥은 상기 상충 기관지염, 찬식, 식도가 협착되며 위궤양, 인후염, 간염, 말초의 혈행이 잘 안 되고 불임증 나팔관염, 자궁염증, 소변이 자주 나오고 뒷목이 뻣뻣하고 근육류머티즘, 척추과민증, 하지마비 또는 무력, 관절류머티즘, 월경통불순, 신적, 악성변비, 식욕감퇴, 광대뼈가 빨갛고, 이질 등을 치료한다. 특히 주의할 것은 난치병이 많다.

## 13. 胆氣脈

담기맥은 뱃속이 그득하고 음식이 내리지 않으며, 목구멍이 건조하고, 머리가 무겁고 아프며, 입이 쓰고 한숨을 잘쉬며, 심장과 옆구리가 아프며, 누워

서 옆으로 옮겨 누울 수 없고, 얼굴에 때가 끼며, 피부가 윤택하지 않고, 발등이 뜨거우며, 양쪽 이마 옆에 통증이 있고, 눈초리가 모두 아프며, 젖가슴 위의 쇠골이 붓고, 아프며, 겨드랑이 밑이 붓고 땀이 나며, 추워서 떨리고 학질, 가슴속 옆구리 갈비뼈 엉덩이 고관절 무릎과 정강이뼈 발의측복사뼈 등 모든 관절이 아프다. 뒷머리가 아프고 빈혈이 일어나면서 아프고, 견갑통, 늑간신경통, 삼차신경통, 좌골신경통, 관절이 빠기를 잘하고 담석통증, 담낭염 등. 현기증과 발이 오므라 들고, 발가락을 움직이기 곤란하여 절름거리며, 앉았다가 일어서질 못하며, 옆드려 누우며, 눈이 노랗고, 정액이 절로 나오고 하는 것 등을 치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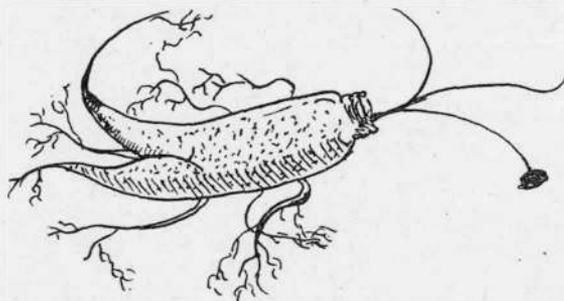
## 14. 肝氣脈

간기맥은 심장 밑이 뜸뜸하고 그득하며 항상 옆구리가 아프며 노하기를 잘하고 노한 상태에 있으며, 허리가 아프며, 앞뒤로 굽힐 수가 없으며, 고환염과 부인들 아랫배가 붓고 목구멍이 마르며, 얼굴에 때가 끼고 살이 변해진다. 구역질, 물똥설사, 오줌을 가누지 못하고, 눈이 충혈되고 항상 두통이 있으며, 알콜중독, 위산과다로 인

하여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되며, 간염, 간경화, 근육통, 응결통, 동맥경화, 반신불수, 경기, 생식기 이상, 만성감기, 장열, 신경과민 등 옆구리가 뚝뚝하고 한열이 왕래하며, 배가 부르고, 음식생각이 없으며, 배가 부르면서 즐겁지 아니하고, 부인월경불순, 허리와 배가 아프며, 빈혈, 시력감퇴, 색맹(청록), 밤 눈을 못보고, 백내장, 근무력, 위산과소, 근육경련, 간질, 정신병, 뇌혈전, 전신불수 등을 치료한다.

우리가 일상생활 중의 건강소홀이 중병을 자초하게 되는데 우리가 쉽게 겪는 소화기병은 너무도 많기 때문에 많은 치료를 하고 있지만 위병은 생각보다 쉽게 치료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수지침술은 치료효과가 대단히 좋다. 전신적인 生氣는 위기능 여하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한다. 소화기능이 좋으면 중병에 걸리지 않는다 한다. 그러므로 소화가 잘되면 병도 잘 치료가 된다고 한다. 위장병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헛배가 부르고 속이 매스껍고 변비증상이 있으며, 구토기운이 있고 머리속이 명랑하지 못하고, 속이 답답하고 머리가 무겁다. 이러한 증상들은 곧이어 중병으로 변화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인체를 우주의 일부로 보고 자연적 리듬을 유지케 해주는 수지침은 신비로운 건강의 보호자로서 더욱 깊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 공군 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 대회의의의와 발전방향



중령 서 홍 교

금번 제10회 공군 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 대회는 항공사상 양양과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국민과학화 운동에 크게 기여하고, 항공인구 저변확대로 범국민적으로 확산, 정착화되어가고 있다.

제1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모형항공기 대회의 의의와 발전방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장차 이 대회가 항공인구의 저변확대와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행사로 발전되길 바란다.

### 1. 항공인구 저변확대

인간이 새와 같이 하늘을 날아보겠다는 신념의 의지에서 모형항공기가 발명되었고, 이 꿈이 실현된 것이 바로 1903년 미국의 라이트형제에 의해 이루어졌다. 당시 59초 동안 256m를 기록한 최초의 동력비행기로 불과 85여년 동안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

룩하여, 오늘날 음속의 3배돌파와 대기권을 벗어난 우주탐사와 스타워즈에 이르기까지 항공과학기술은 급성장의 비약적 발전을 이룩하였다. 따라서, 오늘날 과학기술의 계속적 발전만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첨단기술에 의해 선진공업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상기할 때, 과학기술에 대한 저변확대는 단순한 암기위주의 전달에서만 아니고, 어릴 때부터 과학하는 지능을 개발해주고, 실험실습을 통한 탐구능력을 일깨워주는 데서부터 출발된다.

바로 이러한 동기에서 매년 실시되고 있는 공군 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 대회는 전 국민 과학화운동에 부응하고, 장차 항공우주시대의 꿈과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항공사상 양양을 위한 행사가 바로 모형항공기대회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어린이로부터 청소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늘에 대한 동경과 희망을 안겨주는 계기가 되어왔으며, 손수 정성들여 만든 글라이더와 고무동력기를 보다 멀리 날려보겠다는 의지와 집념은 과학정신을 일깨우고, 탐구하는 학습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 2. 과학은 동심에서 출발

장차 우리의 조국하늘을 수호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어린시절로부터 동기부여가 절실히 요망된다.

그러기 위해, 자라나는 어린 소년에게 하늘에 대한 무한한 동경과, 날고 싶어하는 꿈을 키워주고 항공기에 대한 매력과 올바른 지식을 고취하여, 자기신념화시키므로 스스로의 가치관을 확립한다.

비행기가 하늘을 날게 하여, 항공시대의 계몽을 시사해준 라이트형제들도 비행에 대한 꿈의 실현은 바로 그의 아버지 「밀튼·라이트」가 두 아들을 위해 마련해준 장난감이 동기가 되었다.

즉, 1878년 형 「월버·라이트」가 11세, 동생 「오오벌·라이트」가 일곱살 때, 아버지로부터 선물을 받은 대나무 살과 종이로 만든 큰날개 2개 가운

데, 기다란 굴대에 고무끈이 달려있는 간단한 구조를 가진 것으로, 고무줄을 감고서 손을 놓으면 “붕”하며 하늘로 날아가는 것을 깨닫고부터 비행기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어린시절에서부터 하늘에의 꿈을 심어주고, 우주과학에 대한 강한 호기심을 부각시켜 주므로, 자기의식의 실현을 펼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는 동기부여가 바탕이 되지 않고는 자기신념을 구현하기가 어렵다.

비록 이것이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이 아닐지라도 분명히 어린 소년시절의 꿈을 키워주고, 그들 자신의 성장과정 속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자기실현의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 만이, “신념에 찬 보라매”를 탄생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동심의 세계에 대한 무한한 꿈을 안겨주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과학하는 자세를 갖게 하므로 2000년대를 향한 한국과학의 신기원을 만들 수 있으며, 우주에 대한 개발연구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첨단과학기술시대를 달성하기 위해 현실적인 여건하에서 대민항공사상을 선도적으로 보급해야 할 주체는 역시 우리가 앞서야 할 것이며,

이러한 분야에 기초를 확립해 놓아야 한다.

아울러 미래 한국과학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소년들에게 과학하는 마음, 용기,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어린이들에게 무한한 동경의 대상이 되는 조종사, 발명가, 과학자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 공군에서는 항공사상 양양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 3. 과학스포츠로서의 모형항공기

모형항공기의 제작비행이 레저 및 과학스포츠로 날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모형항공기 비행은 1891년 독일의 “오토 릴리엔탈”이 행한 “공기보다 무거운 물체를 공중에 띄우는 실험”에서 시작하여 1903년 “라이트 형제”에 의해 완성되었으며, 글라이더와 고무동력기를 거쳐 요즘은 전자공학과 항공과학의 발달에 따라 고도의 전자장비와 컴퓨터를 이용하는 유선조종기와 무선조종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형항공기가 개발되고 있다.

특히 지상에서 전파를 이용하여 모형항공기를 원격조종하는 무선조종(R.C)은 드릴에찬 고급 과학스포츠로 각광

을 받고 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모형항공기 제작비행은 어린이들에게 항공과학기술에 대한 기초지식을 가르치고, 과학하는 마음을 기르며 창조력과 지능개발 그리고 공작기술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각 국민학교에서는 공작시간에 학생스스로 모형항공기를 제작하여 날려보게 하는 등 적극적인 붐을 조성하고 있다.

비행기의 4개 기본구조인 동체와 주날개, 수평꼬리날개, 수직꼬리날개를 균형있게 제작하는 가운데 비행기가 나르는 원동력인 양력, 항력, 중력, 추력 등 힘의 균형을 살핌으로써 항공공학의 기초지식에 대한 안목과 흥미를 넓혀주어 모형항공기 제작은 물론 항공공학발전의 기반조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더우기 미래세계에서는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예견에 따라 선진 각국에서도 모형항공기 제작비행을 국민레저 뿐만 아니라 국민과학운동의 일환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국내수준은 이제 초보단계를 넘어 중간단계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지난 '79년 이후 매년 전국적인 규모로 실시되고 있는 공군참모총

장배 모형항공기 대회를 계기로 동호인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기록수준도 크게 향상되고 있다.

#### 4.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 기여

1979년 10월, '80년대 국산 항공기 생산의 국가목표에 부응하여 항공사상을 앙양하고 항공과학지식을 개발하기 위한 취지 아래 제1회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 대회가 각 지역별 예선을 거쳐 공군사관학교에서 본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전국 규모의 모형항공기 대회가 시작됐다.

이후 금년의 10회 대회에 이르기까지 본대회는 매년 참가선수의 증가에서 볼 수 있듯이 모형항공기 동호인의 저변확대를 통한 국민의 항공사상 앙양과 항공과학 기초지식 보급에 크게 기여해왔다.

참가선수 수는 '79년 1회대회시 불과 3,200명에서 지난 해에는 16,000여명으로 증가, 5배에 가까운 증가를 보여주었으며, 특히 항공과학 전문지식과,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유무선 조종부문의 경우 국가경제발전과 더불어 동호인의 참가율이 계속 증가, 1, 2회 대회시에는 서울에서만 실시하던 것을 지금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

전, 수원 등 10개 지역에서 확대·실시하고 있다.

참가선수층도 다양해져 초기 대회가 주로 국민학생과 중학생 위주로 진행되었으나 점차 일반인의 참가가 늘어나고 있으며, 많은 국민학생들이 유무선 조종부문에 참가하는 등 모형항공기 동호인의 저변확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참가인원의 감소는 선수층이 얇은 것이 아니라, 각 학교별 예선을 통해 선발되고, 경기진행상 참가인원을 제한하며, 실력향상을 통한 정예화에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5회 대회부터는 세계대회를 겨냥하여 양적 확대와 더불어 대회기록 향상 등 질적 향상에 보다 큰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모형항공기 규격과 채점기준 등에 대한 대회규정을 국제항공연맹(FAI)의 대회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한편 참가자격의 범위도 확대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5. 모형항공기 종류와 경기방법

모형항공기 종류는 크게 글라이더와 고무동력기, 유선조종기(V. C<sup>2</sup>), 무선조종기(R, C) 등으로 나뉘어진다.

제 언

\* 연도별 대회규모

회	본선일시	경 기 지 역	종 목	참가선수	비 고
1 회	'79.10.7	5개지역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4 부문 24개 종목	3211 (610)	
2 회	'80.10.12	8개지역 : 수원, 청주, 원주 추가	4 부문 28개 종목	6229 (870)	
3 회	'81.9.20	10개지역 : 전주, 사천 추가	"	10026 (1248)	
4 회	'82.10.9	10개 지역	"	7925 (950)	
5 회	'83.10.23	10개 지역	"	11910 (1027)	
6 회	'84.10.14	유·무선 자유 비행	"	13819 (900)	
7 회	'85.10.13	10개 지역 유·무선 자유	"	12685 (972)	
8 회	'86.6.22	공사 (자유비행) 17비 (무선)	"	17961 (2066)	
9 회	'87.6.21	10개 지역 청원기지 (무선)	"	16548 (1852)	
10 회	'88.5.29	10개 지역 공사 성무기지 (무선)	4 부문 24개 종목	15600 (1674 명)	초등 1, 2년 제외 (2) 유·무선 실물축소 (2)

## ○ 글라이더

글라이더는 고정익을 가진 비행기를 조종자가 끄는 줄로 당기어 일정고도까지 오르게 한 후 끄는 줄을 이탈시켜 자유비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채점시간(비행시간)으로 채점하게 된다. 비행시간은 대개 1~2분으로 당일의 기상조건 등에 따라 상승기류를 타게 되면 무한비행의 기록도 나올 수 있다.

## ○ 고무동력기

고무동력기란 여러 가닥의 고무줄을 감아 프로펠러를 돌려 그 추진력으로 나르는 비행기로 글라이더와 같이 비행시간으로 채점을 하게 된다. 비행시간은 2~3분 정도

## ○ 유선조종(U, C)

유무선 조종기는 리트로 오일을 사용하는 엔진의 힘으로 프로펠러를 돌려 날게 되는데 기체의 모양이 다양하며 엔진에는 소형소음기를 부착, 실제 항공기와 같은 요란한 소리를 내게 하여 실감있는 비행을 하고 있다. 무선조종에는 헬리콥터도 등장, 실제 헬리콥터와 같은 기동을 하기도 한다. 유선조종은 U자모양의 손잡이가 달

린 2가닥의 조종줄을 이용, 날개를 움직여 큰 원을 그리며 모형항공기를 조종하게 되는데 경기종목으로는 모형항공기의 이착륙, 회전, 수직, 수평상승, 8자비행 등 다양한 비행조종기술을 겨루는 곡예비행과 2대의 모형항공기가 동시에 전투비행, 그리고 누가 짧은시간 내에 70회의 비행을 마치는가를 겨루는 경주비행, 그리고 실제항공기와 유사한 모형항공기를 제작하는 공작기술을 겨루는 실물축소기 종목 등이 있다.

## ○ 무선조종(R, C)

무선조종은 지상에서 무선조종장치를 이용하여 전파를 통해 공중에 떠있는 모형항공기의 날개를 움직여 자세, 방향, 고도 등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조종하는 것으로 공중기동기술을 겨루는 곡예비행, 실제 항공기와 유사한 모형항공기 제작기술을 겨루는 실물축소기 종목, 그리고 헬리콥터 종목등으로 나뉘어 실시된다.

## 6. 발전 방향

금년 대회에서 볼 때, 모형항공기 글라이더, 고무동력에 대한 심판을 전산화 처리하여 종합집계, 기록분포, 학교별 성적 등 최종기록집계를 전산화,

## 제 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채점집계의 전산화를 시도한다.

그리고, 유무선 조종에 대한 심판이 지금까지 미 8군 한국인 동호인 클럽에서 실시해왔으나, 금년부터는 사관학교 과외활동의 일환으로 모형항공기반생도들에 의해 심판함으로써, 유무선 조종에 대한 전문가적 자질을 향상시킨다.

또한, 지금까지 글라이더와 고무동력, 유선, 무선 조종경기를 한 지역에서 동시 경기진행을 할 수 있는 여건에서, 글라이더와 고무동력을 연병장에서 실시하며, 유·무선 경기는 별도 운동장 내지 떨어진 기지에서 실시함으로써, 대회 참관인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끌 수 있고, 흥미를 유발시키는 유·무선 경기를 직접 관람할 수 없는 애로를 동기지 또는 동일지역 내에서 경기가 진행되어, 많은 참관인들이 각 경기장을 관람할 수 있도록 경기장에 대한 대책이 요망된다.

모형항공기의 특수자에 의한 경기진행이나 소수 정예선수의 참가로 질항상을 기해 나가야 한다.

물론 각 지역에서 예선을 통과한 선수들이 참가하지만, 항공기 제작이 기존업체에서 만들어진 키트에서 완성품까지 대부분 동일한 관계로, 획기적인

자작품이 요망된다. 물론, 모형항공기에 대한 동호인의 저변확대나 참여도에 있다고 하지만, 보다 질적 향상과 솜씨를 뽐낼 수 있는 모형항공기 제작과 기록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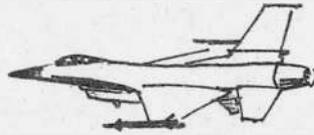
그러나, 기존 모형항공기에서 탈피한 사고로써, 어린시절의 모형항공기는 지금의 40대 이상의 기억으로는 종이비행기를 날려 본 경험이 오히려, 모형항공기 공작보다 더 원초적인 출발이었다면, 모형비행기 대회와 함께 종이비행기 날리기 대회도 동심의 세계로 파고 들어가 좋으리라 생각되고, 지금의 공작품 가격이 국민학교생이나 학부모에게 다소의 부담을 준다면, 종이비행기 대회는 주로 연날리기와 유사하게 아이디어 창출에 있다고 할 수 있기에 종이비행기 날리기 대회도 생각해 볼만한 일이다.

따라서, 모형항공기 대회를 공군중심으로 실시한다면, 종이비행기 날리기 정도는 민간단체 내지 예술단체에서 지역 유아층이나 국교생이하 수준에서의 대회개발도 가능하다. 바로 이러한 구상은 예총 충북지회에서 예술문화축제의 일환으로 제기되었으나, 구체적인 실현은 아직 보지 못하고 있다.

○ 결 언

“높이 나는 자가 멀리 내다본다”  
는 “갈매기의 꿈”을 쓴 리처드·비  
크의 말처럼 하늘의 무한광대한 우주

에 대한 꿈과 공상을 펼쳐 보일 수  
있는 조그마한 출발이, 모형비행기에서  
시작된다면, 장차 21세기 항공우주시대  
의 꿈과 기대는 과학하는 미래의 어  
린주역에 의해 발전될 것이다.



## “ 광 장 ” 을 읽고

“ 민족은 목적이요. 민주는 방법이다.” 라는 어느 강연제목이 생각납니다. 누구든지 민족이 뜻하는 본질이 목적이란데 동의하며 민주는 방법이라는 주제에도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이념이 결국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환경에 관한 전부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라는 데서, 이러한 사실을 가장 함축성 있게 표현한 말이 바로 “민족은 목적이요. 민주는 방법이다” 라는 제목이 아닐까 의미를 부여해봅니다.

비록 「광장」의 줄거리와는 연관성이 없을지언정 소설속의 주인공이 어떤 하나의 확실한 이데올로기에 대한 개념정립이 되지 않은 채 방황하여 결국은 남과 북 중 그 어느 곳도 택할 수 없어 비극에 이르게 되는 중극의 행태와 요즈음 세태의(좌·우익에 대한) 분분한 여론의 추이를 사방으로 쏟아 들으며 언젠가의 그 감



소위 김해룡  
(5672 부대)

1965년 김천에서 태어났다. 공군사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으며 36기로 임관한 조종사다.

동깊었던 강연이 새삼스럽게 생생히 기억에 되살아납니다.

작자의 설명처럼 어쩌면 인간에겐 스스로 깨달아가는 삶이란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작자는 상상의 공방에서 이명준이란 잠수부를 제작해서 삶의 바닷속에 내려보냈지만 그는 “이데올로기”와 “사랑”이라는 심해의 숨은 바위에 걸려 다시는 떠오르지 않았습니

다. 어쩌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이후에 전개될 주인공의 서글픈 생활의 비극에 놀려 미리 그의 삶에 대한 애착심을 포기한 것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광장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광장에 나서지 않고는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인간은 밀실로 물러서지 않고는 또한 살지 못하는 동물입니다. 광장은 대중의 밀실이며 곧 밀실은 개인의 광장인 것입니다.

이야기의 전개는 당시 상황의 현재에서 수시로 과거를 들춰내가며 연상해내는 방법인듯하여 처음엔 다소 어리둥절했으나 다 읽은 후엔 그 짜임새와 구성이 매우 야무지고 몇되지 않는 등장인물로서 치밀한 위엄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철학과 3학년인 주인공은 때로는 느껴지지 않게 열등의식을 가지며 때로는 뜨거운 사랑을 하며 그가 부지런히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지만 그것이 도무지 자기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며 살아가는, 다소 모순된 생활속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법이 없을까 하여 두리번거리곤 합니다.

당시의 남한 현실사정에 대하여 그는 어느 한 가지에도 흥미나 애착심

을 가질 수가 없었는데, 그는 한국정치의 광장을 추악한 밤, 탐욕과 배신과 살인의 광장으로 보았으며, 경제의 광장을 도둑질과 자본주의의 교활한 윤리 이하 허영의 애드벌룬에 비유했으며, 헛소리의 꽃이라는 말로 한국문화의 광장을 꼬집어 말하곤 했습니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남조선 사회는 백귀야행하는 도시 알 수 없는 난장판이었습니다. 최소한 그가 느끼기엔 이미 한국사회엔 광장이 죽은 곳, 광장이 비어있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에게서 철학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철학이란 모든 것을 갖고도 남을, 꿈을 보여주는 단 하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우리 한국사회가 그렇게까지 참혹하게 비취지고 죽어있었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과거의 서글픈 얘기로 새삼 놀라고 안타까워집니다.

그러한 현실하에서 주인공은 자기만이 소유할 수 있는 자기 팔들레만큼에 국한되는 밀실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광장으로 나올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던 가운데, 해방 후 월북한 아버지의 대남선전방송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함께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끝없는 미련을 남겨둔 채 북으로 떠나게 됩니다.

## 독 후 감

그는 개인의 밀실과 광장이 맞닿았던 시절, 광장만이 있고 밀실이 없었던 중들과 임금들의 시절을 그리워했습니다. 그가 원했던 괴로움이 없는 땅이 과연 펼쳐질 것인지 몹시도 궁금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란, 마주서야 할 일을 이참까지 이리저리 비껴오다가 더 물러설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린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는 호랑이 굴에 스스로 걸어들어온 자기자신을 저주하면서 무쇠 티끌이 섞인 것보다 더 숨막히는 공기속에서 이마에 진땀을 흘리며 하숙집 천정만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다른사람들이 되어버린 아버지에게서는 혈육에의 끈끈함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소 위안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서 또 다른 사랑하는 여인을 만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떤 결정적인 정신적 위기를 맞을 때마다,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이라는 거대한 힘이었었습니다.

그도 인간이었기에 레닌의 말처럼 「사회제도는 일조일석에 변할지라도, 인간의 이데올로기는 일조일석에 변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거역할 수 없었나봅니다. 스스로 속일 수 없는 리

얼리즘에 손든 채 살아남아야만 하는 요령과 슬픈 깨달음만 얻었을 뿐입니다. 그럴때마다 그가 달려갈 수 있는 곳이라고는 둥글게 안으로 굽힌 두 팔뚝이의 광장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혼자서 운다는 일은 강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의젓한 몸가짐이었습니다. 그를 더욱 미치도록 만들었던 것은 그러한 모든 괴로운 일을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었던 너무나 애석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극적인 줄거리의 전환이 되는 6. 25 전쟁이 그를 또 다른 낯설고 모진 광장으로 내동댕이친 것입니다.

역사란 하나 다음에 둘이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용돌이치는 시대의 탁류에 휘말려 사상과 사랑과 육친을 깡그리 잃어버리고 손에 잡히지 않는 죽음과 보이지 않는 곳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는 그의 앞에 우연히, 사랑했던 옛여인을 다시 만남으로써 종전 이전의 전장에서의 삶은 순간 순간적이지만 모든 것을 잊을 수 있는 동굴의 시간을 갖기도 했었지만 그녀는 결국 다시는 그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모든 삶에서 사랑은 하나의

커다란 정신적 지주였으며, 줄거리 전체의 막중한 비중상과 유연함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포로가되어 남과 북 둘 중 하나의 선택을 해야만 하는 기로에서 그는 헛것을 섬기는 혐오감에 불타는 북과 실존하지 않는 사람들의 광장아닌 광장으로 비춰진 남, 그 어느 곳에서도 자기힘이 미치는 너비에서 자기가 믿는 바대로 옳게 살아간다는 삶조차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없는 양측의 회유와 설득에도 중립국을 고집하여 포로수용선을 타게 되었지만 이미 그의 머리속에는 아무 것도 남아있지 않았읍니다.

중립국행 배안에서도 혼자서 진리인 채 할 수 없었으며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의 가물거림을 본듯하여 우연히 선실에서 집어들은 부채꼴의 부채에서 자꾸만 오므려드는 부채와 함께 과거의 온갖 덕지덕지 때문은 자기의 군상을 찾아내고는 흰바다새들의 그림자와 함께 멀리멀리 가버리고 말았읍니다.

작자는 참으로 모질게도, 아니면 현명한지도 모르지만 그것으로 더 이상 주인공이 이세상 깊은 심해의 밑실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어찌

면 사람은 꿈에 속아서 사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줄거리의 내용을 그대로 오늘날의 우리 한국사회에 전개시켜 본다면 어떻게 될까하는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작자가 무척이나 당황해하고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이 놀란 호기심으로 기대되어집니다. 당시의 참혹한 사회상과는 판이한 오늘날의 선진화된 우리사회에선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리라고 누구나 동의하리라 확신합니다.

운명이 만나는 자리를 광장이라 할 때 이제는 모두 자기들만의 조그만하고 캄캄한 밑실에서 뛰쳐나와 다함께 광장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조그마한 제안을 가져 봅니다.

생각해봅니다.

열기가득찬 연병장에서, 부대앞 싸구려 대폿집에서, 전우, 젊음, 사랑을, 나라와 겨레를, 오늘과 내일 그리고 먼 훗날까지를…….

되돌아봅니다.

지난 계절, 지난 한해를 “바로 오늘이 가장 소중한다”고 다짐했던 그 수많은 “오늘”들이 곧 어제가 되고 또 어제의 어제되어 흘러간 사이 전선엔 벌써 가을이 짙어가고 겨울지나

---

## 독 후 감

면 우린 또 다시 새광장에 서야 하는데.

자서상을 그려봅니다.

가장 소중한 이 시간에 새로운 광장에서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주연일 수도, 조연일 수도, 챔피언일 수도, 관중일 수도 있는 광장. 그러나 우리의 마당은, 사랑의 뜻으로, 사랑의 길로, 갈채받는 “사랑의 광장” 이어야한다는 것을.



## 더욱 더 광을

김 일 순

이 글은 원로문인 김 일순 여사께서 젊은 공군장교들에게 보다 멋진 신사가 되어주길 바라며 써주신 글이다. — 편집자주 —

**시기를** 1955년 그 무렵에 다 둔다. 우리 주변에 뭔가가 파랗파랗 돌아나려 하고 있을 때다.

일제말 그 지독한 물자부족을 겪은 다음은 또 팔일오다. 여기서 군것질 꺼리는 마구 쏟아져 나왔지만 여타는 여전한 궁핍생활. 었친 데다 덮쳐 다음은 또한 육이오의 참변!

무얼 어떻게 차림새 갖출 경향이라고는 없었다. 허나 우리민족 독특한 속마음의 “양반”은 늘 있었다. 신사도 있어 마음의 향기 아낌없이 뿌려주기도 했다.

예나 지금이나 젊은이들은 명동다방에 즐겨 모인다. 마음의 덮을 풀고 친구들과 더불어 함께 마음껏 노닥거

릴 수 있는 그런 장소이다. 그때는 담배하면 으레히 양담배다. 우리들 생활에서는 항상 비쌌다. 헌데 친구들 중에는 담배를 그때그때 손을 안 주머니에다 쪽 넣어서는 용하게도 틀림없이 한까치씩만을 뽑아낸다. 집에서부터 연습을 거듭해 놓은 탓일까?

그대신ライター불은 또 들레들레 주변을 살핀다. 이때 누구에게서든 반드시 서비스는 받게 마련이다. 만은 여간한 용감이 아니다. 즉 치사스런 뱃속을 송두리째 내보이는 그 용기를 말한다. 담배를 엇활듯 하는(그나마도 저혼자서) 그 암체 한 번 덤뵤 차가운 물속에다 던져넣어 주고 싶기도 한다.

K신문사 초대 문화부장 C아무개는 산뜻한 테안경에다 아무리 추운때라도

투박하다고 오버도 걸치지 않고서 항상 코·이마는 물론 머리속 까지도 새빨개져 있고 그런 모습으로 기꺼이 한겨울을 보낸다. 땀은 스마트한 올드보이를 자부해 마지 않을 게지.

옆에서 보기에 딱해 애쓰는 건 모르고서, 어쨌든 그대로 신사양복의 샘플다운 스타일이었다. 헌데 이 C 부장에게 더덕더덕 역겨운 면이 몸동아리 안팎으로 달라붙어 있었다. 자기 아내의 흉을 꼬치꼬치 보지 않고는 그날 하루의 일이 손에 안잡힐 듯한 그런 못된 버릇이다. 그나마도 얘기상대가 그렇게도 없는지 눈앞에 있는 같은 부(部) 여성에게 한구절 한구절 털어놓는 고 낮 간지러운 태도다. 편집국 구석구석이 말끔히 청소되어있고 또한 그 맑고 싱싱한 아침공기 속에서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지체없이 뿔아놓는 것이었다.

소재부터가 아무 것도 아니었다. 누구든 갖는 살림살이 주부의 이모저모 일 따름인데도 왜 저럴까? 그래도 그는 이 아침에도 아내의 손에서 밥을 먹고 그리고 저렇게 새하얀 와이셔츠도 걸쳐입을 수 있었던게 아니라? 지금 그가 담배라도 꼬나물고서 창밖이라도 내다보면 쉽게 흠어 없어져 버릴 그런 사연들 뿐이 아니라?

유감스럽게도 C 부장은 담배란걸 모른다. 혹시 담배를 만진다 해도 아마 담배 한까치가 아니라 반까치만 먹고 꺼낼 뉘뉘이기는 하지만도.

사변 피난시절 공군은 본부가 대구였고 정훈감은 W 모대령이었다. 헌데 이 대령님 흡사 봄철 꽃고추같이 야들야들한 체구로 아직은 미혼인듯 어느 큰 한옥집 큰 방에서 하숙생활이었다.

또한 그 바로 맞은편 방에는 어느 모로나 누님격인 여성 글쟁이 한 사람이 남편은 피납된 몸으로 아이들만을 데리고서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참으로 좋은 이웃사촌이 되고 있었다. 여기를 글꾼 여류들이 빈번히들 드나든다. 당연한 일이다. 지독히도 할일없던 시절이고 집은 넓고,, 헌데 이때마다 마루 하나만을 사이에다 둔 대령께서 마치 자기손님인양 대하러 든다. 말하자면 말참견 그것이로다. 거기까지야 좋다.

그 골레에서 벗어나 하늘같은 직속 상관 총참모장의 흉(?)이니 고약한 느낌이 든다. 어떤 조목조목을 드는 건 아니다. 다만 “준장?” “준장이 뭐지?” 준장이니까 어쨌다는 거야! 등. 그 이상은 벗어나지 않았

으나 아뿔튼 어떤 맑고 유쾌함을 찾아 애쓰는 우리들에게는 듣기에 역겨웁다. 짓하고 있는 그 남성답지 않은 새새한 질투심을 꺼내서다. 더구나 이쪽은 아무런 직접적인 관련없는 치들이 아니라? 검은 흙탕물을 느낀다.

주어진 소재가 「신사의 멋」. 멋이란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만큼 좋은 것이다. 이는 또한 어느세대 누구에게든 있다. 그러니까 요즘 유행의 카운트다운식으로 우선 앞서 말한 셋부터라도 점차 뽑아냄으로써 젊은 신사 원래의 “멋”에 다 한결 더 짙은 광(光)을 내주었으면 한다.



## 가 을 느 낌

**서늘한** 바람이 불어온다.  
기나긴 한낮의 햇살이  
점점 줄어들고 그와 함께 푸르름을  
자랑하던 나뭇잎들도 숨을 죽이듯 퇴  
색해 간다. 시간은 내가 느끼지 못  
하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흐르고 이제  
가을이라는 계절속에 던져 놓은 것이  
다.

생각하면 할수록 이 계절은 묘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때가 봄과  
가을이었는데 봄은 그것이 오랜 침묵  
과 기다림에서 태어나기 때문이고 가  
을은 다시 침묵하는 약간의 비장감까  
지도 지니고 있는 까닭일 것이다.

봄의 느낌이 희망에 가득한 충일감  
이라면 가을의 그것은 실령 수확과  
편안함의 기쁨이 온 지상에 가득할지  
라도 조금은 마음 한구석이 썰렁해지  
는 암울한 잿빛을 닮았다. 마치 어  
떤 물건이나 사람을 흑독하고 질긴  
기다림 속에서 갈구하고 그것을 얻게

후보생 구 총 서  
(항공대 R.O.T.C)

되면 더 이상은 바랄 것이 없다고  
믿어 오다가 막상 그 소원이 이루어  
지고 나면 한순간은 만족해 하다가도  
장난감에 싫증을 곧잘 느끼는 어린아  
이처럼 뒤돌아서 버리는 것보다 흡사  
한 서글픔이 거기에 있다.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감수  
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때를 맞이하  
는 모든 사람이 그러하겠지만 가을의  
느낌이 강하게 옷깃을 파고 들면 웬  
지 한없이 홀로 된다는 것을 피부로  
실감하게 된다. 그리 오랜 시간 동  
안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았지만  
항상 앞날을 향하였던 눈길을 되돌려  
지난 시간 동안 스쳐 지나간 사람들  
과 그들과 내가 서로 마주하면서 생  
겨날 수 밖에 없었던 숱한 기억들을  
되살리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주로 나를 행복하게 했던 일들 보

다는 나로 인하여 타인이 혹은 타인으로 인하여 내가 받아야 했던 상처의 아픔이 더 쉽게 느껴진다. 하지만 더욱 크나 큰 쓰라림으로 가슴을 저미는 것은 그런 아픔들을 온몸으로 참아가며 살아도 내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느낄 때이다.

결코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 항상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가 자신이 상상한 것과 너무도 동떨어져 있을 경우에 느끼는 배신감과도 흡사하다. 대상을 정하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서 성취하면 성취할 때까지의 모든 실수나 잘못은 진정한 패배가 아니다. 하지만 아무 것도 이룩하지 못했을 경우엔 도중의 작은 기쁨마저도 커다란 암흑의 구렁이 속에 묻혀 사라진다.

뒤에 남는 것은 철저하게 따돌림받아 자기 또래의 친구들과로부터 외면당하는 바보스런 아이의 증얼거림 뿐이다.

올해도 예전과 같아서 시위를 떠난 화살이 언젠가는 땅에 떨어지듯이 그것이 얼마간의 시간의 차이를 두고 이루어진다고 해도 나는 어김없이 가을을 앓는다. 친한 사람들은 나의 그러한 모습을 해마다 쓸데없는 병에 시달린다고 하는데 그것은 스

스로 느끼기에도 남들 보다는 더욱 괴로운 마음으로 방황하고 그것 만큼이나 얻은 것은 없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럴 때는 오히려 내몸속에서 흐르는 피, 손 등에 나타난 힘줄, 조용히 느낌으로 알 수 있는 심장의 고동같은 나를 사람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들이 혐오스럽게 보여지기도 하고 오히려 이름을 알 수 없는 나무나 풀잎이 부러워진다. 죽음을 맞이 하듯 엄숙한 순종으로 그 찬란한 생명력의 표현, 무성했던 잎사귀들은 바람에 날리우지만 거친 껍질 속깊은 곳에서는 지루했던 폭염의 계절 동안 축적한 양분의 달디단 감미로움을 즐기고 있을 나무, 그것은 내 스스로 누리고 있는 자유스러움, 홀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였다.

어디에선가 이런 글귀를 읽은 적이 있다.

“사람은 왜 뿌리를 땅속 깊이 박지 못할까?

땅으로부터 자양을 빨아들이지 못할까?

왜 발이 있고 뿌리는 없을까?  
걸어다닐 수 있다는 것이 자유를 뜻하는 것이라면 자유란 얼마나 인간다운 것이며 얼마나 불안한 것인가?”

나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자주

뇌까러 보던 말이다.

하지만 올해의 가을느낌은 그것이 내게 아픔을 완전히 제거한 것이 아닐지라도 색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묘한 버릇이 생겼다. 하루에도 몇번씩 하늘을 우러러 본다.

단 한번의 태풍도 할키고 지나간 흔적이 없는 푸르름이 좋아서인지 아니면 예고없이 떨어질 차가운 빗방울 때문인지 그밖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는 나도 모르겠다. 다만 조금이라도 시간여유가 있으면 스스로 생각해도 멍한 모습으로 앉아 창밖을 바라본다. 젊은 녀석이 뭐 그렇게 녀을 놓고 생각할 게 있느냐는 핀잔에도 그냥 바라보며 빙긋이 웃어주고 만다.

더할 수 없이 서늘함을 안겨주는 푸른하늘과 거기에 비치는 세상을 보는 것이다. 굳이 창을 통해 바라볼 필요는 없지만 한번쯤 여과를 시킨다는 뜻에선 창을 통하는 것이 무난하다. 하지만 아무리 깨끗하고 투명한 유리를 끼운 창문이라도 활짝 열어 놓아야 한다. 아기웃음처럼 영롱히 반짝이는 햇살이 따사롭게 비쳐들고 바람은 그 빛줄기를 타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가끔씩 허전한 손길을 염려해서 무

를 위에 펼쳐놓은 책장 위로 바람은 스쳐가고 팔랑거리는 소리를 내며 책장 넘어가는 소리에 피득 정신이 들면 예전에 그렇게도 무관심하게 바라보던 하늘이, 때론 무자비한 나부낌으로 눈앞을 가리우던 바람이 온방에 가득하다. 그러면 내몸은 눈에 보지 않는 무수한 솜털로 뒤덮인 것처럼, 그것들이 소리치며 일어서서 온몸의 세포를 자극하여 흥분시키는 것처럼 알 수 없는 기쁨에 잠긴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부로 느끼던 감각은 안으로 갈무리되고 마음은 더욱 차분하게 가라앉는다. 햇살이 눈에 띄게 옅어지고 길게 방안에 누운 그림자 속에서 약간은 쌀쌀하게 느껴지는 기운이 흐르면 창을 닫고 조금 더 창에서 떨어져 앉아 아직도 조용히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열기로 나 자신의 존재를 다시금 확연히 아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예전과 달리 총만한 무엇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이고 그 안에는 소리없는 기쁨이 녹아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네가 어떤 기쁨이나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기쁨이나 슬픔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함부로 나는 기쁘다, 혹은 나는 슬프다라

고 말하지 말라고 ……, 어떠한 고난이  
고 행복이건 그것이 지나간 다음에  
야 자신있게 기억할 수 있는 법이라  
고 ……, 아마도 기쁨이건 아픔이건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특히나 젊은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함부로  
좌절하지도 헛되이 자만하지도 말라는  
말일 것이다.

아직 한해가 다 기울지도 않았고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불투명한 내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안다. 하  
지만 눈을 감고 있어도 얼굴을 스치  
는 물방울과 컷전에 후둑이는 빗소리  
에 비가 내리고 있음을 알듯이 나는  
겁없이 그러나 조심스럽게 스스로를  
돌이켜 본다.

많은 변화가 내게 있었다. 항상  
새로운 것을 대할 때마다 나는 호기  
심과 두려움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한  
다. 판도라의 상자를 옆에 둔 것처  
럼 불안하다. 사람의 역사가 끝없는  
변화를 통하여 이룩되었고 그로 인하  
여 발전이 있었음을 모르지 않지만  
변화가 항상 진보만을 데리고 다니지  
않고 때론 엄청난 희생을 감추고 나  
타난 때도 있었음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택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고  
나는 진보와 몰락의 두가지를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순간순간에 되풀이 하  
면서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른다.

학군단에의 입단은 내게 있어서 크  
나큰 변화의 시작이었다. 나는 지원  
을 했고 그것은 나의 선택이 이미  
끝났음을 의미했다. 남은 것은 나아  
닌 타인들의 선택이었기에 스스로가  
닥쳐 올 변화를 미리 예견하고 준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부  
딛쳐야 했던 것은 예상 밖의 일이었  
다. 그만큼 나의 준비가 소홀했던  
까닭도 있었지만 ……

사람의 가치관은 고정된 것이 아니  
라고들 말한다. 어릴적부터 형성된  
가치는 사춘기를 지나며 크게 해체되  
고 어느 시기를 지나면 다시 재정립  
된다고 한다. 내 생각엔 학군단에  
입단할 당시의 내 가치관은 어느 정  
도 만들어진 상태였다고 느껴진다.

그것이 오만함이었음은 뒤늦게 알았  
지만 그때는 그렇게 믿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모든 후보생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였겠지만 두사  
람 몫을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능  
력을 기르라는 것이었다. 어떤 일을  
두배로 하거나 식사를 2인분 먹으라  
는 말이 아니었다. 학군단이 지니는  
특성 중의 하나인 대학생활을 하면서  
사관후보생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을

## 수 필

완벽히 인식하고 실생활에 적용하라는 것이었다. 100%의 학생과 100% 군인이 합쳐져 만들어진 200%의 인간 학군사관후보생.

처음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 의미를 인정할 수 없었다. 한 가지 만으로도 벅차게 생활해 왔는데 도무지 어떻게 한사람이 두가지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까? 하는 거부감이 너리를 스쳐간 것이다.

어쩌면 철저한 계급으로 형성된 군대의 체제가 하루아침에 내 모든 생활을 지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었는데도 모른다. 방종에 가까울 정도로 철저히 나 자신이 자유로와야 한다고 믿었고 그렇게 살아 왔었다.

생똥귀베리의 어린왕자에서 여우가 왕자에게 한 말이 기억된다. 자기가 길들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솔직히 내가 추구했던 자유의 느낌은 나와 대상간의 무관심이었고, 그것은 나에게 책임지울 수 있는 것으로 부터의 도피였다. 나는 철저히 나 자신에게만 구속되어 생활해야 했다.

맨처음 느끼는 감정이 끝까지 한사람의 생각을 편협하게 만드는 것을 많이 보아왔고 스스로는 그렇게 되지 말자고 되새겨 본적이 한 두번이 아

니었지만 막상 내 눈 앞에 그것이 나타났을 때에는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도 힘들었다. 나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느꼈고 마치 잘못 심은 나무가 올바르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듯이 괴로와 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일이 순조로울 수는 없었다. 계속되는 학군단 교육을 통하여 나의 겉모습은 군인스럽게 변했을지 모르지만 속마음은 항상 다른 곳에 있었다. 군대의 강약은 사기에 좌우된다는데 그런 의미에서 나는 겉모습은 번쩍거리지만 속은 텅빈 강통에 불과했다.

어떤 계기가 필요한 때였다. 기계가 아닌 다음에야 자신의 의지와 관계 없이 행동하는 것을 누가 원할 것인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느낄 수도 없었지만 내속 어디에선가 새로움에 대한 갈증이 자라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기회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듯이 다가왔다. 그때는 몰랐지만 하절기에 실시되는 학군단 입영교육은 새로운 충격으로 느껴지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사방에서 울려오는 군가소리 머리가 익는다고 느낄 정도의 강렬한 햇살, 발 아래를 내려다 보면 모래에 반사되는 빛에도 눈이 어지러웠다.

몸에서 흐르는 땀은 가열되는 몸의 열기로 달랐다. 나는 그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한번 스스로의 견고한 마음의 벽을 허물었는지도 모른다.

몸과 몸으로 마주하는 시간 속에서 너무도 신선한 감각이 되살아 나는 것이었다.

함께 학군단 생활을 하면서도 나자 신만을 느끼기에 급급하여 외면했던 동기들 그들은 더 이상 남이 아니었다. 항상 후보생으로서의 기본자세가 확립되지 않았다고 질책을 가하던 선배도 더 이상 거부할 존재가 아니었다. 땀에 젖어 피곤한 어깨를 서로 두드려 주고 낮은 목소리로 힘내서 열심히 하라는 격려는 처음 내가 입단을 해서 느꼈던 철저한 계급에 대한 불신감을 제거하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처음부터 나의 가장 절친한 대상이었는데 나의 어리석음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다.

새로운 기쁨과 성취감이 어둠을 불사르는 태양같이 몸 깊은 곳에 쌓여서 악취를 풍기던 오만과 편견을 재되어 흩어지게 한 것이다.

나는 지난 여름의 무더움과 그 보다 더욱 강하게 다가왔던 환희를 잊지 못한다. 건전하지 못한 회의와 불신에 빠져있던 지난 날의 모습도 잊지 못한다.

한번 두꺼운 껍질을 덮어쓰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질식해 버리고 만다. 스스로의 파괴를 재촉한 결과를 받을 뿐이다. 그러지 않기 위해선 항상 자신의 껍질을 깨고 나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만일 스스로의 능력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 외부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무방하다. 그런 까닭에 나는 내가 속한 학군단을 자랑스럽게 느낀다. 즐겨 하늘을 바라보는 버릇이 생기고 내밀한 기쁨을 즐길 수 있는 것도 그러하다.

점점 긴밤이 찾아온다. 하지만 나는 그냥 잠들고 싶지 않다. 때론 이유를 알 수 없는 아련함이 가슴을 스치더라도 하얗게 부서지는 불빛속에 앉아 창을 두드리는 바람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영혼에 가득한 기쁨, 가을느낌을 되새겨 볼 것이다.

## 명 장 강 감 찬

**몇 년** 전에 일본의 월간지 「문예춘추」에서 세계를 움직인 인물 1백 10명을 뽑은 적이 있다.

그 속에 우리나라의 이순신장군이 끼였다. 당연한 일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만한 명장은 고금을 통해 다른 나라에도 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내세울 수 있는 인물이 이순신장군 한 분 뿐이냐는 의문이 남는다.

이순신장군은 무인이었다. 그가 살던 시대에는 무인은 문인보다 지위가 한층 낮았다. 나라를 움직이던 사람들은 모두 문관들이 아니면 학자들이었다.

우리나라 어느 역사책을 펼쳐 봐도 영화와 권세를 누린 문관·학자들의 이름은 수없이 나타난다. 그 중에서 이순신과 겨룰만한 인물이 없었다는 것은 무슨 까닭에서 일까?

인물이 나오기는 난세에 쉽다.



중위 김 병 인  
( 3252 부대 )

난세에는 인물이 더욱 아쉬어지는 때문이다. 따라서 인물이 없다는 것은 시대가 그만큼 평화스러웠다는 얘기도 된다.

그러나 아무리 인물을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만큼 나라가 가난했다는 얘기와도 같다. 인물이 없다는 것은 석유가 없고, 철이 없다는 것보다 몇곱 더 서글픈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영웅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더욱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영웅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때가 가장 행복한 때가 아닐까.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역술적인 얘기일 뿐이다. 그리고 그 많은 문인들 중에서도 한 명도 세계적인 인물이 나타나지 못했다는 것도 우리네의 지난 날의 역사가 왜 이처럼 어두웠고 메말랐었느냐는 사실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

여기에 비겨 무인들 가운데는 명장이 많다. 강감찬도 그 중의 한사람이었다.

「고려사절요」는 그를 찬양하기를 "극진하도다. 하늘이 이 백성을 사랑함이며, 국가에 화패가 닥쳐올 때에는 반드시 명현을 내리시어 이를 구하는도다 …… 안으로는 역신이 난을 조작하고 …… 밖으로는 외난

이 있어 국가가 위태로울 때에 강공이 없었더라면 나라가 장차 어찌 되었을지 알 수 없도다."

난세에는 학자는 나타나기 어렵다. 그러나 명장은 난세가 아니면 나타나지 않는다. 만일에 왜란이 없었다면 이순신장군은 나타나지 못했을 것이다. 당쟁의 제물로 끝났을테니 말이다.

강감찬도 마찬가지다. 설사 이 거란의 침입이 있던 시대가 아니었다면 그도 명장이 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물론 난세를 맞지 않는 역사가 최상일 것이고, 난세를 맞이하더라도 문인·학자·무관 모두의 영웅이 출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이다.





급속성의 폭음속에 촌각을 다루는 영공초계 임무,

최첨단의 과학기술 장비를 다루는 작업속에서 젊음을 불태우는 보라매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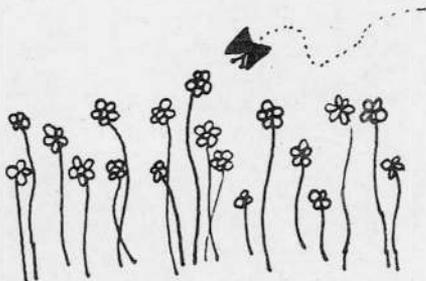
사색과 낭만을 즐기기에 너무나 각박한 시간들이기에 자칫하면 정서생활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장교 전문교양지인 「공군」은 여러분의 고귀한 생활속의 글들을 모집합니다.

오래전에 놓아버린 붓을 다시 잡고 원고지 한칸 한칸을 메꾸어 보십시오. 잃어가던 문학세계가 다시금 새로와질 것입니다.

힘들고 바쁜 생활속에서 나온 글들이기에 더욱 소중하며 값진 것입니다.

- ☆ 모집대상 : 장교 및 그 가족
- ☆ 모집부문 : 군사지식, 교양, 생활수기 등 문학작품 전 부문
- ☆ 마감일자 : 제한없음(연중무휴)
- ☆ 원고매수 : 30매 내의(200자 원고지)
- ☆ 제출처 : 서울 동작구 대방동 사서함 10호
- ☆ 기타사항 : 제출된 원고는 소정의 고료를 지급하며, 게재된 작품은 연말 종합심사후 시상함.
- ☆ 문의전화 : (호) 5115, 5388  
(직) 813-2691



“자기가 하기싫은 일은 남에게 시키지 말라”

존경스러운(?) 어느분의 생활신조이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인가?

내일이 아니니까, 나랑은 상관 없으니까.

나는 지위가 높는데…… 왜 내가.

현대인의 생활방식이다.

서로 사랑하며 믿으며 희망을 가질 때

엔드로핀이 많이 나온다고 이상구박사는

말했다.

나의 몸이 건강하고 오래살기 위한 것도

좋지만

좀더 평안하고 안락한 세상에서 살고싶다.

그래서, 아드레날린보다 엔드로핀이

더 많이 나오는 삶이 되도록

노력이라도 하면서 살아가자.

美 愛

# 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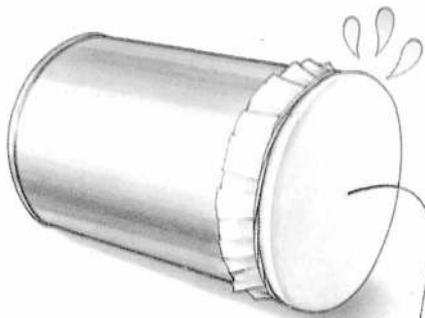
1989년 제 1 호 (통권 제208호)

1989년 3 월 15 일 인 쇄

1989년 3 월 20 일 발 행

발행처 : 공군본부정훈감실

인쇄처 : 공 군 교 재 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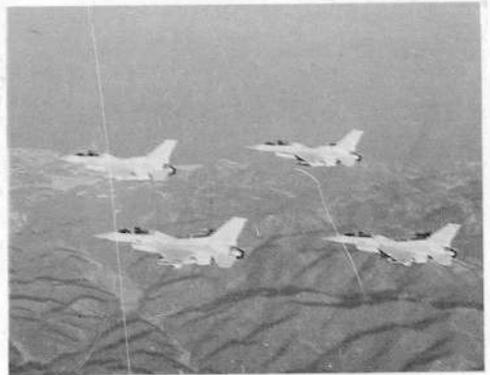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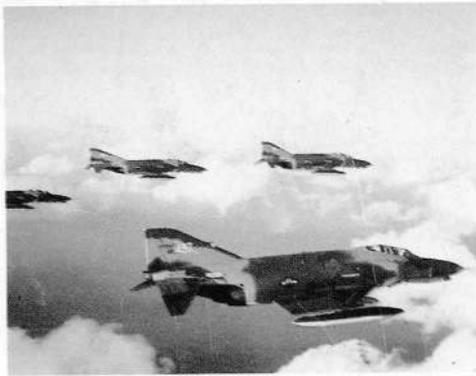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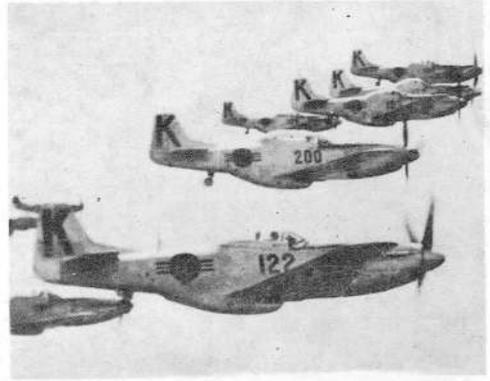
“거기 누구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 바로 옆집인데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문 열어주지 말라는 것부터 배우면서 크는 우리네 아이들. 서로 모르고 살아가는 얼굴없는 이웃, 이웃들. “거기 누구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바로 옆집에서 다급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관심이 없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은 닫을수록 더 굳게 빗장이 채워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건네는 정겨운 인사 한마디에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이웃은 사촌이라지만 정이 오고 가면, 이웃은 형제요 남매입니다. 잠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지금 외출했던 이웃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 “Air Man Ship”이 필요한 때 입니다.



**살** 내음 풋풋한 갓난아이를 따듯한 물에 목욕시키듯  
 공군이 창설되었을 때 우리 국민들은 자상한 어머니처럼  
 우리를 닦고 입히고 포근히 보듬어 주었습니다.  
 연락기 몇대로 하늘을 날았던 창군 당시나  
 최신예 전투기 편대가 비행하는 오늘의 하늘이 변함없듯

**우** 리 국민들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기대에 가득찬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멋진 공군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군의 주인인  
 국민의 시선을 의식하고 깨끗한 Airmanship을  
 발휘하는 길 뿐이겠지요.